



주님과의 대화에서

성 호세마리아

말로 전한 설교

차례

머리말	4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삶. (1954 년 11 월 21 일)	7
하느님 자녀들의 기도. (1955 년 4 월 4 일)	17
진홍의 온순함으로. (1955 년 11 월 3 일).....	24
오늘은 다시 시작하는 날. (1961 년 12 월 3 일)	30
주님, 당신임을 알려 주십시오! (1962 년 4 월 1 일)	36
10 월 2 일, 오푸스데이 창립일. (1962 년 10 월 2 일)	44
내면 삶의 신호들. (1963 년 2 월 10 일)	51
하느님의 발자취. (1964 년 2 월 14 일)	56
이 땅에서 우리의 길. (1967 년 11 월 26 일)	63
멈추지 않는 기도. (1967 년 12 월 24 일)	73
꿈이 실현되다. (1968 년 1 월 9 일)	78
성 요셉, 우리 아버지이자 주님. (1968 년 3 월 19).....	81
더 긴박하게 기도하기. (1969 년 12 월 24 일)	90
하느님의 논리. (1970 년 1 월 6 일)	95
이제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1971 년 1 월 2 일).....	103

우리는 요셉의 가족입니다. (1971 년 3 월 19 일).....	112
하느님의 손 안에. (1971 년 10 월 2 일)	119
하느님께 보답하기에 적절한 시기. (1972 년 2 월)	125
말할 수 있는 재능. (1972 년 4 월)	138
지혜의 술. (1972 년 6 월)	147
감사의 시간. (1972 년 12 월 25 일).....	155
하느님을 섬기는 기쁨. (1973 년 12 월 25 일)	168
“주님, 제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1974 년 12 월 25 일)	178
하느님의 길. (1975 년 3 월 19 일).....	182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1975 년 3 월 27 일, 사제 서품 50 주년 하루 전).....	191

박혜진 옮김

머리말

창립자 성 호세마리아의 구전 설교에서 발췌한 글귀를 이 책에 새롭게 추가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원래 설교집의 기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립자는 1928 년 10 월 2 일, 초창기부터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계시하신 오프스데이 정신을 전파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강론, 묵상, 강연, 설교는 물론, 가족 대화 또는 모임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형식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의 질문과 함께 영적 주제, 오프스데이의 역사에 대한 기억, 사도직에 대한 소식, 시사 문제에 대한 의견 등이 개진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때로는 그분의 말씀을 메모하여 개인 기도 시간에 되새겼습니다. 그간 몇 년 동안 이러한 모임은 영상으로 녹음되기도 하였고 1967 년부터 1975 년 사이에 성 호세마리아는 이렇게 수집한 메모를 면밀하게 검수한 후 오프스데이 신자들을 위해 월간 잡지에 게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86 년 성 호세마리아의 시성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성성에 제출된 성 호세마리아의 저술 중에는 1954 년부터 1975 년 사이에 성인이 구두로 설교한 텍스트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성 호세마리아가 생전에 이 텍스트들을 전체적으로 검수함에 따라 오프스데이 창립적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로마와 마드리드에 있는 재판소는 네 명의 신학자에게 성 호세마리아의 출판물을 연구하고 평가하도록 의뢰했습니다. 이들 보고서는 교황청 시성성에 제출된 문서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인용합니다.

“성서라는 생명을 주는 줄기에 접목된 에스κρι바는 그를 교회전통의 위대한 인물들과 동등하게 하는 일의 성화적 가치에 대한 메시지를 제시한다. 이 글들은 거룩한 교회를 위한 매우 풍부한 유산이 될 것이다.”

“에스κρι바는 고전의 힘, 즉 교부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노트들은 그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도달한 신비로운 삶의 정점을 기록하고 있다.”

오푸스데이의 단장이던 알바로 델 포르티요 주교는 이 구전 설교를 한 권으로 모으기로 결정했습니다. 1995 년에 이 책은 “주님과 대화”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성 호세마리아가 항상 반복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 대화는 오푸스데이 창시자의 매우 특징적인 구어체의 자발성, 직접적이고 심오한 복음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 문학 평론가, 신학자, 교회 성직자들이 그를 공개적으로 칭찬했습니다.

오푸스데이 창시자의 말은 따뜻하고 매력적이며 신중하고 엄선된 언어를 사용하지만 자연스럽고 과장되지 않습니다. 성서에서 엘리야 예언자에 대해 말했듯이, 그의 말은 햇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집회 48:1). 성 호세마리아의 묵상은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고 우리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의 말은 하느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을 위한 힘과 깊은 기쁨으로 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 책을 통해 오푸스데이 신자 외에 다른 사람들도 성 호세마리아의 말씀에 따라 효심 어린 신뢰로 하느님께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고 묵상하는 이들이 내면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님과의 대화가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성모님과 성모님의 배우자 성 요셉의 전구에 의지하여 하느님께 이를 간청합니다. 1928 년 10 월 2 일부터 시작된 오푸스데이 창시자의 대화를

묵상하면서 성 호세마리아가 끊임없이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가 직업과 일상
생활에서 성화의 길을 걷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6 년 10 월 6 일, 로마.

하비에르 에체바리아

오푸스데이 단장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삶. (1954 년 11 월 21 일)

“당신의 빛과 당신의 진실을 보내소서.” (시편 43, 3).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마태오 4, 19).

그리고 첫 열두 제자처럼 그분과 함께 생활할 정도로 그분을 가까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동심이 되어 그분을 가까이 따르고, 그분의 삶을 살며, 우리가 장애물이 되어 가로막지 않는다면, 성 바오로와 같이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티아 2, 20).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동시에, 우리의 불쌍한 본성의 모든 작은 것, 모든 비참함, 모든 약점과 결함을 깨닫는 것도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첫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종종 그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들의 간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마태오 13, 36).

자녀들이여, 하루 내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외부적인 방해를 받지 않는 채 우리가 오전과 오후 하는 기도에서 먼저 묵상하고자 하는 장면에 집중하고, 그 다음 지성으로 사랑과 보속, 감사와 개선하려는 의지로 강한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고요한 기도에 도달해야 합니다.

기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영적인 것까지 구체화하여 비유에 의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르침은 거룩한 것입니다. 교리는 감각을 통해 우리의 지성과 마음에 도달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배와 바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베드로의 배에 올라탔습니다. 이 교회라는 배는 연약하고 낡았지만 어떤 풍랑도 난파시킬 수 없는 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천천히, 천천히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왜 이 배에 오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에는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푸스테이의 배를 타고 싶다고 느끼는 것은 가장 초자연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 불쌍한 마음을 피조물에게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기 때문에 온전하고, 젊고, 활기차고, 고귀하고, 깨끗한 마음을 주님의 발 앞에 놓습니다!

여러분은 마음과 함께 예수님께 자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목표는 매우 부차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하느님 자녀들의 자유, 거룩한 뜻을 이루며 함께 배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항상 배의 한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배에서 내리면 당신은 바다의 파도에 빠져 죽게 될 것이고, 바다에서 멸망할 것이며, 그분이 주신 동행 초대를 자유롭게 받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녀들이여,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태우는 향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생각해보고, 땅의 것들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지, 시작하자마자 끝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먼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이나 우리의 명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명예,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교만으로, 여러분의 특별한 재능이 이곳에서 눈에 띄지 않고 능력만큼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의미없이 지쳐 갈 뿐이라고 속삭인다 하더라도 오푸스데이라는 배에 올라 탄 것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스스로 자유롭게 응답했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요한 6, 44).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자신을 불태우는 희생, 제물로 보답해야 합니다!

자녀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 생명과 영생과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면 배에서 내릴 수 없으며 많은 경우 개인적인 목표를 포기해야 한다고 스스로 설득했습니다. 저는 순종이라는 공동의 목표 외에는 다른 목표가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비유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20 세기 동안 침몰하지 않고 항해해 온 이 낡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섬기기 위한 헌신의 배입니다. 그리고 이 배에서 가난하고 겸손한 여러분은 완벽하게 조종할 수 있는 비행기가 있다는 것이 생각나 얼마나 더 멀리 갈 수 있을까 하며 망설이게 됩니다!

그럼 항공모함으로 가세요, 비행기는 여기서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자유, 헌신, 사랑의 결실이며 완전한 헌신을 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세요. 우리는 배 안에서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없습니다. 화물칸의 모든 화물이 한 곳에 쌓이면 배는 가라앉습니다. 모든 선원들이 각자의 임무를 포기한 형편없는 배는

길을 잃게 됩니다. 순종이 필요하며 사람과 사물은 반드시 명령이 내려진 곳에 있어야 합니다.

자녀 여러분, 지금부터 배에서 내리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배 안에 있으려면 자신의 판단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십시오. 행복하고, 자신을 불태우고, 번제물이 되기 위해 깊은 겸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스스로 설정한 목표는 거룩함과 사도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사도직을 위해서는 교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리를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간, 장소와 적절한 수단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공부와 일이라는 인간적인 수단을 주셨으니 특별한 깨달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훈련을 받고 공부하여 현재와 미래에 있을 거룩함과 사람들을 위한 사도직을 스스로 준비합니다.

빵을 만들기 위해 효모를 준비하는 과정을 보았나요? 적절한 온도에서 효모를 보관해 두었다가 반죽에 넣는 과정을 보았나요? 저는 여러분이 전 세계에 사도직을 추진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 비효율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규범을 지키고, 공부하고, 일하고, 순종하는 등 효율성이 넘칩니다.

저는 원자 물질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습니다. 신문에서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하 몇 미터에 묻고 큰 납 시트로 덮고 두꺼운 콘크리트 벽 사이에 보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여전히 활동하지요. 때로는 사람들의 종양을 치료하는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그것은 놀라운 효능으로 수천 가지 놀라운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오푸스데이의 훈련 및 교육에 헌신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비우신 그리스도님처럼 헌신으로 자신을 신격화할 때 하느님의 효과가 있기에

효과적입니다. 외적으로 우리는 개인자유를 잃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하느님의 자녀라는 더욱 성대한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교리를 전하고 개인적인 거룩함을 위해 교육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수단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모든 영혼을 생각하면서 온 우주와 인류 전체를 위한 양성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들이 새로운 나라들에서 최전선을 돌파하는 동안,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돌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랑으로 만들어진 이 성벽 안에서, 여러분이 거룩함과 헌신의 모든 결과를 보내니 형제들은 혼자가 아니고 동행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마태오 28, 19).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십시오. 전문적인 직업 일터에서 먼저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교리의 사도직입니다.

영혼의 자녀 여러분, 제가 자유를 매우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압니다. 저는 강요하거나 영혼이 강요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반대입니다! 저는 비행기 없이 배에 탄 여러분 각자의 자유를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오푸스데이는 평신도가 중심이지만 사제는 꼭 필요합니다. 최근까지 저는 형제 중 한 명이 사제서품을 받을 때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로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압이 없고 절대적인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내 아들이 사제가 되고 싶지 않다고 해도 하느님께서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게다가 거룩하고 배움이 많은 평신도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제직에 부름 받은 사람은 서품을 받기 전 순간까지 완전한 자유를 누립니다.

“아버지, 안됩니다”.

아주 잘했다, 아들이. 하느님의 강복을 받아라. 나는 전혀 불쾌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자매와 형제, 많은 협력자, 성 가브리엘과 성 라파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헌신적인 교구 사제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 많은 사제들이 필요합니다.

오푸스데이는 전 세계에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고 경이로운 많은 일들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평신도들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성사가 필요하니 사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푸스데이 정신을 모르는 사제에게 성사를 받아야 한다면 우리의 사도직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성직자들은 오푸스데이 거버넌스를 위해 필요합니다. 지역 센터는 평신도들이 맡고 있고, 총평의회와 지역위원회의 2/3가 평신도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성직자 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 세계각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 소명을 잘 아는 사제들이 맡게 될 것입니다.

사제는 단결의 도구로서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제는 개인 예배당을 만들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사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야 합니다! 저에게는 그것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가 하느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도 전에 항상 개인적인 것을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해성사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저는 때때로 다른 신부에게 가도록 충고했습니다. 오늘은 고해성사를 듣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 애착이나 애정으로 성사를 받지 않고 신성하고 초자연적인

하느님의 사랑을 위한 이유만으로 성사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녀들이여, 절대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상상하는 교만함에서 벗어나세요. 자신을 기억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잘못은 우리가 거만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믿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하다고 생각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에게 세상 한가운데서 관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칠 때가 오면 얼마나 기쁠까요! 아침부터 밤까지, 밤부터 아침까지 기도의 삶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밤부터 아침까지요! 아버지? 그래, 아들아, 잠자는 동안에도.

여러분도 저처럼 오래된 수도원 독방에 갇혀 소리없이 살았던 수도자들의 삶을 존경합니다. 그것은 일과 기도의 삶입니다. 카르투시안 수도사들을 방문했을 때 저는 교화를 받고 돌아왔고 그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저는 그들의 소명과 세상과 단절된 삶을 이해하기에 저도 행복합니다.

하지만 거리로 돌아갈 때면 여기가 저의 독방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의 삶처럼 관상적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독방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의 내면에 있도록 우리에게 수단을 주십니다. 우리가 특정한 형식을 갖추었다면, 우리는 하루 종일 하느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지냅니다.

그리스도, 마리아, 교회는 생명을 채우는 세 가지 사랑입니다. 성 요셉과 수호 천사와 함께 여러분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에 대한 사랑을 외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형제들에게 명상과 고요함을 가르치십시오. 온 세상이 침몰해도, 모든 것을 잃어도, 모든 것이 깨져도 우리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실하다면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며 살기 때문에 겸손한 자의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위한 존재이고 나머지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제가 충을 두 발 맞는다면요?

거룩한 일이지요! 순교는 우리의 길이 아니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오푸스데이 가족을 사랑하시는 표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하시는 표증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평온을 유지합시다! 우리가 같은 사슬의 고리라는 것을 알고 책임감이 부족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각자에게 말해야 합니다.

이 연결고리, 즉 내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끊어지면 하느님과 거룩한 교회, 형제자매들을 배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고리의 힘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금, 은, 백금으로 된 다른 고리가 보석에 세팅되어 있다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열정이 나를 괴롭혀서 고리가 끊어질 것 같을 때, 고리가 깨질 것 같을 때에도 안심하세요!

더 많은 사랑으로, 더 많은 고통으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영웅심은 작은 일에 있기 때문에 평범한 삶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관상적이고 고요해야 한다고 형제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에서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또한 애정이라는 자선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1 요한 4, 8).

형제들을 사랑으로 충고하며 도움을 주고 사랑도 실천하세요. 여러분에게는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있습니다. 형제적 충고를 할 수 있는지 디렉터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아마도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미 말했기에, 또한 충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형제적 충고를 안 해도 된다고 답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네, 하세요'라고 대답하면 즉시 얼굴을 맞대고 형제애를 가지고 충고합니다. 험담은 좋지 않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험담을 모두 피해야 합니다. 험담은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행동입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경고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친구를 잃는다.”

오푸스데이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여기서 진실은 애정으로 우리에게 직접 일대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끼며 등을 잘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험담도 용납하지 않으며, 특히 디렉터에 대한 험담이라면 더더욱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녀 여러분, 모든 영혼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오푸스데이는 그 누구도 누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그 어떤 것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의지하여 잘못을 펴뜨릴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우정을 통해 그들이 실수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애정과 기쁨으로 대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필리피 4, 4).

저는 이 건물들을 기쁨을 권하는 성경 말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시편 100, 2).

삶 속에서의 봉사가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못해 주님을 섬길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느님의 은혜로 제거될 불행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려면 우리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법을 모르는 선한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마도 그는 매력적인 사람이고 매우 거룩하지만 순종할 때가 되면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듣고 싶지 않은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듣는 동안에는 어떻게 하면 다르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불순종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자녀들이여, 반대 가능성이 있다면 그 반대 가능성을 말하세요. 명확하게 말한 다음, 여러분의 조언과 반대되는 해결책을 따를 준비를 하고 순종하세요.

객관성을 유지하세요. 객관적이지 않다면 어떻게 보고할 수 있을까요? 30 번, 50 번, 100 번의 허위 보고를 받은 장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그는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리스도님은 패배하시지 않지만, 우리 사명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고 원하는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많은 것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반듯하게 하고 싶은 소망을 이루십시오. 혹시 그런 소망이 없다면 그런 소망을 갖기를 소망한다고 간절히 청하십시오.

봉헌, 형성, 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소망을 지금, 나중 그리고 항상 청하십시오.

하느님 자녀들의 기도. (1955 년 4 월 4 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루카 18, 1).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기도는 모든 초자연적인 일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님을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위대한 날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거룩한 복음에서는 그분에 대해 무엇을 말해 주나요?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40 일동안 밤낮으로 사막으로 물러나셔서 기도하십니다. 복음사가 성 루카는 예수님께서 첫 열두 제자를 선택하실 때, 밤새도록 하느님께 기도하셨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린 나자로의 무덤 앞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께, 제 청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의 친밀함, 겟세마니의 고뇌, 십자가의 고독 속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분께서는 두 팔을 뻗어 아버지께 말씀하십니다.

이제 축복받으신 어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남기셨습니까? 대천사가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의 뜻을 그분께 전하러 갔을 때, 성모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본보기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많은 감실 또는 다른 곳에서도 글귀로 남겼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사도행전 2, 42).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모든 성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고, 기도의 영혼이 되지 않고 제단에 도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 처럼, 위선자들의 기도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헌신한 후 아버지의 뜻을 행합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외침: 주님! 주님! 주님!,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과 함께합니다. 이 외침은 수천 가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이며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이 피정 동안, 묵상을 인도하는 형제 사제들이 여러분께 말하는 것을 천천히 생각하고, 여러분의 지난 삶을 진지하고 엄숙하게 성찰하고, 기도 안에서 영원한 사랑과 사랑의 대화를 위한 확고한 결심으로 나아간다면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즉 위로를 주시고 여러분은 사도직의 시간 내내 응답받는 영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영적 지도를 받기 시작했을 때, 처음 배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잘 실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후 형제 자매들이 주는 많은 훌륭한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실천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일 한지 많은 적든 몇 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는 다시 한번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하루의 규범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깨닫지 못한 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부터 아침까지 사랑의 행위, 속죄의 행위, 감사의 행위, 여러분의 마음과 입으로, 영혼에 불을 지르는 작은 속죄 등 모든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기도, 사랑의 대화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심장이 뛰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자발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마음의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연습입니다.

모든 것이 쉽게 다가올 때: “저의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순간이 올 때: “주님,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느님께서 어떻게 거절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쁜 일과 불쾌한 일, 위로를 받을 때나 사랑하는 생명을 잃은 슬픔에 직면할 때에도....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즉시 하느님 아버지와 대화하며 영혼의 한 가운데에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미워하는 분명하고 습관적이며 현실적인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스스로 죄를 미워하는 마음 깊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관하시니,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형제나 친구, 아버지에게 말하듯 신뢰로 가득 찬 마음으로 그분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위대하시고 선하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제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의 거칠고 투박한 모습마저도 사랑해 주시니, 저의 부족함도, 저의 잘못도, 저의 보잘것없는 봉헌도 받아 주시니 저는 기쁩니다. 하느님께서 가까이 계시니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반석과 요새이신 당신과 함께 굳건하고 안전합니다.

마치 제 귀에 속삭이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편으로는 매우 잘 알려진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영혼이 되어야 한다고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설령 이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거나, 큰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행복으로 향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고통 받고 모함을 당할 때에도 행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란을 피웁니다. 어쩌면 여러분을 하찮게 여겨 여러분을 경멸하는 것이 유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 여러분, 그것은 많은 노력과 대가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을 세상의 모든 오물과 불쌍한 벌레처럼 말해서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수모를 받는 자는 경당에서. 하느님! 하느님께서 저의 명예가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왜 제가 그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때까지 하느님의 자녀는 참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가 이 벌거벗음, 이 사랑의 자기 희생에 도달할 때까지는 보속과 참회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모든 것이 여름 소나기가 내린 후 햇빛으로 다시금 건조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이 물은 영혼에 들어가서, 신성한 연못을 형성해야 합니다. 지금 이순간 감실 앞에서 기도하는 저를, 아버지를,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하느님과 대화를 이어간다면 여러분에게는 비옥한 흔적이 남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각자에게 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여러분은 동시에 더 친밀하고 개인적인 다른 생각을 이끌어 낸다면, 한편으로는 온전히 하느님의 자녀처럼 행동하지 못하여 수치심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신성한 소명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에 감사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하늘의 은총이 결코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느님은 영원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부르심의 선물을 주셨고, 그 말씀이 제 귀에 꿀처럼 달콤하게 울려 퍼지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이사야 43, 1).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면, 오푸스데이에서 그분의 아들로서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모든 도움을 줍니다.

자녀들이여, 여러분이 가진 이 충성심으로 여러분은 매일 나아지려고 노력할 것이고, 오푸스데이의 살아있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믿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푸스데이 정신인 관상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설명을 듣고 진정하게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간청하십시오! 주님, 이 진리를 제 머릿속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함께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이렇게 하면 많은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느님께 나아가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과 안 좋은 일들이 어떻게 즉시 사라지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냐고 물어보시는 예수님께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즉시 빛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스스로 어려움을 만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남다른 용기와 특별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굴욕감과 불쾌감을 느끼는 여러분... 즉시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그리고 바로잡으세요. 바로잡기에 너무 늦지 않았으니 지금 즉시 바로잡으세요. 그러면 땅에 떨어진 새처럼 날개에 진흙이 마르는 것을 여전히 느끼면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참회와 형제들의 삶을 더 즐겁게 만들기 위해 자신을 단련하려는 열망으로 그 진흙은 떨어지고 여러분의 날개는 천사의 날개처럼 깨끗하고 빛나게 되어 하늘로 날아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구체적인 결심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초자연적인 감각으로 살면서 형제적 대화와 고해성사를 통해, 여러분이 하느님과 대면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야 합니다. 영적 지도에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 하느님의 현존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관상의 영적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영혼의 자녀들이여, 저는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사랑과 초자연적 모험의 삶을 따라 여러분을 멋진 길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희생과 고통과 절제와 헌신과 겸손과 자기 망각이 있는 행복의 삶입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루카 9, 23).

우리는 모두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말도 들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요한 15, 16).

하느님의 부르심에는 매우 구체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느님과 더 깊이 가까워지면 이 땅의 모든 교차로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고, 누룩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느님 안에서, 깨달음을 받고, 맛을 내고, 불어나는 누룩이 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관상하는 영혼, 끊임없는 기도의 영혼이 아니라면 빛은 어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느님과 더 깊이 가까워지지 않는다면 소금은 맛을 잃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관상하는 영혼이 아니라면 효모는 썩어서 전체 덩어리를 발효시키는 좋은 역할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생활규범의 기도문을 소리 내어 기도하십시오. 그런 다음 가장 큰 헌신을 드리는 나만의 개인적인 목소리로 하느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의무와 기쁨이 있는 것에서 멈추지 마세요. 지속적인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모든 자신감과 성실함으로 이어가세요.

자녀들이여, 제가 여러분에게 해야 할 말은 이미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로지 여러분이 진정으로 헌신하고 사랑하며 하느님과 끊임없이 만나는 영혼이 되기로 결심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충실함을 확신합니다.

성경 세 구절을 인용, 마무리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루카 18, 1).

“예수님께서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루카 6, 12 절).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사도행전 2, 42).

진흙의 온순함으로. (1955 년 11 월 3 일)

사도 바오로가 코린토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린다는 것을 모릅니까?” (코린토 5, 6).

보이지요? 소량의 이스트를 넣으면 반죽 전체가 발효됩니다.

영혼의 자녀들이여! 우리는 모든 영혼에 관심이 있고 오푸스데이는 거대한 군중 속에서 누룩입니다. 주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여러분은 누룩이고 효모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의 도움과 여러분의 보답으로 온 세상에 풍미와 영양을 주는 누룩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빵은 모든 사람에게 영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육을 받기로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이 훈련은 여러분 각자의 개성을 향상시킬 것이며, 여러분은 각자의 고유한 특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공통분모인, 즉 모두에게 동일한 초자연적 가족의 피를 물려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흙을 도공의 손에 맡기듯 디렉터들 손에 기꺼이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에게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고, 없애고, 자르고 광내도록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지금까지 그렇지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바로잡을 때이며, 진흙 덩어리가 장인의 손가락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순함으로 주님께 자신을 버리겠다고 주님께 말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열두 제자를 이끄셨듯이 감실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 여러분은 기도하고 사랑의 위대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결심을 준비합니다. 인생에는 그 구체적인 결심이 도움이 되는 엄중한 순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저를 대하신 목적은 무엇이이었을까요? 어머니는 저를 너무 사랑하여 결심을 할 필요가 없으셨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결심을 하라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은총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의 도움으로, 이 위대한 그물 안에서, 오푸스데이의 위대한 배 안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저의 모든 내면의 삶과 일에서 초자연적인 가족의 깨끗한 피가 진정으로 흐르도록 하느님께 의탁합니다.

병원 수술실에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지요? 세심한 주의, 무균 처리, 의사의 놀라운 청결함. 그 밖에도 제가 모르는 세부 사항만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디렉터들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해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방해가 되는 여러분의 옷을 벗길 것입니다. 그런 다음 소독 후, 다시 돌려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메스를 가져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은 예수님께 말씀 드려야 합니다. “용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처럼 너희도 내 손에 있다.” (예레미야서 18, 6).

그것이 제가 여러분의 손에 있고 싶은 방식입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자르고, 수술하고, 치유하고, 필요할 때 다시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정성과 연약한 선의를 다했습니다.

자녀 여러분, 이제 성서에 나오는 두 본문, 즉 성 루카 복음과 성 요한 복음으로 계속합시다. 주님께서는 배와 그물 사이에서 첫 제자들을 부르셨고, 종종 영혼을 낚는 일을 낚시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물이 끊어졌던 기적의 낚시를 기억하시나요? 때때로 사도직을 수행할 때에도 그물이 끊어지고, 풍성하지만 어획량이 많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영혼에게 열려 있는 이 사도적 낚시에, 우리는 바다에 던져지면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잡는 그물에 대해 말하는 성 마태오의 본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그물에는 바다에서 헤엄치는 모든 것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물망에는 바다에서 헤엄치는 모든 것을 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크기와 품질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물고기가 잡힙니다. 아들이여, 물고기를 잡은 것은 여러분이나 제가 아니라 우리의 선한 어머니, 오푸스데이이기 때문에 그물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낚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요한 21 장에 나오는 낚시에 대해 여러분이 생각해 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해변으로 가서 예수님 발 앞에 큰 물고기 153 마리로 가득 찬 그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소의 크신 은총으로 여러분을 이 크고 선택된 물고기 그물에 끌어들이셨습니다. 아마도 그분의 어머니의 눈빛이 그분을 감동시켜 축복받은 성모님의 티없이 깨끗한 손으로 이 위대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자녀들이여, 우리는 모두 같은 그물 안에 있고 그 그물은 놀라운 겸손, 헌신, 일, 사랑으로 오푸스데이라는 배 안에 있다는 것을 보십시오.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저를 배에 태우고, 자르고, 부수고, 다듬도록 허락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바치겠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말씀드리세요.

디렉터부터 형제적 충고를 받는다면 각자가 지닌 거만함으로 즉시 반항적인 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스스로의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굴복하고 자신을 내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세요. “저는 교만의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나를 대하면 나를 알고 자신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주는 경건의 표준을 이행하세요. 내면의 삶에 충실하고, 기도의 영혼이 되고, 희생의 영혼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이 생에서 수많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자녀들이여,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개인적인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주님과 단둘이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십시오.

익명 속에서 사람들은 혼자서는 하지 않을 수천 가지 일을 감히 합니다. 비겁한 사람은 군중 한가운데 있을 때 감히 한 줌의 진흙을 집어 던집니다. 여러분이 하느님과 함께 마음의 고독 속에서 아버지 하느님을 향하여 행복한다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용감하게, 대담하게, 개인 기도를 계속하며 자신을 헌신하세요. “주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고, 더 이상 주님의 은혜에 저항하지 않고, 전체 덩어리를 발효시키는 좋은 누룩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그물과 배 사이에서 사도들을 목상하고, 그들의 수고에 동참하고, 그리스도 자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신성한 교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루카 5, 4).

사도들은 이 말로 자신들의 무능함을 인정합니다. 밤새도록 일해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불쌍하고 교만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 일하고 싶을 때,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신의 의지를 행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루카 5, 5)

그리고 가득 찼어요! 다른 배들이 와서 도와 줘야만 그 많은 물고기를 모을 수 있어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능함을 인식한다면... 여러분이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는 대신 자신을 인도하도록 허용한다면, 놀라운 열매로 가득 차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의 풍성한 열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할 수 있는지, 겸손하고 기쁨과 희생의 정신으로 자신을 바치면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형제들, 교회, 이 선하신 어머니 오푸스데이를 위해 선을 행할 것입니다. 아니면 자만심에 이끌려 악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루카 5, 4). 밤에는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아직 어립니다. 따라서 저는 주님께 용서를 구할 일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 옹기장이 손의 진흙이 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오푸스데이가 모성적으로 주는 형성을 저항 없이 온순하게 받으십시오.

“옹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처럼 너희도 내 손에 있다.” (예레미야서 18, 6)

저는 선한 의지를 가진 여러분을 보고 성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찬 여러분을 봅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려면, 우리는 교리의 영혼이 되어야 하며, 필요한 시간을 적절한 장소에서, 머리와 가슴에, 평생 동안, 그리스도와 처음 열두 제자와 함께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기로 결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든 비참함을 기억하고 우리의 교만으로 인한 수많은 실패를 고려하여 어부 그리스도의 신성한 위엄 앞에서 우리는 성 베드로와 똑같이 말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루카 5, 8).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에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반복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루카 5, 10).

여러분은 신성한 사명과 신성한 효능을 가진 신성한 명령에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바다에는 고난의 물결 속에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이제 내가 많은 어부들을 보내어 그들을 잡아 올리겠다.” (예레미야서 16, 16).

나는 모든 영혼의 구원을 위해 신성한 관심을 가지고 낚시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여,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겠어요 아니면 돕겠습니까? 행복을 가지고 장난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앞세워 사람을 낚으러 거룩한 사명을 가진 어부로 모든 바다로 향해하고 싶지 않습니까? 낚시하러 갑시다!

시작했던 것과 같은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반죽을 발효시키는 효모입니다. 스스로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소명의 은총과 그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여러분은 누룩과 효모가 될 것임을 잊지 마세요.

파도 속에서 잘 보호하는 방법을 항상 알고 계신 성모 마리아님의 망토 아래에서 여러분은 전체 덩어리를 발효시키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베드로와 함께 마리아를 통해 누구도 길을 잃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 갑시다!

오늘은 다시 시작하는 날. (1961 년 12 월 3 일)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 이곳에 계시며, 저를 보시고, 제 말쑤를 들으심을 굳게 믿습니다. 허리 굽혀 당신을 흠송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기도 시간에 결실을 맺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티없으신 저의 성모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 성 요셉, 저의 수호천사여, 저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이 준비기도는 믿음의 행위, 하느님 사랑의 행위, 회개의 행위, 희망의 행위, 감사의 행위, 하느님의 어머니에 대한 헌신의 행위입니다. 이미 정신적인 기도인 이 준비 기도를 마친 후에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는 것처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묵상에 들어갑니다.

자녀들이여, 오늘은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새 전례연도는 구세주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한 시간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한다고요? 네, 다시 시작합니다. 저는 매일, 매시간, 참회의 행위를 할 때마다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 당신께 제 영혼을 들어 올립니다. 저의 하느님 당신께 의지하니 제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제 원수들이 저를 두고 기뻐 날뛰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25, 1-2).

주님을 향한 이 신뢰가 오푸스데이의 힘이 아닐까요? 수년 동안 우리가 오해를 받았을 때 이것이 우리의 기도였습니다.

“제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시편 25, 2).

하지만 오해를 받는 것은 우리 뿐만이 아닙니다. 육체적이든 도덕적이든 모든 사람은 오해로 고통 받습니다. 옳든 아니든 오해를 받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친척, 친구, 이웃, 동료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올바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즉시 말할 것입니다. “주님, 당신께 제 영혼을 들어 올립니다. 저의 하느님 당신께 의지하니 제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제 원수들이 저를 두고 기뻐 날뛰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25, 1-2).

단순히 오해의 문제가 아니라 나쁜 의도를 가지고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는 믿지 않았지만 지금은 믿습니다.

“제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시편 25, 2).

자녀들이여, 주님께서 시편에 있는 힘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이 말씀을 넣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께로 향하는 방법을 몰라서 마음의 평화를 잃고 어려움을 겪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내적 투쟁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투쟁 모두에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느님과 영혼, 교회를 위해 사도직을 수행합시다.

그리고 저에게 말할 것입니다. “아버지, 저의 죄는 어떻게 되나요?” 그럼 제가 대답해 드리지요: “저의 죄는 어떤가요?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다른 말씀도 기억할 것입니다.

“당신은 제 피신처 하느님이시건만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시편 43, 2).

주님, 주님께서서는 나의 비참함보다 나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주님은 나의 힘이시기에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저의 힘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결단력 있고, 자신감 있고, 평온하고, 승리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만들어진 진흙을 잘 알고 우리의 자존심과 관능을 일정부분 알지만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므로 우리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시다! 그러면 평온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새해에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자녀임을 느낄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예언자에게 재 아래에서 구운 빵 한 덩어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길을 가라고 주셨습니다. 그 길은 거룩한 사람의 길, 미지근한 사람의 길,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약한 사람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도 그 길을 가라고 주셨습니다.

“주님, 당신의 길을 제게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제게 가르쳐 주소서.” (시편 25, 4).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오시옵소서.”

교회의 기도인 전례는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전례가 당신의 욕망과 나의 욕망, 당신의 존재 방식과 나의 존재 방식을 알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주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오시옵소서.”

하느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정녕 당신은 자신을 숨기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5, 15). 헛되이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당신의 보호로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를 위협하는 위험에서 벗어나 당신의 은혜로 구원받을 자격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보호자이자 구원자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잘못이 크든 작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나 위대한 용서를 생각하세요. 당신의 죄책감이 엄청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하느님께서 용서할 의지가 있으시니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대림절의 시작은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희망한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님의 어머니, 어머니, 딸, 하느님의 배우자, 우리 어머니에게로 향하는 사랑의 행동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복되신 삼위일체로부터 더 많은 은총, 즉 희망과 사랑과 참회의 은총을 얻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영혼의 꽃을 태울 수 있는 강하고 건조한 바람이 불 때, 우리의 꽃을 태우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찬양하는 법을 배웁니다. 나는 성부 하느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하느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느님을 믿습니다, 나는 복되신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헌신을 배웁니다. 나는 아버지 하느님을 희망하고, 아들 하느님을 희망하고, 성령 하느님을 희망합니다: 나는 복된 삼위일체를 희망합니다. 나는 성부 하느님을 사랑하고, 성자 하느님을 사랑하고, 성령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복되신 삼위일체를 사랑합니다. 이러한 헌신은 항상 말로 표현되지는 않더라도 마음의 행동으로 번역되는 초자연적인 행동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성 바오로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이미 되었습니다.” (로마 13, 11).

일할 시간입니다! 안으로는 우리 영혼의 교화를 위해, 밖으로는 하느님 나라의 교화를 위해 일할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참회가 우리의 입술에 다가옵니다. 주님, 저의 나쁜 삶과 미지근한 삶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저의 나쁜 일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고 따라서 당신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당신의 용서를 구합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경멸하는 눈빛은 엄청난 고통을

유발합니다. 낯선 사람부터라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이미 되었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조금은 나태하고 편안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사랑에 따르지 않으면서도 쉽게 변명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로마 13, 12).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사도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로마 13, 13).

우리는 하느님의 빛으로, 하느님의 소금으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당연히 내면의 삶을 통해 빛을 발하고, 우리를 둘러싼 부패를 피하며, 평온과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눈물 속에서 우리는 기쁨과 평화를 얻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한 소금과 불, 빛이 됩시다. 사랑과 참회의 행동을 실천합시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는 도구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느님,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큰 믿음과 소명의 은총과 인내의 은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미사에서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주님께서도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그 열매를 내어 주리라.” (시편 85, 13).

하느님의 축복은 모든 선한 열매의 원천이며, 우리 삶에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님께서도 복을 베푸시어”.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드리지 않으면 실제로 그분에게서 그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봉헌하는 방법을 몰라서 여물지 않고 설익은 열매를 바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물, 비, 태양, 땅을 주시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심고, 가지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랑으로 열매를 지키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지 않도록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결심한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어머니께 의지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주님, 당신임을 알려 주십시오! (1962 년 4 월 1 일)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요한 6, 1-3).

자녀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님을 따랐는지, 왜 그분과 친숙하게 지내며 그분과 함께하며 왕래를 지속적으로 구하는 기쁜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복음에 언급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치유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왜 그분을 따르는 걸까요? 우리 각자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진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았다면, 주님 앞에서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비전과 함께 영원한 행복과 충만한 사랑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스스로 묵상하십시오. 왜 오푸스데이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까?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님의 매력을 느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답했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애정으로 여러분을 끌어당겨서 그분과 친밀감을 갖도록 그분과 매우 가까워지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님과 친밀감을 잃지 않고 형제들도 잃지 않도록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에 대해 또는 하느님의 영광에 대해? 자신에 대해 또는 타인에 대해? 자신, 자신의 물건, 사소한 것, 불행, 교만의 세부 사항, 관능적인 것에 대해? 습관적으로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것에 대해 묵상한 다음,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의지와 지성에 따라 행동하게 하세요.

자녀들이여,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께서는 그분의 기적을 볼 수 없던 우리의 눈에 시력을 주셨습니다. 초자연적인 감각으로 움직일 수 없었던 우리의 팔다리에 힘을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생명에 대해 죽었던 우리를 나자로처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짖게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들과 모두 그와 함께 기뻐하고 그를 두고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 때문에 애도하던 이들과 모두 그와 함께 크게 기뻐하여라.” (이사야서 66, 10).

첫 번째는 우리의 소명에 대한 과분한 보상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보석으로 날마다 더욱 소중히 간직할 것을 그분께 약속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보석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특별히 이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형제들, 그리고 저와 자녀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더러움 속에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1 테살로니카 4, 7).

복음서에서 사도들과 제자들, 군중을 반복해서 구분하는 방식은 흥미롭습니다. 사도들 내에서도 주님이 가장 아끼는 세 제자와 나머지 제자를 구분합니다. 오후스데이에서도 이것은 복음주의적 뿌리가 깊습니다. 우리는 군중을 위해 일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오후스데이의 정신에 더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는 친구와

동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들처럼 높은 산에 올려놓으셨지만 군중이 볼 수 있는 곳에 두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책임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요한 6, 5).

저 군중을 보세요. 주님의 눈과 마음은 백성, 모든 사람에게 있으며 아무도 배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비타협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리에 관해 비타협적일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결코 비타협적일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우리의 소명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배로 물러나거나 산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 중 한 사람으로서 살고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요한 6, 6).

저는 하느님의 사업이 역사를 통틀어서 주님께서 여러 번 영원으로부터 모든 일을 예견하셨지만 우리를 자유롭게 내버려 두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때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유혹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굳건히 서 있으면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빵을 배로 늘리시고, 의지를 바꾸시고, 가장 어두운 마음에 빛을 주시고, 의를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도 특별한 은혜로 의롭게 만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자녀들이여, 정말 자신감이 넘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요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선, 우리가 그리스도님과 함께, 우리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군중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를 원했습니다. 둘째,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실 것이므로 우리는 우리의 결핍 때문에 괴로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처럼 하느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느껴지더라도, 우리 주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희망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찰을 넘어가십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신뢰라는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기초한 신뢰이며, 그것이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우리 어머니의 손을 통해 축복받은 삼위일체에 도달한다면, 더욱더 절실한 기도가 되고 잘 느껴지고 잘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 수많은 신성한 것들을 구하려는 책임감과 수단이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 세기 동안 사도직을 계속하고,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빵을 배증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고려 사항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각자가 저지른 많은 어리석은 일들에 대해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는 바로잡고자 하는 효과적인 열망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결막에는 열매가 익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전능하시고 지혜와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주님에 대한 책임감과 큰 신뢰... 저는 이제 조용히 있을 테니 여러분은 잠시 혼자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그분께서 지으신 땅 위에서 뛰놀며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잠언 8, 31).

자녀 여러분, 저는 우리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가장 사랑스러운 섭리와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도자가 이 위대한 기적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원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숲 속의 모든 동물이며 수천 산들의 짐승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산의 새들을 모두 안다. 들에서 움직이는 생물들도 내게 속한 것들이다.” (시편 50, 10-12).

하지만 아니요, 인간의 협조를 구하는 것을 선호하십니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한 6, 8).

예수님께서 한 소년과 빵 몇 조각과 생선 몇 마리가 필요하셨듯이 여러분과 저를 필요로 하십니다. 비록 그분께서는 하느님이시지만요! 이것이 우리의 관대한 응답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중 누구도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를 필요로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잘것없는 재능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흥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물고기 두 마리와 빵과 모든 것을 드립니다.

우리 각자는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 감각으로 무엇을 했는지, 내 힘으로 무엇을 했는지, 기억력으로 무엇을 했는지, 지능으로 무엇을 했는지, 의지로 무엇을 했는지 말입니다. 이 문장을 명상하는 것만으로도 몇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되지 않았고 아마도 여전히 잘되지 않고 있는 일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바로잡고, 정화하고, 모욕하지 않고, 주님을 더 많이 대하고, 자연스럽게 경건을 높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 영혼과 모든 사람의 영혼에 은총의 효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최근의 삶을 잠시 멈추고 살펴보면, 제가 여러분과 저의 이름으로 큰 소리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들을 쉽게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요한 6, 10).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먹이고 싶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이백 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요한 6, 7).

그들은 돈이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았고, 그 군중을 먹으려면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오천 명쯤 되었다.” (요한 6, 10).

오천 명!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부터 시작하여 모두 순종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싶어 합니다. 하느님께 헌신하는 삶에서도 디렉터가 이것 저것을 지시할 수 있는지, 여기 저기에 명령할 수 있는지... 오후스데이에서 우리는 정치적, 직업적 사안에서 개인의 자유를 크게 존중하면서 하느님을 불쾌하게 하지 않는 한 모든 것이 명령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순종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후스데이에서 그분은 여러 번 기적을 행하십니다! 어떤 기적은 평범한 섭리로 행하십니다. 다른 기적들은 특별한 섭리로 행하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준비되어 계십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께 많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주님께 기적을 일으키도록 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 그분께서 자신을 보여 주실 때입니다. 그때 그분께서는 행동하시며 행동하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요한 6, 11).

예수님께서서는 관대하게 행동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두 개, 세 개? 예수님은 네 개를 주시고, 여섯 개를 주시고, 백 개를 주십니다. 왜 일까요?

그리스도님은 신성한 지혜로 사물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보다 더 멀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논리로 어떤 일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 저는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먼저 하실 것이고, 나보다 더 많이 하실 것이고, 나보다 더 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논리를 넘어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분은 일을 더 빨리, 더 관대하게, 더 잘 행하십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 빵 다섯 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열두 광주리가 가득 찼다.” (요한 6, 12).

왜 남은 빵을 모으나요? 남은 열두 개의 큰 빵 바구니로 우리의 신앙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인류와 교회를 향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양육 받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을 구속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지금 여기에 바구니가 남게 하소서! 넉넉하게 하소서! 그것이 당신임을 알게 하소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요한 6, 14).

그들은 그를 납치하여 왕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를 우리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그를 다시 왕으로 모셨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하느님이십니다! 기적이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저 사람들이 빵 한 조각에 그렇게 열광하고 숨어야 할 정도로 주님을 찬양했다면, 그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종적인 법적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미사를 거행하고,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용서를 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결심을 했습니다. 주님, 성막 앞에 등불 두 개를

놓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관대한 왕에게 어떻게 인색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즉시 등잔 두 개를 성막 앞에 놓을 준비를 했습니다. 적은 수이지만 마치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이 자신을 숨기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살고, 당신을 보고, 당신을 만지고, 당신을 느끼도록 간구합니다. 우리는 항상 배 안과 산 정상에서 자신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득 찬 채 군중을 마주보며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찾습니다.” (1 코린도 10, 33).

10 월 2 일, 오푸스데이 창립일. (1962 년 10 월 2 일)

오푸스데이에 대한 저의 성소의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몇 마디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영혼의 자녀들이여,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기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날에 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 큰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은 거짓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자격이 없다는 확신이 선명해서입니다. 그 순간 이전에는 제가 사람들 속에서 오푸스데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는 겸손이 아닙니다. 저의 성격이 반대 성향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어렵습니다.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해서요! 어렸을 때는 사람들 앞에 나서거나 새 옷을 입는 것을 매우 꺼려했었다고 다른 기회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지팡이를 들고 바닥을 살살 두드릴 때까지 침대 밑에 숨곤 했었지요. 본질적으로 저는 형식적인 것과 유별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푸스데이의 총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면 그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묵상의 첫 번째 지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주님, 당신은 제가 열 다섯 살이나 열 여섯 살 즈음에 제 영혼에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기 시작했습니다. 열여섯 살이나 열일곱 살 때, 저는 이미 당신의 사랑의 첫 번째 충동을 느끼면서 당신이 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든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위로와 비접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영적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1928 년 10 월 2 일 오푸스데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저의 약점과 불행이 크더라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의 쉬운 관계가 식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저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에서도 불쌍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불쌍하고 겸손한 종아!” 저는 언제나 그랬어요. 제 인생의 첫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하느님의 자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께 제가 잘 일하게 해주시라고 간구합니다. 인간과 자연을 자기 인식의 기회로, 기이함이 없는 겸손의 기회로, 단순함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게 해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초자연적인 감각이 더욱 깊어지게 해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오푸스데이가 오래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창시자가 언제 죽었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오푸스데이가 매우 젊다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초자연적이고 인간적인 성숙으로 그것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셨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도 20 세기 후에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저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오직 하느님의 은혜와 26 살의 나이, 그리고 선한 유머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작은 씨앗의 비유가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감사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났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셨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 전투, 평화, 선, 기쁨,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된 군대와 같은 이 놀라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사랑스럽게 머리를 숙이고 하느님께로 향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다양한 상황에 직면한 남성과 여성, 평신도와 사제들의 이 신성한 업은 비록 고통의 장소를 발견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놀랍게 확장됩니다. 우리는 또한 오푸스데이의 모든 여정에서 처음부터 함께 해 오신 하늘 어머니께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웃어야 합니다. 우리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반복하며 미소를 지어야 합니다.

이 기도의 순간을 활용하여 전 세계를 돌아보고 살펴보세요. 우리는 자선을 실천하고, 일을 장려하고,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전 세계 구석구석을 돌아보세요. 특히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지역에서 멈춰야 합니다. 멈춰서 감사하고 기도를 통해 거룩한 수호천사들을 움직이게 하세요.

오늘부터 각 센터의 디렉터실에 성경 말씀이 적힌 수호천사 모형을 비치하라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다니엘서 6, 23).

그것은 통치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모든 자녀들의 마음 속에 오푸스데이 수호천사와 각 센터의 천사, 그리고 각자의 천사에게 실질적이고 실제적이며 지속적인 헌신을 바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관습입니다.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이에 대해 설명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저는 수년 동안 수호천사의 지속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사소한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경험했습니다. 수호천사를 의존하는 것은 우리 업무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헌신은 하느님의 일의 초자연적 사명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모 마리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호 천사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거룩한 수호천사들이여, 전투에서 우리를 지켜 주소서!

아버지, 1928 년 10 월 2 일에 정말 하느님의 사업이 시작됐나요?

네. 맞습니다. 오푸스데이는 1928 년 10 월 2 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마음의 평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마지 못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하고, 움직이고, 일 하고, 기초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영혼들은 물속의 장어처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해의 부족은 잔인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일반적인 교리가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든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진실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스물여섯 살에 하느님의 은혜와 선한 유머,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펜으로 글을 쓰는 것처럼 주님은 탁상용 다리로 글을 쓰시므로 글을 쓰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일이고 더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신학적이고 금욕적인 교리와 모든 법적인 교리가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저는 몇 세기 같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오후스데이 전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를 미쳤다고, 이단자라고 하는 등 많은 말을 했지요.

주님께서는 저는 늘 한 톨도 없도록 하셔서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 이제 부모님이 얼마나 기쁨과 사랑으로 굴욕을 견뎌 내셨는지, 부모님에게 추모하는 것이 옳습니다. 빵을 만들기 위해 밀을 갈아서 밀가루를 만들 듯이 나를 갈아야 했습니다.

주님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멋진 빵 한 덩어리가 이미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좋은 향을 퍼뜨리고 있으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지구 곳곳에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들은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다음으로 묵상의 세 번째 요점입니다. 이 요점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고려 사항을 제안하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같은 목적을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직시해야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이 모든 우주의 경이로움이 탄생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각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도구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매우 개인적인 일이며, 여러분과 하느님 사이의 친밀하고 유일한 과제입니다.

자녀들이여, 유일한 길은 거룩함 뿐임을 확신하고 우리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영혼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이러한 불행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관상하는 영혼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안정기에 대해 반응하기 때문에 결함만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그분의 복되신 어머니를 찾으며 내가 여러분에게 지적한 규범에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느님과 성모 마리아께 나아가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것이 관상하는 영혼의 길이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마디 말하길 원할 거라고 생각했고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속으로 하느님께 말씀드리고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는 것과 여러분에 대해 생각하면서 제가 오후스데이에 빚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 감사를 새롭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첫 번째 생각은 감사였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하시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는지 개인적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자신을 더 좋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가지를 믿고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주님은 우리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느끼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손을 더 단단히 붙잡고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더 잘하고 있는지, 더 못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초자연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동시에 인간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싸우면서 신성한 도움을 요청하려는 욕망이 있는지 묻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자신보다 형제자매들 위해 간청기도를 하는지 묵상해 보세요.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구할 수 없거나 이루고자 하는 열망 없이 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소멸되는 빛이 되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소진되는 소금이 되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귀찮은 존재가 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위대한 비밀이자 사도직의 효과입니다.

어제 오후 저는 지도실에 있었습니다. 문득 문 너머로 이 집 저 집에 흩어져 있는 “알람” 중 하나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에페소 1, 4).

우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며, 거룩함, 거룩함, 거룩함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도적 행위는 많지만 이는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마찬가지로 팡이는 정원사가 땅에서 자신을 키우는 열매를 맺기 위한 도구입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어,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에페소 1, 4).

제가 응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주님의 용서와 그 선택에 보답할 은혜를 구합니다. 필요하다면 평범한 섭리의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를 구합니다. 이 점에서 저는 제 자신을 뛰어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너무 말을 길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 성령 하느님께 대한 감사와 인정으로 제 자신을 채우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어머니의 미소에 대해 하느님의 어머니와 우리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무언가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 저는 주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셨거나 마음속으로 맛보셨던 말씀을 최대한 외치거나 부르곤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루카 12, 49).

그리고 답장.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1 사무엘기 3, 9). 이제 우리 모두, 우리의 하느님께 다시 한번 기도드릴까요?

주님, 우리는 불쌍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당신을 많이 사랑하고,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모든 권능과 우리의 모든 결핍에 의지합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어머니의 품으로, 우리의 어머니이신 하느님의 어머니의 무릎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하느님께서 신실한 피조물을 위해 간직하고 계신 모든 힘, 모든 능력, 모든 담대함, 모든 관대함, 모든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며, 효과적이고 기쁨을 누릴 것이며, 성모 마리아의 도움으로 하느님의 거룩한 뜻인 신성한 인내로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내면 삶의 신호들. (1963 년 2 월 10 일)

사람은 일반적인 것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특정 상황에 맞게 재단합니다. 같은 종류의 원단을 사용하여 어떤 것은 크게 어떤 것은 작게, 어떤 것은 넓게 어떤 것은 좁게 등 각자 매우 다르게 옷을 만듭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같은 약을 복용하지만 각자의 개인적 필요에 따라 다르게 이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특수성이나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삶을 관조하는 데서도 특정한 방식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모두는 각기 직업의 특질적인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 경험적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의사는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을 보고 간 질환이 있다고 본능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단사가 그를 보면 옷을 잘못 입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구두 장인이 그를 본다면 아마도 좋은 신발을 신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직업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영적인 사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특별한 내면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삶의 한 가지 특징은 다른 사람의 거룩함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거룩함만 생각한다면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형제자매와 모든 영혼의 거룩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죽고 나면 제가 오랫동안 지켜온 침묵을 깨고 소리치고 소리쳐도 좋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침묵을 지켜야 했습니다. 제 논문들 중에서도 허뿔만 아니라 기도와 겸손, 일과 행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신중함과 침묵을 향한 많은 권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을 못하고 침묵을 지킬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작성한 전체 서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게는 인간적으로도 초자연적으로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마음먹은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는 위대한 신적, 인간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헌신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견딜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큰 스캔들을 일으킬 수도 있었어요! 그건 아주 쉬웠지요. 하지만 침묵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오해를 받는 편이 더 좋았어요.

습관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심리적 편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만의 독특한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을 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돌봐야 하는 사명을 가진 우리들은 무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신중함과 평온함, 그리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자선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가 우리를 짓누르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체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떨어뜨리지 않고 질질 끌지 않고 고요하고 수직으로 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부와 외부의 모순이 무엇이든 포용하고, 그 모순에는 모두 끝이 있고 모두가 놀라운 보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것이라면 그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그분은 나와 함께 짊어지십니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극복하지 못할 슬픔은 없습니다. 우리의 평화와 기쁨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 저의 힘이시여.” (시편 18, 2) 주님, 주님은 나의 힘이시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제 피신처.” (시편 43:2)

주님께서 도와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크든 작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행한다면 작은 일은 없습니다. 선한 뜻을 품으면 하느님의 강력한 팔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짐은 더 이상 우리를 압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잘 풀리지 않고 대가를 치르는 것이 쉽게 되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 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당황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영적 지혜를 잘 이해하면 명확함과 의무를 다할 힘, 평온함이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는 의무를 다하고 싶을 뿐이며, 연인으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 곁에서 주님의 굳건한 발걸음을 느끼게 하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소서.

자녀들이여, 그 무엇도 평화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면 그 무엇도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죽음을 제외한 모든 것은 준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은 삶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하는 이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1 코린토 9, 24).

오푸스데이 금욕주의에는 스포츠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훌륭한 스포츠맨은 집요하고 훈련에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몇 번이고 점프를 시도합니다. 가장 높은 장애물이 그 앞에 놓여 있고 그것을 뛰어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극복할 때까지 끈질기게 계속합니다.

자녀들이여, 인생은 그렇습니다.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정신이 있다면, 투쟁이 있다면 하느님의 도움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습니다! 우리 여정의 끝, 즉 사랑에 도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 매일 매일이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발을 깨끗하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스포츠 정신으로 고통을 다루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쌍합니다. 그들은 의사의 물리 치료도 받지 않고 다시는 점프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찢어 없어질 화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찢지 않는 화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1 코린토 9, 25)

우리는 나약함이 허용하는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전히 인간적인 이유로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이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존심 때문이거나 눈에 띄기 위해 일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경기자는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1 코린도 9, 25).

오푸스데이와 형제들이 있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책임감으로 반응을 합니까?

발목을 깨끗하고 손목이 탈골된 사람들에게 저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등을 돌릴 권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스럽고 자신 있게 여러분의 어깨에 지워 주신 그 짐을 포기할 권리는 없습니다. 형제자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그 길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기꺼이 어깨에 메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이시나요? 우리가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우리 자신의 관점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이시나요?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각자의 개인적인 상황에 맞게 적용하세요.

“나는 내 몸을 단련하여 복종시킵니다.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1 코린도 9, 27). 여러분과 제가 사도와 함께 이 말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녀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작은 고행에 충실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수동적인 고행을 받아야 합니다. 성 바오로의 말처럼 우리는 책망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품격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군분투하는 사람, 시작하고 또 시작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또 붙잡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배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 즉 모든 영혼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발자취. (1964 년 2 월 14 일)

제가 큰 소리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도 기도를 따라하고 우리 모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제 삶의 근원을 찾고자 해서입니다. 제가 특별할 것 없이 평범하고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 주 하느님께서 준비해 주셨는지 말합니다.

저는 스페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리스도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모범적으로 신앙을 실천하며 살아가셨고,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많은 자유를 허락하시는 동시에 저를 세심하게 지켜 보셨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그리스도교의 교육을 주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세 살 때부터 수녀들이 운영하는 학교에, 일곱 살부터는 사제들이 운영하는 학교에 다녔는데 학교보다는 집에서 더 많이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하고 일반적이었으며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저는 사제가 되겠다는 생각도, 하느님께 헌신하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고민해 보지도 않았습시다. 하지만 주님은 저의 결점, 어린 시절의 실수, 청소년 시절의 실수를 눈감아 주시고 하나하나 은총을 베푸시며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인도하신 이 길은 제게 화려한 것, 평범하지 않은 것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게 했고, 이렇게 해서 단순함, 주의 끌지 않기, 과시하지 않기, 숨기지 않기와 같은 우리 정신의 특징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일화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새 정장을 입었을 때 저는 침대 밑에 숨어 거리로 나가기를 고집스럽게 거부하곤 했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아버지가 사용하던 지팡이를 들고 바닥을 살살 두드렸고 그제야 저는 밖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지팡이가 무서워서 나간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매를 맞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제 뺨을 한 번 때린 게 전부였는데, 그다지 힘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자신들의 뜻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돈은 매우 부족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과 아버지께서는 부모님보다 더 애정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제가 굴욕을 겪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더 이상 어리지만은 않은 아이가 겪을 수 있는 굴욕이었지요. 그때 저는 열두 살이나 열세 살이었습니다.

저는 재앙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항상 주변 사람들을 매우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저라는 못을 -주님, 용서하십시오!- 제대로 박기 위해 못에 한번, 주변에는 백 번을 치셨습니다. 제 아버지가 마치 읊처럼 보였습니다. 부모님은 연이어 세 딸을 차례로 잃고 재산도 잃게 되었습니다. 저도 또래 친구들의 조롱을 느꼈지요. 아이들은 심장 혹은 머리가 없거나, 아니면 머리와 심장이 모두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이제야 알게 되었지만- 의사들이 말하기를 큰 시련과 걱정이 있을 때 걸린다는 전형적인 병을 앓고도 영웅적이셨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자녀와 어머니가 남아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강인해졌으며, 우리를 품위있게 이끌기 위해 굴욕도 마다하지 않으셨지요. 만약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자 신사가 아니었다면, 스페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시대에 매우 성공적인 위치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에게 위령 기도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할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고통을 걸로 드러내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제게 커다란 깨우침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땅이 꺼질 듯하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마치 두 철판 사이에 끼어 짓눌릴 것 같은 순간들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간혹 이성을 잃었을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교훈과 주님의 은총 덕분에 몇 번 그리 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주님의 첫 번째 현현이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에게 무언가 원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이 이미 삶에 지쳐 있을 때 제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제가 열다섯이나 열여섯 살 때 어머니는 저를 부르시더니 '너에게

또 다른 형제가 생길 거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하느님의 은총을 제 손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현현을 목격한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쳐서 돌아가셨습니다. 입가에는 미소를 띄고 남다른 따스함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저는 모범적인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효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당시 상황에 반항했으며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에 대해 하느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다루기 힘든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느님은 제가 새로운 언약궤의 초석이 되어 많은 나라, 많은 종족,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언약의 궤에 모여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느님 사랑의 많은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주님께서는 무죄해 보이는 일로 저도 모르게 저를 준비시키셨고 제 영혼의 하느님에 대한 없어지지 않는 갈증을 일깨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에서 구세주의 상처 입은 손 그림을 발견하고 감동을 한 소화 데레사의 매우 인간적이고 신성한 사랑을 저는 잘 이해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 저를 감동하게 하여, 매일 성체성사, 정화, 고해성사... 그리고 참회로 이끌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버지에게 사제가 되고 싶다고 말씀 드렸어요. 그때가 아버지가 우시는 모습을 본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계획이 있었지만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아들아, 잘 생각해 봐라. 사제는 성인이 되어야 한다. 집도 없고, 가정도 없고, 사랑도 없는 건 정말 힘든 일이야. 조금 더 생각해 봐라, 하지만 반대하지는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로그로뇨에 있는 수도원장인 친구 사제에게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은 하느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지 사제가 되기 위한 사제는 되고 싶지 않았어요. 사제직을 존경했지만, 그런 방식의 사제직은 저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힘들고 끔찍한 일이 많았지만 그 일에 대해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고통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들은 우리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일에 사용할 대들보를 준비하기 위해 나무에 내리친 도끼질과 같았습니다. 저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주님, 보게 하소서. 주님,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되뇌었습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몰랐지만 계속 나아갔습니다. 하느님의 선하심에 합당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받게 될 것들을 기다렸습니다. 은총들은 연이어 주어졌으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던 저는 ‘일하도록 하는 은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은총들은 제 의지를 완전히 지배하여, 행동하는 데 거의 노력이 필요 없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별한 일 없이, 적당한 강도로만 일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사라고사에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주님, 보게 하소서. 주님,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은 주님께서 저게 큰 인내심을 가져 주시고, 초자연적인 관점에서 제 주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주심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928 년 10 월 2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피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오푸스테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천사들의 성모 마리아 성당 종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울려 퍼지며 성모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그분께 즐거움이었고 언제나 그분 앞에서 뛰놀았다.” (잠언 8, 30). 주님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리지 않더라도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처럼 우리와 함께 놀아 주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저의 저항과 그 열정적이면서도 미약한 사역을 보시고, 그분이 제게 요구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 이미 세상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비겁함이었고, 나태함에서 비롯된 비겁함이었습니다. 제가 창립자가 되는 데 열망이 없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때의 저는 지금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주도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섭리의 통로를 벗어난 하느님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필요할 때 하느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셨는데, 다르게 말한다면 거짓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하느님의 개입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으면 즉시 “나다”라고 말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느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 긴장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주도권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긴 했지만 침착하게 고해신부에게 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일을 이루고자 하는 주체가 그분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외부적인 표징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푸스데이에서는 여성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2월 14일에, 그것이 제 성향과 의지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든 살 드신 할머니 집에 고해성사를 주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집의 경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체성사 후 미사 중에 여성부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고해 신부에게 갔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과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개입은 저를 감동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했으며, 성경 네 과목, 아마도 여섯 과목에서 최고의 성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의 말씀을 완전히 잊게 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이건 악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번은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성 엘리자베스 수녀원에서 어머니 집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들었던 그대로를 발견했습니다.

스페인 내전 당시 저는 전선 반대편으로 건너가야 할지 말지 고민이 많았어요. 공산주의자들의 박해를 피해 도망치던 중, 저는 또 다른 외적 증거인 나무 장미를 받았습니다. 하느님은 저를 눈에 보이는 증거를 받아야만 하는 불행한 아이처럼 대하고 계셨지만, 그 방식은 일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님, 아버지, 성령께서는 아주 평범한 방법으로 하느님의 어머니, 하느님의 딸, 하느님의 신부의 친절한 미소와 함께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손으로 잡고 싶어 하신 한 마리의 당나귀,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신 앞에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당신과 함께 있어 당신께서 제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시편 73, 22-23)

최근 한 신부는 자신은 쓰레기통이 아니며 육체는 부활해야 한다고 말하며 길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성 바오로가 쓴 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필리피 3, 8).

그리고 다른 곳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1 코린토 4, 13).

성경은 우리가 흙으로, 땅의 먼지로 만들어졌다고 여러 번 가르칩니다. 주님은 제게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양동이조차도 아니고 양동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느끼는 제 자신입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마무리합시다. 1943 년 2 월 14 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우리 사제들을 위한 적절한 법적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사이 박해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표현하는 더 좋은 단어가 사전에는 없습니다. 이 박해 속에서 저는 쓰레기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침을 뱉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불쌍한 저에게 침을 뱉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권리가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행사한 사람은 스스로를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은 모두 성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제직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준 세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사 중에 주님은 또 다른 확실한 증거와 함께 해결책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에 보여주신 것은 오푸스데이의 인장과 성 십자가 사제회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른 채, 저는 즉시 알바로 신부님에게만 말하고 인장을 그렸습니다.

제 자녀들이여,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모든 것을 잘 이루어 주신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저는 합당한 도구가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공로와 전구를 통해 우리가 모두 선하고 충실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길. (1967 년 11 월 26 일)

내 영혼의 자녀들이여,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성 바오로의 외침을 들을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 테살로니카 4, 3).

저는 40 년 동안 같은 말을 설교해 왔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말하고 여러분과 모든 사람에게 반복합니다. 하느님의 뜻은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영혼을 평안하게 하고, 땅을 감동시키고,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통해 우리 주 하느님을 구하기 위해 저는 개인적인 거룩함 외에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냄비가 하나뿐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며 다가와 나에게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들어 주겠다.” (예레미야서 29, 12).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 그분께 말씀드리며 그분을 부릅니다. 그러므로 사도와 함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필리피 3, 20). 우리의 대화는 하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느님의 자비와 주님과 끊임없는 거래에서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로부터 배운 구송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어머니이신 하느님의 어머니께 드리는 달콤하고 열렬한 기도입니다.

저 역시 아침과 저녁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 기도를 반복합니다.

오, 나의 성모님, 오, 나의 어머니, 제 자신을 전적으로 바칩니다. 그리고 제 효심의 증거로 오늘 제 눈과 귀와 혀와 마음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묵상과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할 때 서로에게 무엇을 말하고, 서로에게 무엇을 주나요?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몸과 영혼, 한마디로 나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오푸스데이에서 우리가 천국의 것을 사랑하도록 어떻게 가르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먼저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이 서툴러서 혀로 거의 말할 수 없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영혼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포로처럼, 죄수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완벽하게 우리의 일을 하는 동안, 우리의 실수와 한계 속에서 영혼은 탈출을 갈망합니다! 떠납니다! 자석의 힘에 끌린 철처럼 하느님을 향해 날아갑니다.

“내가 너희를 유배 보냈던 이곳으로 너희를 다시 데리고 오겠다.” (예레미야서 29, 14).

기도로 우리는 노예가 되는 것을 멈춥니다. 우리는 사랑의 노래와 함께 하느님과의 연합을 향해 날아가는 자유를 느끼고 자유로워집니다! 그것은 새로운 존재 방식, 신성하고 초자연적이며 놀라운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 세기 스페인 작가들처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티아 2, 20).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지상에 친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수년 동안 여기에서 일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자녀들이여, 저는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래 살아야 하지만 자유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로마 8, 21).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의 몸인 부인의 자녀입니다.” (갈라티아 4, 31).

이 삶을 어떻게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어머니이신 복되신 성모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길은 매우 넓지만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야 하는 길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어머니는 자녀에게 사랑 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모두 엄마보다 아빠라고 말하도록 배워왔습니다. 최근의 경험이 있습니다. 수백 명이 모인 모임에서 저는 축복해 달라고 손을 내민 아이 중 한 명을 품에 안고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는 들어 올려지는 느낌을 받자 “아빠!”라고 외쳤습니다. 분명히 그 아이의 아버지도 저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도 하느님께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가장 거룩한 인성이라는 올바른 길을 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부터 주님의 수난에 관한 많은 책을 드린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상 생활을 위한 완벽한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모든 신비 안에서 거룩한 묵주기도를 묵상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30 년 암흑기, 3 년 공생활, 수치스러운 수난과 영광스러운 부활, 성모님의 기쁨과 고통과 영광이 담긴 주님의 놀라운 생애가 우리의 머리와 상상 속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때에도 주님께서서는 고통, 외로움, 모순, 비방, 명예훼손, 조롱을 때때로 허용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그분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형상과 모양에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그분은 우리를 미쳤다고 부르고 바보라고 생각하게 만드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인성을 경외할 때 우리는 그분의 상처를 하나씩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정화의 순간, 고통스럽고 강렬하며 우리가 숨기려고 애쓰는 달콤하고 쓰라린 눈물의 순간에 우리는 그분의 상처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정화되고, 그분의 구속의 보혈을 기뻐하며 강해집니다. 우리는 폭풍이 몰아칠 때 바위 구멍에 숨는 비둘기처럼 그곳으로 갑니다.

육신이 잃어버린 힘을 되찾고 싶을 때, 또는 더 나쁜 교만이 화를 낼 때, 그리스도의 상처로 감시다! 여러분을 가장 감동시키는 곳으로 가십시오! 모든 인간적 사랑과 신성한 사랑을 주님의 상처에 쏟아 부어 보십시오. 이것은 연합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형제, 같은 어머니의 아들처럼 느끼기 위한 것입니다. 성모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나중에 영혼은 각각의 신성한 인격들을 다뤄야 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발견하는 것과 같이 영혼이 초자연적인 삶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대화하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을 자격도 없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 성령의 활동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은사와 미덕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든 깨닫지 못한 채 연합에 이릅니다.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이토록 그리워합니다.”
(시편 42, 2).

사슴이 샘물을 갈망하듯 우리는 샘을 찾아갔습니다. 목이 마르고 입이 마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수의 샘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하루 종일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도 영혼을 단순화시키는 훈련 덕분에 우리는 영생으로 솟아나는 풍부한 생수의 샘에 왔습니다.

그때부터는 혀가 스스로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지성은 조용해집니다. 말하지 않고 바라보기만 합니다. 그리고 영혼은 항상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시선을 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저는 관상하는 영혼에게는 잠자는 것조차도 기도라는 말을 수년 동안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담은 성 제물의 글을 발견한 것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완전함이 있고 실패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지만, 실패는 또한 우리를 매일 하느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헌신으로 장애물이 있을

때 다시 그 길로 돌아갑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항상 탕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참회와 사랑의 순간,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 모든 것이신 하느님과 그분의 사랑과 융합되는 순간입니다.

자녀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것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영혼의 평범한 것들이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선물을 주셨으니 여러분은 이 길을 따라 형제들을 사랑의 광기로 인도하여 살아가는 방법도,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도 안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평온하고 얼마나 평화를 얻습니까!

금욕주의인가요, 신비주의인가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금욕주의든 신비주의든 그것이 무엇이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묵상하려고 노력하면 주님께서 선물을 거부하지 않으시는 때가 옵니다. 성령께서는 은사를 주십니다.

자녀들이여, 믿음과 믿음의 행함을 가져봅시다. 그 기도는 이미 묵상이며 연합입니다.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더라도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기도와 삶은 우리를 세상의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것들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하느님께 가져올 때, 우리는 세상을 신성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미다스 왕의 신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개인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듭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당신 땅을 어여뻐 여기시어 야곱의 운명을 되돌리셨습니다.” (시편 85, 2).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를 느낍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합니다. 오푸스데이의 길에서 우리는 고백성사와 형제적 대화로 실수를 막아주는 간판이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들이 진실하다면 병어리 악마가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산책에는 매 순간마다 여행자를 안내하는

길에서 볼 수 있는 표지판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에 진실하다면 충실한 사람이 내면의 삶에서 길을 잃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영혼은 아가서의 빛으로 밝혀집니다. “나 일어나 성읍을 돌아다니리라. 거리와 광장마다 돌아다니며 내가 사랑하는 이를 찾으리라. 그이를 찾으려 하였건만 찾아내지 못하였다네.” (아가 3, 2).

저의 영혼의 평화를 구하는 길을 따라 세상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모든 국가와 모든 민족을 통해 달릴 것입니다. 외부의 것들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방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를 하느님께 더 가까이 데려다 주고, 하나가 되게 하는 길이자 디딤돌입니다.

환난과 고난은 항상 크거나 작은 힘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시편에서 우리에게 올바른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가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환난 가운데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며 그를 해방하여 영예롭게 하리라.” (시편 91, 15).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에 비하면 제 십자가는 얼마나 작습니까? 당신의 상처에 비하면 제 상처는 얼마나 얇은 자상입니까? 당신의 거대하고 순수하며 무한한 사랑에 비하면 당신이 내 영혼에 지운 작은 십자가는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가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환난 가운데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며 그를 해방하여 영예롭게 하리라.” (아가 5, 8).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의 귀족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갈망하고 그분의 눈물, 그분의 말씀, 그분의 미소, 그분의 얼굴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의 구절보다 더 좋은 표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이토록 그리워합니다.” (시편 42, 2).

평화.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신격화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에 피신합니다. 하느님의 사랑,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러면 사도적 열정이 불타오르고 날마다 더 커집니다. 선은 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기쁨과 평화를 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열린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구제의 물로 모든 영혼에게 물을 주고, 사랑을 위해 모든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슬픔도 고통도 없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느님의 소원이 기꺼이 성취되는 순간 고통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신경이 곤두서고 시련이 견딜 수 없을 것 같더라도 충실한 자녀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녀 여러분, 저는 특별한 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비범한 것은 평범한 삶입니다. 주님께서 예외를 두지 않으시는 한, 우리 모두는 외부의 신비로운 현상 없이 이 묵상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주님의 배, 즉 오푸스데이에 우리를 단단히 묶어주는 평소의 헌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호천사와의 우정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사제들에게는 성직자 대천사도 있습니다. 사제에게는 그들을 돌보는 특별한 천사가 있다는 의견은 매우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년 전에 나는 모든 사제에게도 사역 대천사가 있다는 것을 읽었고 감동했습니다. 나는 아침 저녁으로 대천사에게 화살 기도를 합니다.

때때로 저는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교회의 아버지가 썼다는 이유만으로 이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느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며 성역 대천사가 없더라도 주님께 기도드리면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저의 기도와 헌신이 기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늘과 땅에서 많은 우정이 필요합니다. 천사들과 대천사들과 성인들, 우리의 수호 성인들과 중보자들에게 헌신하세요! 이 우정은 매우 인간적이면서도 매우 신성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인간적이고 신성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요한 15, 15). 우리는 이미 천국에 살고 있는 하느님의 친구들, 그리고 종종 주님과 떨어져 있는 이 땅의 피조물들과 우정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의 오푸스데이 탄생하기를 원하셨던 방식입니다. 이것이 오푸스데이의 정신이 짙은 방식입니다. 우리의 보잘것없음과 하느님의 위대함을 생각하며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분께서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그분께서는 지혜이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그분께서는 강하십니다.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이토록 그리워합니다. “당신은 제 피신처 하느님이시건만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시편 43, 2).

때로는 영혼을 경외심으로 가득 채우고 벌집과 꿀의 맛을 남기는 신성한 말씀을 차분히 묵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이사야서 43, 1).

하느님의 것을 빼앗지 맙시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에페소 1, 4).

그분은 우리에게 거룩함과 헌신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면, 그의 말씀을 더 들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 15, 16).

여러분은 이미 열매를 맺고 있으며, 관상하는 영혼으로서 일의 열매는 풍성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 여러분, 초자연적인 믿음을 가지세요!

어제 저는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일본 교리교사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함께 우리는 묵상과 더 많은 사도적 활동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무일도에서 읽은 내용을 보세요.

“하느님이라 일컬어지고 숭배를 받는 모든 것에 대적하는 자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는 그가 감히 하느님 성전에 서서 자기가, 하느님이심을 나타내려 함이라.” (미사).

그들은 내부에서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하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내부에서 하느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콜로새서에서 성 바오로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청하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이 모든 영적 지혜와 깨달음 덕분에 하느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면에서 그분 마음에 들고 온갖 선행으로 열매를 맺으며 하느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기를 빕니다. 또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에서 오는 모든 힘을 받아 강해져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어 내기를 빕니다. 기쁜 마음으로, 성도들이 빛의 나라에서 받는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콜로새 1, 9-13).

우리는 하느님의 어머니와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각자와 형제자매들, 그리고 오푸스데이 전체가 성령의 은사와 관상 생활로 충만한 믿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상태에 계속 머물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의무를 수행합니다. 각자의 직분에 따라 주님께서 맡겨 주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기쁘게 섬깁니다.

거짓 이론으로 영혼을 속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때로는 발견하기 어렵고 때로는 쉽게 가면을 벗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신학자라고 부르지만 신학자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에 대해 말하는 기술 만 가지고 있으며 입으로도, 마음으로도, 삶으로도 그분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 (1967 년 12 월 24 일)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먼저, 하느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효심 가득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 바오로가 코린토 신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신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2 코린토 5, 17).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러운 모든 것, 낡은 모든 것, 고통을 수반하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께 자주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때로는 좋은 소원으로만 남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머니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새로운 은총을 내려 주실 것이며, 우리가 사랑과 하느님 자녀가 되었음을 더욱 마음에 되새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무엇이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무엇이 그분을 불쾌하게 하는 것인지 분별하는 방법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무엇이 피조물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무엇이 악을 위한 것인지 알게 하옵소서.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행복과 영원한 행복, 그리고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상대적인 행복을 빼앗는지를 알게 하옵소서.”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성 바오로는 거룩한 아들에 대해 매우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때가 차자,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속량하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갈라티아 4, 4).

하느님은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 육신의 모양을 취하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로부터 아들의 자격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녀 여러분,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 주신 형제에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보십시오. 모든 것을 필요로 하는 여러분의 어린 형제자매, 작은 피조물, 친척의 자녀들을 보셨나요? 그것이 바로 어린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이렇게 무력하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전능하시고 하느님이신 그분은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무력한 어린아이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운 고독 속에서, 어머니와 성 요셉과 함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따뜻함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우리 마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가십시오! 하지만 진심으로!

성 요한은 첫 장에서 이를 반복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요한 1, 12).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아들이 되는 우리 정신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때 저는 어떤 것도 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오푸스데이의 역사에서 특정 날짜에 하느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느끼기를 원하셨고, 그 신성한 아들의 정신을 오푸스데이의 정신에 통합하기를 원하셨던 정확한 순간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오푸스데이가 교회 역사의 최초로 하느님의 자녀 되었음을 단체로서 실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뜨시어 당신의 이 종이 올리는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이제 저는 밤낮으로 당신 앞에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 6).

우리는 밤낮으로, 심지어 잠자는 동안에도 묵상하는 존재이며, 잠도 기도의 일부라는 말을 여러 번 듣지 않았나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루카 18, 1).

우리는 항상,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면의 삶에서 성공할 때마다,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하느님께로 돌아갈 필요성을 느껴야 합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겸손하게 주님께 돌아가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탕자의 역할을 해 봅시다.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도 있듯이, 우리는 항상 긴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없이, 외적인 몸짓 없이 정신적인 기도로 기도합니다. 어디에서 기도할까요?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마태오 6, 5).

거리와 광장을 걸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푸스데이의 정신입니다. 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며 다가와 나에게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들어 주겠다.” (예레미야 29, 12).

언제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겠다. “들으소서, 주님, 제가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시편 27, 7).

우리의 모범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께 부르짖으십니다. 아버지와 성령과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하나가 되셨던 그분께서 모든 기적 앞에서 어떻게 아버지께 마음을 들어 올리시는지 보았나요? 그리고 첫 제자들을 선택 할 때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루카 6, 12).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두 가지 결심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느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 아기가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영원한 대사제의 몸짓으로 두 팔을 벌려 베들레헬과 십자가에서 고통 받으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분노에 찬 듯 몸부림치시며 움츠리시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채찍질, 가시관 씌우기, 뺨 때리기, 조롱 등 모든 고통을 느끼셨지만 아버지나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는 영원한 대사제의 존엄성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그분께서는 사랑을 위해 고난을 받으시며 자신을 내어 주십니다. 그분을 통해,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나는 내 자신을 하느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되새겨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의 불행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버지께 무엇을 요구할까요? 아빠, 달 주세요! 아이는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합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마태오 7, 7).

하느님께 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부모에게 모든 것을 구했습니다. 주님께 달을 구하면 달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두려움 없이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분께서는 어떤 식으로든 항상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청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마태오 6, 33).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영혼의 의로움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들을 하나로 묶고, 무엇이 그들을 들어 올리고, 무엇이 그들을 형제자매로 만드느지를 먼저 구하면 그분께서는 그 밖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 자신의 말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며, 그분은 자신의 오푸스데이를 위해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꿈이 실현되다. (1968 년 1 월 9 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몇 마디만 하는 이유는 노인인 우리도 감동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선 세월은 지해도 거룩함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젊은이들의 입에 넣어 주십니다.

“제가 노인들보다 현명하니 당신 규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 100).

제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노인들보다 더 지혜롭고, 노인들보다 더 거룩합니다.

성인이 되기 위해 노년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것은 큰 실수가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진지하게, 기쁨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성화한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자신을 성화함으로써 여러분의 일을 성화 시켜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일은 공부입니다.

저는 성스러움으로 명성을 떨치다 돌아가신 발렌시아 출신의 한 노신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몇 살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극히 조금! 하느님을 섬긴 세월만큼 몇 살 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하느님을 섬긴 지, 몇 년 밖에 되지 않지만, 이미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더 더욱 더 많이 온전한 사랑으로 더 오랫동안 그분을 섬기고 싶습니다.

저는 봉사의 연륜도 적고 지해도 적고 거룩함이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적어서 내 말을 들으시고 제단 위에 오실 나의 하느님께 예레미야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내가 아뢰었다. “아, 주 하느님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예레미야서 1, 6).

어렸을 때부터 꿈꾸었던 그 꿈이 실현된 것도 기억합니다. 그 당시 저는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내가 늙으면 어떻게 될까?’ 제가 늙는 나이를 얼마라고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마흔 살!

심지어 어렸을 때 학교 숙제를 받았는데 ‘어느 서른 살 노인의 이야기’라는 제목을 붙인 친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 일부는 제가 주변의 몇몇 자녀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오푸스데이가 기둥에서 기둥으로 퍼져 나가 하나의 큰 가족이 될 것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자녀들아, 이 불쌍한 시신을 묻을 때, 내 이름을 석판에 새기지 말아라.”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새길까요?” “아들딸들을 낳았다.” (창세기 5, 16).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꿈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보이지 않나요?

오늘날의 오푸스데이는 인종, 언어, 국가의 경계가 없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개인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놀랍고 실제적이고 초자연적인 형제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푸스데이는 마른 땅을 개간하여 퍼져 나가는 하느님의 씨앗입니다. 그것은 나의 쓸모 없음과 무능함을 돌파해야 했습니다. 또한 잔인한 반대를 깨뜨려야 했습니다.

하느님의 일은 이렇게 작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고통과 자기 부정을 동반한 부드러운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씨앗이 죽고 나면 줄기가 생기고 멋진 색과 강한 향기로 빛나는 꽃이 피어납니다. 그 열매는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매들입니다. 꿈. 나는 예순 여섯 살이고 꿈이 실현됐습니다. 늙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보이지요? 하느님의 일이 결실을 맺어 전 세계에 꽃과 향기와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 그리고 복되신 성모 마리아의 보호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성모님을 우리의 희망, 상지의 옥좌, 바다의 별, 동방의 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녀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많이 기도해 주세요. 보답으로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보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동정심으로 저를 돕고 지지해줘야 합니다. 제가 하느님 앞에서 강건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는 늙고 점점 저한테 날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엿보는 사랑의 길, 결정적인 부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제가 아들로써 복되신 동정녀를 사랑하는 방법을, 또한 삼위일체이시며 하나이신 주님, 저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묵상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기에 있는 몇 명은 기억하겠지만, 제가 여러분의 첫 형제들과 성 라파엘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저를 위해 수호천사에게 기도해 주세요. “길거리에서 저와 함께 다니지 말고, 인사하지 마세요. 저를 거리에서 만난다면, 수호천사에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전철을 탔는데 거기 여러분이 있다면 옆에 서지 말아주세요. 그냥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는 거룩한 교회와 사제들을 사랑하는 동시에 반 성직자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신은 하느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 여섯 살이 된 저는 후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같은 조언을 드립니다. 수호천사에게 제가 선하고 충실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해 주세요. 제가 때가 되면,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 성령 하느님, 성모 마리아 사랑의 포옹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 요셉, 우리 아버지이자 주님. (1968 년 3 월 19)

오늘은 성 요셉의 축일입니다. 성 요셉은 보편교회와 오푸스데이란 가족 안에 있는 자녀들의 아버지와 주님이십니다.

성 요셉에 대한 신심은 16 세기경 부터 서양에서 부각되기 시작한 비교적 최근의 신심인데 어떻게 오푸스데이에서 이토록 깊이를 가질 수 있었는지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성 요셉에 대한 애정, 경건, 헌신은 우리의 관상 생활의 결과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복되신 성모님을 매우 소중하게 모실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사렛 가족의 수장이었던 성인을 잘 알지 못한다면 주님과 그분의 어머니, 우리의 복되신 어머니를 친밀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자녀 여러분, 교회는 그를 내면의 삶의 후원자로 우리에게 올바르게 조명했습니다. 요셉보다 더 내면의 삶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마리아와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진 피조물은 누구입니까? 완전히 눈에 띄지 않은 요셉보다 더 겸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며칠 전 미사 시간에 열왕기서를 읽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요셉이 살았던 삶과 같은 단순함을 요구하신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예언자는 그에게 단순한 것을 요구합니다.

“요르단 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새살이 돌아 깨끗해질 것입니다.” (2 열왕기 5, 10).

교만한 사람은 “내 땅의 강이 엘리사 땅의 강만큼 좋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다마스쿠스에서 온 것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놀랍고 특별한 것을

기대했는데 아니야! 당신은 더럽혀졌으니 가서 씻으라고 예언자는 말합니다. 한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일곱 번이나. 성찬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평범한 일만 하는 요셉의 단순하고 숨겨진 삶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성 요셉은 완전히 눈에 띄지 않습니다. 신성한 성경은 그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의 일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요셉도 저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 요셉은 우리의 내면 생활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상 걷기를 위한 박차이기 때문에, 오푸스데이에서 하느님의 모든 아들과 딸들, 통치와 거버넌스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선행하기 때문에 성 요셉은 훌륭한 모범입니다. 그는 필요할 때만 개입하며, 폭력 없이 의연하게 개입합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주님 축일 미사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돌아나고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자라리라.” (시편 92, 13).

저는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오푸스데이의 모든 사람은 한 가족의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세상의 많은 영혼을 염려합니다. 저는 성 라파엘 활동에서 저의 어린 딸이나 아들에게 특히 서너 명의 친구를 잘 대해야 한다고 자주 설명합니다. 그 중 두세 명만 활동에 참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몇명의 각 손가락에 서너 명씩 더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처럼 꽃을 피우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번성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주님의 집에 심겨 우리 하느님의 앞뜰에서 돌아나리라.” (시편 92, 14).

저의 모든 자녀들은 요셉처럼 영혼이 주님의 집 안에 있어 안전합니다. 세상의 한가운데서 고민을 안고 살아가면서도요.

교회의 전례가 지혜의 책에 나오는 이 말씀을 거룩한 총대주교에게 적용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모세로서 그에 대한 기억은 축복 속에서 이어진다.” (집회서 45, 1).

본문은 성 요셉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며, 그를 우리의 본보기로 세워 줍니다. 또한 저처럼 불쌍한 사람일지라도 하느님의 선한 자녀인 우리에게 마리아의 신랑인 이 거룩하고 훌륭하고 젊은 성인을 축복해 달라고 초대합니다.

저의 기도실에 노인으로 조각된 성 요셉 상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상상하는 대로 젊게 그렸습니다. 성모님보다 몇 살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젊고 강인하며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고전적으로 젊은 사람은 순결의 미덕을 실천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인으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인들은 그를 총대주교라고 부르지만 저는 그를 이렇게 봅니다: 몸과 마음은 젊고 미덕은 나이 든 사람. 그리고 영혼은 젊습니다.

“임금들 앞에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모세에게 당신 백성을 위한 계명을 주셨고 당신 영광의 일부를 그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집회서 45, 3).

잊지 맙시다. 주님께서는 성 요셉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우리 집의 총대주교로 삼아 그분을 우리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가장 엄숙하고 친밀한 축제가 특별히 마리아의 신랑에게 바쳐지는 것입니다. 이 축일에는 모든 일원이 모여 구세주이신 예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 달라고 간청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위한 중보자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집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신중함, 순결함, 애정, 능력 안에서 안식합니다. 우리 아버지이자 성 요셉이 어찌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사제들이 미사 전에 암송하도록 하는 기도문을 읽으며 종종 감동을 받습니다!

“오 행복한 사람이여, 복된 요셉이여 그에게 하느님을 주셨으니 많은 왕이 보기를 원하여도 보지 못하며, 듣기를 원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서 대했던 사도들과 제자들이 부럽지 않았나요?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은 저처럼 도망친 사람들 중 한 명,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도망친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습니까?

“많은 왕들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하느님을 보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껴안고 입맞추고 옷을 입히고 보호하는 것이 허락된 복된 요셉이여, 행복한 사람이여!”

제가 이것을 숨길 수 없습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 제 비참함을 느낄 때, 저는 아기 예수의 형상을 품에 안고 그분께 입맞춤을 하고 춤을 추곤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품에 안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자신보다 훨씬 작은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그를 품에 안고 쓰다듬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축복받은 요셉,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

당연히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성 요셉, 우리의 구세주이신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으니 우리를 위해 기도하소서!

자녀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희생을 감수하기 전에 교회가 사제들에게 제안하는 기도를 계속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왕의 제사장직을 허락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왕 같은 사제직을 주셨습니다. 특히 하느님께서 오푸스데이로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제적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 요셉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독자를 애정으로 대하고 품에 안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그가 신부를 어떻게 존경하는지, 그녀가 흠결이 없다고 어떻게 믿었는지 보셨습니까? 그가 정직 자체로서 칠흠같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하느님의 영감과 신성한 명료함을 받는지 보셨습니까? 그가 어떻게 순종하는지 보셨습니까!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라.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요셉은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약속한 구세주이시며, 하느님의 백성인 족장들과 왕들이 대대로 기다려온 분이라고 믿습니다.

“깨끗한 마음과 선행으로 당신을 섬기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당신 아들의 성체와 성혈을 합당하게 받고, 다가오는 생에서 영원한 상을 받을 자격을 얻게 하소서.”

평신도와 사제인 우리 모두는 영혼 속에 하느님,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행동에 초자연적인 가치를 부여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여러 번 손으로 만집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자비 때문에, 오직 그분의 선하심 때문에, 오직 그분의 무한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한 마음과 선한 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행위의 순결함은 의도가 정직하고, 제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제단인 온 세상에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제단에서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는 관상하는 영혼의 하루 동안 특정한 방식으로 미사를 바칩니다. 그 미사는 24 시간 동안 지속되며, 다음 미사를 기다리는 동안 또 24 시간 동안 지속될 다음 미사를 기다리는 식으로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오늘 우리가 당신 아들의 성체와 성혈을 합당하게 받고, 다가오는 삶에서 영원한 보상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하소서.

자녀들이여, 요셉의 가르침은 아버지의 가르침이자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저처럼 슬픈 경험을 통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외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시편의 저자를 통해 우리에게 사랑의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그보다 먼저 감미로운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오푸스데이의 일반적인 길,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각자의 길을 미리 준비하시며 예수님과 마리아, 요셉의 길로 우리를 강화시켜 주십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충실하다면 전례에서 거룩한 총대주교이신 성 요셉에 대해 말하는 것을 여러분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머리에 보석으로 된 왕관을 씌워 주셨군요".

후광이 없는 성도들의 이미지를 보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저는 저의 친구 성녀 카탈리나, 혀가 느슨한 성녀, 하느님을 아는 성녀, 성실한 성녀의 두 개의 작은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즉시 그들에게 보석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금처럼 보이는 왕관인 후광을 씌우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처럼 외모만 가질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명령, 성령의 움직임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하시나요? 그는 자신의 전 존재를 바치고 일꾼으로서 자신의 삶을 그분을 위해 바칩니다. 피조물인 요셉은 창조주께 음식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장인이신 요셉은 자신의 직업적 일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수 세기 동안 이 사실을 잊고 있었는데, 오푸스데이가 이를 상기시키기 위해 왔습니다. 요셉은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마음의 사랑과 보살핌의 부드러움을 바치고, 팔의 힘을 빌려주고, 자신의 모든 것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칩니다. 즉,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평범한 직업적 일을 한 것입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들로 큰 즐거움을 삼는 이!” (시편 112, 1).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불쾌하게 하지 않는 피조물은 행복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해하고 느끼는 유일한 두려움입니다.

야망, 즉 하느님의 명령을 성취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불안은 항상 지속됩니다. 지성이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정열이 뱀처럼 솟아나서 의심이 생기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의 하느님, 저는 당신을 섬기고 싶습니다, 당신을 섬기고 싶습니다, 제 마음의 모든 순수함으로 당신을 사랑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부족할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그의 의로움은 길이 존속하리라.” (시편 112, 3).

우리는 지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땅의 모든 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일을 거룩하게 하고, 일을 통해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는 항상 큰 평온이 있을 것입니다. “의로움은 길이 존속하리라.” (시편 112, 3).

우리가 죄 때문에 하느님의 정의와 논리를 우리 삶에서 스스로 몰아내지 않는다면 하느님의 정의와 논리는 영원토록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정의, 그분께서 우리 영혼에 심어 주신 거룩함은 항상 기쁨과 평화를 동반한 개인적인 내면적 투쟁을 요구합니다. 내면적 투쟁은 소음과 소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깨뜨리지 않는 한, 항아리처럼 깨뜨리지 않는 한, 잃어버리지 않고 더 강렬해지는 우리 자신의 것입니다.

냄비를 고치기 위해 규범이 있고, 고백성사와 형제애 대화가 있으며, 다시 한번 우리는 평화와 기쁨을 갖게 될 것이며, 주님의 계명을 성취하려는 더 많은 열망과 그를 통해 모든 피조물을 섬기려는 더 좋은 야망을 다시 갖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태오 1, 18).

이 완벽한 사람 요셉의 놀라운 거룩함을 보여주는 시금석과도 같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마태오 1, 19).

그는 양심상 그녀를 비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는 아내가 깨끗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영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에게 행해진 기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마태오 1, 19). 그는 망설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가장 깔끔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마태오 1, 20). 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느님의 빛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자녀 여러분, 주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을 확신하십시오!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서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태오 1, 20).

그는 이미 일어나고 있던 신성한 구속의 선언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마태오 1, 21).

그리고 요셉은 침착하고 고요하며 평화가 가득합니다. 자녀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의 모든 사랑과 모든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믿음과 힘의 모범이 아닙니까? 그는 영혼과 육체의 청결의 모범이 아닙니까? 그는 우리의 아버지이자 주님이 아니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그를 아버지이자 주님이라고 불렀고 온 세상에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교회가 미사 후에 암송할 것을 제안하는 이 기도문에서 큰 위안을 얻습니다.

“동정녀의 보호자이자 아버지시여!” 우리 부모의 순결과 거룩한 사랑을 맑은 눈으로 바라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이 사람들은 약한 피조물이 하느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존재와 육체, 영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약하면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매우 약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저에게 모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처녀들의 보호자이자 아버지 인 요셉여, 가장 충실한 보살핌을 받은 무죄 자체,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감동하지 않는 사제,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 영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 모든 아들들은 사제의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헌신과 신뢰, 찬사, 우리 아버지이자 주님 인 요셉에 대한 애정으로 불타오를 것입니다.

“서약으로 받으신 예수님과 마리아를 통해 우리를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지켜 주시고, 우리가 깨끗한 정신과 순수한 마음과 순결한 몸으로 항상 예수님과 마리아를 섬기게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는 오푸스데이에서 처음부터 거룩한 총대주교와의 연결이 살아있다는 것이 큰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요 후원자이며 우리 가족의 가장이기도 합니다. 이 날 우리는 사랑의 유대로 우리 자신을 묶고, 요셉과 마리아의 손에 오푸스데이에 대한 애착을 맡기면서 헌신을 새롭게 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더 많은 자녀를 보내 달라고 청합니다.

더 긴박하게 기도하기. (1969 년 12 월 24 일)

보십시오! 아기 예수님이 얼마나 귀여우십니까? 무방비 상태입니다.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러 이 땅에 오셨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께서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피할 수 있도록 고난을 받으러 오셨다고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오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마치 십자가에 매달려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 너희도 십자가에 매달려라”고 분노하는 거짓 이론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 자녀들이여! 주님께서 영원한 사제의 몸짓으로 팔을 뻗으시고 우리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십자가의 나무에 꿰매어 주셔서 우리의 고통이 더 부드럽고 달콤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고통과 사랑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발견하고, 더 나아가 그 십자가에서 절망을 발견합니다. 십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의지하면 가장 힘든 순간에도 행복하고, 안전하고, 강하고,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깊이 기도하는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 속에서, 길거리 한복판에서, 각자의 직업적 일터에서 묵상하는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과 나쁜 일에 직면하여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는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면 모순도 없고 나쁜 일도 없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로마 8, 28).

그리스도와 친밀해진다는 것은 기도의 영혼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아침부터 밤까지 주님을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고, 얼마나 잘 걸을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저의 수첩에는 제가 많이 읽고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흔이 다 된 연로한 사제입니다. 게다가 주님께서 이 위대한 오푸스데이 가족인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서 선택하신 아버지입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을 사랑하며 거짓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기도로 우리 주님을 대하는 것이 좋다는 말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길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의 혼잣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마태오 21, 22).

성 마태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면 다 받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오푸스데이 가족은 하느님의 많은 축복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께 애정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온 영혼과 믿음을 다 해 구합시다. “예수님, 우리는 이것을 원합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저도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청원을 더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합니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마태오 28, 19).

요청하는 데 동의하는 두 사람이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같은 것을 요구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 얼마나 확실한 희망입니까! 사랑, 믿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신성하고 초자연적인 희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신다고 확언하십니다. 우리 가족은 다른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하나가 된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며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한 자녀 됨을 느낍니다. 제가 원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원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처음 기도한 것이 언제 어디서였는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주님의 기도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보고, 감탄한 것은... 저는 길거리와 전차 안에서 배웠습니다. 한 시간인지 한 시간 반인지 모르겠지만 “아빠, 아버지”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복음에는 놀라운 말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 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마태오 11, 27).

그날 하느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항상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명확하며 단호한 방식으로 느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시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마르코 11, 24).

함께 물어봅시다! 우리 주 하느님께 어떻게 구할까요? 어머니에게 부탁하듯이, 형제에게 부탁하듯이. 때로는 표정으로, 때로는 몸짓으로, 때로는 좋은 행동으로,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때로는 말로 우리의 애정을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덕목을 사용하듯이 같은 방식으로 하느님과 대화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루카 11, 10).

주님께서는 무엇이든 구하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 중 적어도 두 명 이상이 있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말을 더 많이 들어 주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요한 16, 23).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주실 것입니다. 매일 성체성사로 그분을 만날 때, “주님, 당신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오니...”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복되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그분께 모든 것을 구합니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요한 16, 24).

구하면 받을 것이며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나 저나, 크고 작은 실수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주님께 구하는 평안과 기쁨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느님 자녀의 삶에서 현실이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내 자녀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이며, 더 나아가 이 땅의 그 무엇도 그의 마음에서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더 많이 친교하고 더 많이 일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았던 사도인 성 요한의 말씀을 몇 가지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요한 15, 7).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일치는 우리에게 완전한 안전을 제공합니다.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여, 제가 하는 이 말은 여러분만 아니라 내가 묵상할 때, 내가 싸워야 할 때 기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음식이 저에게 좋으니 여러분에게도 주고 싶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습니다. 형제애로 서로 일치하여 많이 구하십시오.

미사에서 아버지가 구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저는 끊임없이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 하느님께 교회와 오푸스데이를 위해 필요한 많은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평화와 전쟁과 증오가 종식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사회적 평화를 위해, 계급적 증오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사람들이 함께 사는 법을 알고, 용서하는 법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여, 복되신 성모님께도 같은 것을 청합니다. 주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면 성모님께 가서 “나의 어머니, 당신께서는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니 제가 그분께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그분께서 제 말을 들어주실지 알려주소서”라고 청하십시오. 우리의 어머니이시고 복되신 성모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영감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은 항상 기도를 하고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논리. (1970 년 1 월 6 일)

“유대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마태오 2, 2).

그리스도는 태어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미 왕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유대인의 왕은 어디 계십니까? 동방에서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왕자나 현자 같은 힘 있는 사람들이지만, 충분히 합리적인 동기로 보이지 않는 외부의 표징에 이끌립니다.

그들은 전갈을 받았는데 그다지 정확하지 않고 별의 특별한 밝기만 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낯선 방향으로 여정을 떠난다는 것은 비논리적으로 보입니다. 이미 다른 누군가가 통치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물어봐야 한다는 것은 더욱 비논리적입니다.

“유대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마태오 2, 2).

제 영혼의 자녀들이여, 우리 삶에도 비논리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빛을 보았고 부름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 곁에 사람들에게는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결정을 내리도록 이끈 불안감을 이들과 공유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제 자녀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마태오 2, 2).

부르심의 첫 번째 응답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그 첫 번째 비논리적인 순수함이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누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제 경험이 있고, 여러분 또한 각자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순간의 솔직함을 잃어버린 매 순간, 매일, 때로는 하루에 여러 번 새롭게 해야 하는 항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가까이

다가갔고 그분의 심장이 강하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분께서 지으신 땅 위에서 뛰놀며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잠언 8, 31).

이 모든 것에 대해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온 마음을 다해 말해야 합니다. 감정이 따라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은혜의 도움과 의지로 그것을 말할 것입니다. 우주의 왕이신 나의 예수님,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지난 42 년간의 우리 역사를 통해 인간의 논리가 부족했음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는 이 위대한 신적 실재를 죽이려던 헤로데를 만났습니다. 그것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며,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오푸스데이도 한 번 이상 헤로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착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였으며, 심지어 그들은 권력과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 지니던 거주지까지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안락함에서 벗어나게 한 신성한 동기가 가치 있는 동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치 있는 동기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신실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두려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양심의 깊은 곳에서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한 후 절대적이고 효도적인 신뢰로 하느님께로 향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느님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신뢰를 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만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 지혜로우신 아버지 하느님께 상황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평온을 잃지 않겠다고 우리가 말할 때입니다. 자녀 여러분, 침착하게 우리의 길을 나아갑시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교회가 파괴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며, 세상에서 그분의 신성한 발자취의 흔적을 잃어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와 그리스도교 전체에 불행하게도, 우리는 지금 교회를 해체하려는 악마적인 시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신성하고 아름다운 신앙, 도덕, 규율, 예배와 같은 가장 중요한 것들까지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톨릭 신앙의 근본적인 개념을 흐리게 하려는 지옥의 외침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은 당신의 교회나 당신의 오푸스데이를 향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소리 내어 말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주님,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지성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완고함과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마태오 7, 7).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외전 복음서는 대개 신학적 믿음의 가치보다 경건함으로도 연민으로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외전 복음서에는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아기 예수님 발 앞에 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찾던 왕을 발견한 동방박사들은 왕궁에 계시거나 많은 신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왕이 아니라 소와 노새 사이에 포대기에 싸여 있는 구유에, 어머니와 성 요셉의 품에 안겨 있는 그분을 겸손하게 경배합니다. 그분께서는 이제 막 세상에 오신 한 아기이십니다.

마태오 성인은 오늘 교회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복음 구절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향에 돌아갔다.” (마태오 2, 12).

당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한 과학의 소유자이자 비범한 사람이었지만 꿈을 쫓고 있으며, 다시 말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비논리적입니다. 우리 삶에도 인간적으로는 비논리적이지만 하느님의 논리로 가득 찬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여, 예수님, 마리아, 요셉이라는 지상의 삼위일체로 이루어진 그룹에 다가갑시다. 저는 구석에 서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모든 불행을 기억하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정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런 다음 저는 수세기 동안 무시당했던 그분의 어머니이자 성 요셉, 지상에서 제 아버지 역할을 해 주신 이 분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 당신의 것이 되고 싶습니다. 제 생각, 제 일, 제 삶 전체가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의 불쌍한 인간적 비참함이 저를 여러 번 왔다갔다 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순간부터 당신의 것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 심장이 처음 뛰는 순간부터, 내 이성 스스로 활동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저는 당신의 형제, 당신의 아들, 당신의 사랑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형제이자 사랑이시고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슴에 안을 수 없다면 적어도 제 자신을 작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의 정신과 가족 정신에 있습니다. 저는 내 자신을 작게 만들어 마리아께 가겠습니다. 그녀는 오른팔에 아들 예수님을 안으시고, 아들인 저도 그곳에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는 저를 왼쪽 팔에 안으시고 우리를 함께 품으실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우리는 관상가가 아녘니까? 이러한 사색은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로와 힘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특히 무력하고 궁핍한 아기 주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순수합니다. 그분을 화나게 하고 짐승이 될 수 있는 잔인한 가능성이 있다 해도, 우리가 투쟁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형제애로 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참회와 개혁, 개선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연속적인 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인간이 첫 부모를 통해 타락한 후, 주님께서는 인간이 짐승이 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제가 당신과 함께 어머니의 품에 있을 수 없다면 성문에서 당신과 동행했던 노새와 소와 함께 서 있겠습니다. 저는 가족의 개가 될 것입니다. 부드러운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며 집을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당신 곁에서 정화하는 따뜻함, 우리 모두가 지닌 짐승을 하느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상의 그 어떤 위대함보다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여, 우리의 삶은 고귀하고 착한 당나귀의 삶으로, 때로는 발을 들고 땅바닥에 뒹굴며 당나귀의 울음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그는 보통 충실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짐을 짊어지고 항상 동일하고 엄격하며 풍요롭지 않은 끼니에 만족합니다. 그는 일하기 위해 두꺼운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당나귀가 충성스럽고 짐을 버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습니다. “주님, 저는 당나귀입니다”.

자녀들이여, 이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사용하는 기도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나귀가 되어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하느님의 어머니께 등을 빌려드리고 이집트로 갑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앓을 수 있도록 다시 등을 빌려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느님의 보좌가 될 것입니다.

“참 하느님이시어, 참 사람이신 예수그리스도.”

이런 생각이 저에게 얼마나 큰 평화를 주는지!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며, 우리 인간의 약점을 아시고, 우리가 어떤 나쁜 흠으로 만들어졌는지 스스로 아는 것은 얼마나 큰 평화를 주는 일입니까?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신성한 숨결로 영감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연의 질서에 속하는 이 생명의 선물을 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고, 그 은총은 우리가 그분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 신성한 은총의 수로인 성사를 주셨습니다. 우선, 세례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가족이 됩니다.

자녀들이여,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세례를 조건부로 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을 볼 때 저는 고통을 숨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교도와 분노의 자녀, 사탄의 노예로 남겨 둡니다.

저는 유아 세례가 고의적으로 지연되는 것을 볼 때마다 많은 고통을 겪는데,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의 합동 의식과 축하 모임을 중요시하고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건강하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받으신 저의 부모님 생각이 떠오릅니다. 조부모님은 그저 훌륭한 신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 권위자라는 일부 사람들이 하느님의 양 떼에게 처음부터 나쁜 신자의 냉정함을 가지고 행동하라고 가르칩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이며 예루살렘의 나귀와 같은 그분의 나귀입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에서 성부, 성자, 성령을 버리지 않는 한 복된 삼위일체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 빛과 따뜻함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영적 불이 되고, 끊임없는 사도직이 되고, 진동이 되고, 오순절의 거센 바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시간이 왔습니다. 자녀들이여, 아기 예수님이 동방박사들의 경의를 받은 후, 결여가 많은 가슴이지만 그분을 여러분의 가슴에 꼭 품으십시오. 그리고 저는 외칩니다. 저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당신을 저의 가슴에서 쫓아내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자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보다 더 신실한 사랑이 이 땅에 있는지 보세요.

“보श्य, 그이가 우리 집 담장 앞에 서서 창틈으로 기웃거리고 창살 틈으로 들여다본답니다.” (아가 2,9).

그분께서는 오고 있는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가 오고 있다, 그가 오고 있다... 남편을 기다리는 순결하고 충실한 아내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은 그분이고, 우리가 주님께 기다리시게 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자녀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각자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주님, 당신은 저의 사랑 중 사랑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하느님이자 모든 것입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하면 패배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인간적으로 비논리적이고 사람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제 자신을 성화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제 영혼을 점령하시고, 당신의 은혜로 저를 강하게 해주소서.”

어머니, 성모님, 성 요셉, 아버지와 주님. 제가 당신의 아들의 사랑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지상의 삼위일체와 대화하는 것은 천상의 삼위일체를 대하는 방법입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아들에게 인도하시고, 아들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뵈는 것이다.” (요한 14, 9).

삼위일체의 각 위격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나는 성부 하느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하느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느님을 믿습니다.”라고 반복합니다. 나는 아버지 하느님을 믿고, 아들 하느님을 믿고, 성령 하느님을 믿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느님을 사랑하고, 아들 하느님을 사랑하고, 성령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고 소망하며 사랑합니다. 나는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를 믿고 희망하며 사랑합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1971 년 1 월 2 일)

딸과 아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새해를 힘차게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 경험을 조금 들려드리고 싶지만, 성 바오로의 말씀 몇 마디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제가 많은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들으셨고 읽으셨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당연한 것은 온 영혼을 다해 믿습니다. 제가 믿는 것 중에는 여러분의 충성심도 있습니다. 저는 성 라파엘의 청년들에게 처음부터 이야기한 것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중 한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면 백 명의 공증인이 만장일치로 반대를 확인하더라도 저는 공증인을 믿지 않고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약점이 있지만 충성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충성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것은 모두 잘 아십니다. 저는 "새해, 새로운 삶"이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24 시간 안에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은총으로 사울을 그리스도교 박해자에서 사도로 순식간에 바꾸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를 말에서 떨어뜨리시고, 눈을 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사울은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교육을 받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이자 로마 시민이기도 했습니다. 기억하지요?

“나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소.” (사도행전 21, 28).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도 모든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완전한 권리를 가진 국가의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듭니다.

죄는 아니지만 인간의 약점, 사랑의 부족, 관대함의 부족, 자그만한 일에서 반복적으로 싸워서만, 때로는 이기고 때로는 이기지 못하면서 우리가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의 정신처럼 매일 투쟁하는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성 바오로의 말을 들어 보세요.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로마 12, 2).

새로운 삶의 감각으로 여러분 자신을 개혁해 보세요. 선하고, 더 가치 있고,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완전한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따르도록 노력하십시오.

지속적인 운동이나 스포츠에서는 그렇지 않나요?

오늘은 3 센티미터 더 뛰거나, 0.01 초 덜 걸립니다. 그러다 갑자기 사고로 점프하다가 발목을 접질렀다면 정말 재앙 같지요! 부주의해서 살이 찌고 체력이 망가졌을 수도 있지요.

자녀들이여, 그 사람이 계속 투쟁한다면 기껏해야 작은 사고뿐입니다. 그는 더 나은 성적을 얻기 위해 훈련을 계속하고, 더 나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로 하느님을 불쾌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만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씩, 거의 깨닫지 못한 채 조금씩 새로운 삶의 감각으로 자신을 개혁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에서 이 점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는 특정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빛을 내고, 어떤 사람은 한 순간에 끝나는 불꽃만

내고, 어떤 사람은 잠들어서 아무 빛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날 때 그는 자신에게 빛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뛰어내리려고 할 때 닭처럼 뛰어내린다면 두렵지 않을까요?

자녀 여러분, 성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에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1 베드로 4, 12).

도약할 수 없다고, 정복할 수 없다고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패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승리는 하느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생각하는 것과 동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픈 일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수면을 취함으로써 많은 불필요한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먹고, 나이에 맞는 운동을 최대한 많이 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 접시에 십자가를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커피 한 잔만 먹더라도 싫어하는 것은 조금 더 먹고 좋아하는 것은 조금 덜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느님께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관능과 죄악에 대한 자연스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성향이기에 때문에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육체의 죄가 가장 심각한 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우리는 정욕을 억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놀라운 교만으로 가득 차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수년 전 교회에서 고해성사를 할 때, 저도 옛날 고해성사 듣는 사제들처럼 말했습니다. 많은 쓰레기를 듣고 나서 저는 이렇게 묻곤 했지요. “그게 다인가요?”

하느님께서 저를 버리신다면 그 어떤 죄인의 악도 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보일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잘못과 모든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느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운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말을 하여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방지하세요.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말하세요. 이것은 한 해를 시작하며 하는 좋은 결심입니다.

자녀들이여,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길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저는 길이라는 단어의 친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을 향한 길의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온 이래로 창조주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정을 떠나는 사람은 목적지, 즉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하여 그 목적에 잘 도달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충분한 속도로 그는 계곡과 야생 짐승의 위험이 있는 알려지지 않은 새길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자녀 여러분, 진지하게 걸어봅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땅의 일에 쏟는 열정과 헌신을 하느님의 일과 영혼의 일에 쏟아야 합니다. 성도가 되고자 하는 큰 열망을 갖도록 합시다.

우리는 지상에 성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성인이 되고자 하는 효과적인 열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열망으로 교회 전체와 모든 형제들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큰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충성심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생각은 내가 타락하면 다른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친다는 생각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평범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평범한 일을 잘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왕관을 얻을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기회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전사한 군인은 훈장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그들의 대장이 받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속담이 있습니다.

“병사의 피가 대장을 위대하게 만든다”.

여러분은 성자, 신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쾌활한 사람, 스포츠맨입니다. 그리고 저는 박수를 받는 사람이기도 하고 미움을 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많이 도와 주지만 아버지는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관상하는 방식으로 끝까지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따라서 사탄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관상을 허락하셨는데, 보통은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며 우리 모두에게 모든 수단을 주십니다.

사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고쳐야 할 점을 발견하고 여러분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푸스데이 길은 매우 넓습니다.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말을 타고, 자전거를 타고, 무릎을 꿇고, 어렸을 때처럼 네 발로 갈 수 있습니다. 길에 머무르는 한 도랑을 따라 갈 수도 있습니다.

오푸스데이에 대한 일반적인 소명은 전문적인 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며,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방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원단으로 재단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개인의 다양성이나 다원주의로 인해 모두에게 공통된 것을 잃지 않습니다. 오푸스데이에서 우리는 영혼을 틀 안에 집어넣어 짜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구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표에 도달하고 싶다는 공통분모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성 바오로를 읽어봅시다. 지혜서에서는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깨진 그릇과 같아서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조각이 느슨하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깨진 그릇과 같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한 곳을 향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루카 10, 42).

여러분의 의지는 껍쇠가 담긴 흙 그릇이라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껍쇠가 필요하기 때문에, 껍쇠의 친한 친구입니다. 물병은 껍쇠가 있어도, 물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깨진 물병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껍쇠로 감싸진 물병이 우아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여, 그 껍쇠는 여러분이 고군분투했다는 증거이며 스스로를 겸손하게 할 이유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쨌든 깨지지 않으면 더 좋습니다.

좋은 기질을 가져야 합니다. 수년 전에 저는 좋은 포도주가 담긴 잔에 좋은 포도주를 부으면, 모든 것이 좋은 포도주라고 썼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가나의 혼인 잔치의 좋은 포도주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에 식초가 있다면, 좋은 포도주, 심지어 가나의 혼인 잔치의 포도주를 부어도 좋은 포도주가 당신 안에서 식초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역겨워 보일 것입니다. 나쁘게 반응하면 말하십시오. 검진을 위해 의사에게 가는 사람이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노력, 욕망, 생각은 모두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루카 10, 42).

여러분에게는 이미 운동 선수의 동기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하느님께 모든 것을 가져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니므로 한계에 놀라지 마십시오. 마땅히 죽을 수 있고 영적으로도 죽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위대한 일이 그분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기적에 놀라서 돌아온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 열매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느릅나무는 배를 열매로 맺을 수 없습니다. 그 열매는 우리 영혼에 넣을 만큼 아버지처럼 너그러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열정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낀다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며, 우리는 벽과 같지 않으며, 주님께서 우리 손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해서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흔한 일입니다.

성 요한의 예를 보세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 주님께 자신이 누구인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 모든 기적을 생각하게 하셔서 대답하십니다. 이 구절을 기억하지요? 저는 40 년 넘게 자녀들에게 이 구절을 묵상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통해 이러한 기적을 계속 일으키고 계십니다. 앞을 볼 수 없던 사람들이 이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병어리 귀신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불구가 된 사람들이 그 고요함을 깨고 덕을 행하며 사도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자로처럼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요한 11, 39).

여러분이 그들을 하느님께로 데려오면 그들은 신성한 은혜와 여러분의 삶과 교리, 여러분의 신중하거나 무분별한 말에 대한 간증으로 되살아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궁금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첫 번째 제자들을 통해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이러한 일을 행하십니다. 딸과 아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교만의 가능성을 없애며 좋은 교리를 갖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좋은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인지는 여러분을 효과적으로 만들고, 충성심을 키우며, 따라서 여러분의 인내심을 강화합니다.

사도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1 코린토 12, 31). 끊임없이 더 나은 재능을 갈망합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고 싶습니다. 때때로 일이 조금 잘못되더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투쟁 속에 있으니 투쟁합시다.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1 코린토 12, 31).

하느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을 갈망하세요. 하느님 앞에 있는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간구할 때 전능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통해 겸손하게 그분께 간구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지혜의 은사를 통해 무엇이 잘되고 있고 무엇이 잘되지 않는지 빨리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나그네이며 잘되고 있는 일에 전념하고 안 좋은 일은 피하고 싶습니다.

이 묵상의 요점들을 머리와 가슴에 새겨두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1 코린토 12, 31).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소서! 더 많은 사랑과 희생정신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신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더 이상 발판이 아니라 승리의 보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조금 가졌다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 간청합시다. 하느님의 강복을 바랍니다.

우리는 요셉의 가족입니다. (1971 년 3 월 19 일)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저는 평생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의 영혼에 부어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오푸스데이 정신에는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라 신성한 지혜의 작품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 정신은 주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에 담고자 하셨던 모든 선을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이 저의 불쌍한 삶에서 나쁜 것을 본다면 그것은 오푸스데이 정신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선하고 충실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재물 중에는 복된 삼위일체, 천국의 삼위일체, 즉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 성령 하느님, 유일하신 하느님에 대한 헌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예수님, 마리아, 요셉이라는 이 땅의 삼 인에 대한 헌신도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 성가족의 단합과 애정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 개의 마음이었지만 하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성 요셉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는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성 요셉을 젊은 모습으로 상상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실에 나이가 든 성 요셉 조각을 누가 가져다 두었을 때 바로 활력이 넘치고 젊은 성인상으로 교체했습니다.

젊었을 때 순결하지 않았다면 노년에는 순결하기 더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 청결한 방법을 몰랐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나쁜 습관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성 요셉은 당시 소녀 티를 갓 벗어난 숙녀였던 복되신 동정녀와 혼인했을 때 젊은 나이였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순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야만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느님의 가장 순수한 사랑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어젯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저는 오늘의 축일을 준비하면서 성 요셉을 여러 번, 여러 번 불렀습니다. 나는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의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이유 없는 고려가 아닙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신 성모 마리아의 자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자매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 요셉이 가장이 되기를 원했던 가족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처음부터 그분을 우리 아버지이시며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오푸스데이는 쉽게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저는 교회의 승인으로 인해 우리의 법적인 길이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도 진행 중인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학적, 금욕적 생리학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사법적 현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평화로운 사목의 물결입니다. 저는 어떤 종류의 교회 승인도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많은 곳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영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아버지 역할을 하신 성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1933 년이 되어서야 우리는 첫 번째 법인사도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DYA 아카데미였습니다.

법학과 건축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불렀지만, 실제로는

“하느님과 대담함”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의 틀을 깨고 인간의 한계 내에서, 그러나 종교적이거나 종교에 동화되지 않고 거리에서, 평범한 전문직에서 온 마음을 다해 하느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욕구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오푸스데이의 첫 번째 규정을 작성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경험기록문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느님의 뜻은 1928 년 10 월

2 일부터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수년에 걸쳐 조금씩 실천에 옮겨졌습니다. 그것은 양복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입히는 위험을 피했습니다. 오히려 올바른 의복을 만들기 위해 경험기록문을 작성하며 옷의 치수를 측정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알바로와 두 명의 다른 형제들에게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원, 서약, 선서 같은 뜻이 비슷한 단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첫 번째 법규를 작성했는데, 그 당시에도 필요하지 않았고 지금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착각하지 않았다면 1934 년에 우리는 최초의 학생 기숙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스페인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 성직적인 분위기였어요. 당국은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고 모든 자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이념이 확산되고 있었지요.

감실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했습니다. 지금은 쉬워졌지만 당시에는 감실을 두는 일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많은 일을 해야 했고 우리 자신이 매우 미덕의 귀감이 있음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졸업작품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지난 세기의 젊은 여성들은 학교를 졸업할 때 프랑스어를 조금 구사하고 피아노를 어느 정도 연주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바느질, 뜨개질, 자수, 다인, 글자, 숫자, 새 모양... 만든 사람의 이름과 날짜도 수놓았습니다!

제 여동생 카르멘이 보관하고 있던 플로렌시아 할머니의 졸업작품도 본 적이 있는데 젊은 여성들의 학사 학위 같았어요.

교회가 우리를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우리 집에서 예수님을 성체성사에서 모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그런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제 영혼 깊은 곳에는 이미 성 요셉에 대한 헌신, 즉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과 같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좋은 빵에 굶주렸을 때, 파라오의 조언에 따라, 요셉에게 갔습니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창세기 41, 55).

요셉에게 가서 밀을 달라고 하세요. 저는 성 요셉에게 첫 번째 감실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당시 제 주변에 있던 자녀들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저는 예복, 장식품, 감실 등 필요한 물건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큰돈이었던 25 페세타를 모았는데 더 긴급한 다른 일에 사용했습니다.

제가 많이 사랑하는 수녀님들에게 감실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제단 장식은 다른 곳에서 구했고, 마침내 마드리드 주교님께서 축복받은 성찬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사의 표시로 감실 열쇠고리에 성 요셉 메달을 달았는데 뒷면에는 ‘요셉에게 감사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성 요셉은 한 가정의 좋은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빵, 성체성사를 주셨기에 진정 우리의 아버지이자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가족이라고 전에 말하지 않았나요? 우리는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이는 시간인 기도 전에 그분을 불러 모읍니다. 성 요셉은 우리가 헌신을 새롭게 하고 오푸스데이에 최종적으로 참여할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처음에는 제가 필요해서 몇몇 사람의 신의식(Fidelity)을 조금 앞당겨 진행했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일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제가 그들에게 “내가 죽어도, 하느님의 사업을 계속할 것을 하느님 앞에 약속하겠습니까?”라고 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 누구라도 저보다 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는 성 요셉 축일에 신의식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오푸스데이를 진행하기 위한 영적 헌신에 성 요셉과 함께 했고,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성모 마리아 다음으로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게 지낸 피조물은 성 요셉입니다. 저는 교회가 미사 전후에 경건한 사제들에게 권하는 기도를 즐겨 바칩니다. 거기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를 돌보았듯 성 요셉도 하느님의 아들을 돌보셨다는 사실을 되새깁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가슴에 안아 주시고, 때로는 상처를 입힐 정도로 강한 입맞춤을 해 주셨습니다.

복되신 동정녀를 그토록 사랑하고 그녀의 흠이 없는 순결을 알고 있던 성 요셉이 아이를 잉태하신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할 수 있나요? 그를 안심시킨 유일한 것은 우리 주 하느님께서 천사를 통해 그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불명예스럽게 하지 않고 떠나는 신중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 마음을 다해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마리아의 태의 열매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기쁨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복되신 어머니를 사랑하세요! 일년 전 저는 임신한 복되신 동정녀의 아름다운 골동품 그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를 감동시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에 있을 때처럼 적절한 시기에 마리아의 자궁에 안겨 있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의 겸손에 감동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과도 동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성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십니다.

하느님의 겸손에 감동하지 않고, 그분이 사랑으로 사람이 되셔서 특권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그분처럼 우리도 특권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시민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멋진 일입니다! 우리는 눈에 띄지 않는 예수님과 마리아, 요셉의 집에서 매우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감실이 있는 경당에 가서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말하고 삼위일체를 부릅시다. 그런 다음 성막을 지키는 천사들에게 감사하며 성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천사들이 주님의 소명을 생각하면 놀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집에서도, 그 전에는 베들레헴에서도, 그리고 이집트로 도망칠 때와 돌아올 때에도 잔악한 군주의 아들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사람으로만 나타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께 마음을 다해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녀들이여, 이것이 묵상이라면 계속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대화할 시간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각자 혼자서 할 수 있는 묵상기도의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리아, 요셉의 집과 나사렛 작업장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과 마리아가 동행했던 거룩한 총대주교의 죽음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매우 사랑하고 그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말씀 드립니다.

천국에 슬픔이 있다면, 성 요셉은 이 시대에 교회가 마치 시체처럼 썩어가는 것을 보고 매우 슬퍼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시체가 아닙니다! 사람은 죽고 시대는 변할 것입니다. 신성모독과 이단은 더 이상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늑대가 어디에 있는지 지적할 목자가 없기 때문에 방해 받지 않고 퍼져 나갑니다. 박해와 명예훼손을 당하기 때문에 진실을 선포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이단과 악, 나쁜 매너의 이론적 및 실제적 오류를 펴뜨리는 사람들만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적은 내부와 외부에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종교적 주제에 관한 책을 집어 들었을 때, 그 책 내용이 좋은지, 나쁜지, 불확실하다면 손을 태우십시오. 나가! 그 책은 가장 활성화적인 독입니다. 포르노 책인 것처럼 버리십시오. 포르노 책은 눈으로 보이지만 어떤 종교 책들은 눈치도 채지 못하니 더 확실하게 버려야 합니다.

성 요셉이 지극히 복되신 삼위일체와 그분의 배우자이신 성모 마리아, 우리를 위해 이 시련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하여 저와 함께 간청합시다. 이 기도는 성인송에서 삭제되었지만,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적들을 모욕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하느님의 손 안에. (1971 년 10 월 2 일)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통해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을 포함하여 당신의 모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이여, 주님은 항상 미약함 많은 여러분과 저에게 의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는 열다섯 살, 열 여섯 살 때 영혼의 간청기도 외침이 기억납니다. 주님,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때도 저의 미약함을 알았습시다만 인생의 연륜을 지닌 지금은 더욱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특이한 것을 기피하는 성격입니다.

설립 이후 44 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광야에서 보낸 세월보다 더 긴 세월입니다. 하지만 이 사막에서 꽃과 열매는 놀랍게도 피어났습니다. 모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무성한 오아시스가 될 정도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녀들이여, 지난 세월에 저는 마음의 평화를 잃은 적이 없지만 한 순간도 편히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꽃과 열매, 나무와 잎사귀, 그리고 영생으로 솟아나는 맑은 물까지.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지속적인 보호와 때로는 매우 명백한 방식으로 개입하셔서 오프스데이는 당신과 당신 만의 일이며 전적으로 당신의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해주신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개입을 요청하지 않았고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하느님의 섭리의 경이로움이 떠오릅니다. 어느 화창한 날, 길 한가운데서 전차 안에서 외쳤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주님, 이 자리에서 지금 묵상과 설교할 사람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항상 장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 중 누구라도 아주 감동적인 말을 했을 테지만, 저는 부끄러워하며 조용히 문을 열고 경당을 천천히 떠났을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배려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모 마리아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이제 모든 것이 저에게 놀랍고 방해가 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할 계획이 없었고, 마음으로도 아무 준비를 하지 않았습시다. 저는 단지 개인적인 기도를 큰 소리로 하고 있을 뿐이니 여러분도 개개인 기도를 하세요.

저에게 감사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적 삶의 후원자이자 신비로운 고행에 힘을 주시는 주님, 성모님, 성 요셉,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길 한가운데서 관상적 삶을 살고 있다는 거대한 사실에 힘을 줍니다.

주님, 제가 남들에게 절레 취급 받은 것에 감사 드립니다.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보다는 덜 심했지만요. 주님, 이 초자연적인 스포츠에서 저를 지켜 보셨고, 근육 힘에 비해 불균형한 것을 보시고 저의 혼자 힘으로만은 절대 불가능하지만 저를 승자라고 불러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신성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개인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했고, 가진 적도 없으며, 가진 적도 없다는 사실에 정말 면목 없습니다. 주님, 제가 마땅히 보답해야 할 방법을 몰랐던 것에 대해 면목 없습니다. 제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합시다. 때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제가 힘들게 했던,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천국에서 넉넉히 갚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영광의 나라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천국에서 승리하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네, 천국에서 승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옥에 있는 이들과 함께 이 땅을 걷는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후렴구를 반복합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루어지기를!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불행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있기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모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간적인 조건도, 명예도, 공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게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실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자녀들이여, 제가 하는 말의 일부분만 따라하세요. 각자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기도를 바치는 것이 좋습니다. 오푸스데이에는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모든 개인적인 길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푸스데이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꽃과 과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이식되고 모든 장소, 모든 인종, 모든 가족에 뿌리를 내리는 잎이 무성한 숲입니다. 44 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오푸스데이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천 번이나 죽지 않았습니까?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카스티야의 갈색 땅이나 나의 고향 아라곤의 색채가 없는 꿈이었습니다. 주님, 당신은 항상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꿈은 작습니다.

제 자녀들이 제 얼룩진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이 거대한 평화의 강이 온 세상에 넘쳐나는 것을 아낌없이 꿈꾸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꾸는 꿈은 항상 작은 것입니다.

자녀들이여, 주님께 저와 함께 말씀드릴겠습니까? 저의 비참함을 고려하지 마시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고려하십시오. 저는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주님,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44 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침대 옆에 놓아둔 성 요셉 칼라산즈의 이미지가 담긴 그림을 기억합니다. 저는 성인이 로마에 온 것을 봅니다. 저는 그가 여기에 머물면서 학대 받는 것을 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그와 같다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가 존경 받는 노인, 성인이었다는 것을 보았지만 이 부분은 저는 그를 닮지 않습니다.

영혼의 자녀 여러분, 신실, 신실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느님의 사업의 연속입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실 때, 하느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느님의 뜻대로, 릴레이 경주에서처럼 앞서서 달리고 서로에게 바통을 넘겨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더 이상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선한 영을 잃지 않고, 우리 성소의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특징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여러분이 보살펴 주세요. 여러분은 인간적이고 신성한 이 삶의 방식을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에 전수할 것입니다.

주님, 제 아들과 딸들을 위해 많은 것을 주님께 구합니다. 그들에게 인내와 신실함, 충성심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충성하면 신실해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타락을 간과하소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모든 속담에는 지혜가 가득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군분투하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게 하소서.

저는 여러분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사과하고, 서로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항상 하느님의 선하심과 함께 성모 마리아의 보호, 성 요셉의 후원, 수호 천사의 보호를 받으며 하느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결코 외롭다고 느끼지 마세요. 항상 동행하고 있다고 느끼면, 항상

굳건해질 것입니다. 밭은 땅에 딛고 마음은 하늘에 두어 선한 것을 따르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지금, 우리는 항상 오류 없이 교리를 가르칠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에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황은 당신을 대표하니 우리는 교황님을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수년간 고통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와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주님, 왜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주님을 더 닮고, 더 이해하고, 주님의 자비로 더 충만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버림을 경험합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일과 사도직, 공적 삶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시고 죄인들을 동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사제의 양손을 뻗어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며 누구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우리가 그분의 작은 무리라는 것이 얼마나 분명한지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바로잡을 힘을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사랑의 호루라기로 우리를 자비로 도우십니다.

주님,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자기 봉헌은 없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로 충만한 영혼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은 지상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정화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을 태울 불꽃이 우리 마음에서 나올 것입니다. 빛이 나오고, 가장 사랑스럽고 자비로운 마음을 반영하는 소금이 우리 마음에서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오푸스데이의 여왕 성모 마리아께 갑시다. 어머니는 다행히도 돌아가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모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십니다. 그녀에게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이고, 우리는 성모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하느님께 보답하기에 적절한 시기. (1972 년 2 월)

자녀 여러분,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다시 마음을 열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은 확신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지금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환난 가운데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며 그를 해방하여 영예롭게 하리라.” (시편 91, 15).

우리는 하느님께 대한 죄를 속죄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교회 안팎에는 속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개인기도로 만든 화살기도를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하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우리 개인의 게으름으로 그분의 거룩한 이름, 그분의 성사, 그분의 교리에 반하는 많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의 하느님, 당신 종의 기도와 간청을 들어 주십시오. 주님, 당신 자신을 생각하시어 황폐한 당신의 성소에 당신 얼굴의 빛을 비추십시오. 저희 하느님, 귀를 기울여 들어 주십시오. 눈을 뜨시어 저희의 폐허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도성을 보십시오. 저희가 당신 앞에 간청을 올리는 것은 저희의 어떤 의로운 업적이 아니라, 당신의 크신 자비 때문입니다”. (다니엘 9, 17-1).

자녀들이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위로부터 조장되어 거의 유아기부터 영혼을 타락시키는 어리석음과 혼란에 대해 용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이 참회와 보속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무리에 비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행과 약점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다고요? 성 바오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봅시다.

“하느님께서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서는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있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시려고, 이 세상의 비천한 것과 천대받는 것 곧 없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인간도 하느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1 코린토 1, 27-29).

우리의 불행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서는 교회 역사에서 이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그분의 도구로 선택하셨습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작다는 사실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재능을 묻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향한 죄와 영혼들을 해치는 것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니, 무법한 자들의 오류에 휩쓸려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2 베드로 3, 17).

우리는 각자의 상황에서 모두 같은 소명을 가지고 하느님과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긍정적으로 응답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계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책임이 더 큼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많은 은혜도 있습니다.

사순절 첫 주일의 서신 말씀이 얼마나 시사적인지 보셨나요?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이 받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로운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지금이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이 직분이 흠잡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우리 자신을 하느님의 일꾼으로 내세웁니다.” (2 코린도 6, 1-4).

오푸스데이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 주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헌신을 자유롭게 받아들입니다. 이 헌신은 각자의 상태에 맞는 개인적인 은총과 주님께서 오푸스데이로 부르시는 영혼들에게 주시는 다른 특별한 은총으로 강화됩니다. 신성한 사랑의 선언은 얼마나 감미로운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이사야서 43, 1)

자녀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응답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1 사무엘기 3, 6).

그것은 사랑의 헌신이자 정의의 유대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로지 하느님의 정의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의 자비와 동정심에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녀 여러분이 저를 위해 하는 기도에 제가 의지하듯이 제가 여러분을 위해 온종일 기도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나 이 사랑의 헌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그것은 딸들과 아들들이여, 성인이 되기 위해 오푸스데이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고행적 수단을 실천하기 위해 투쟁할 의무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규범과 관습을 이행하기 위해 투쟁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좋은 교리를 습득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와 희생과 노력으로, 그리고 가능하면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 여러분, 때때로 웃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내게 묻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범을 보이기 위해 투쟁해야 할까요? 네, 그러나 이 땅에서 박수를 받으려 하지 않고 조롱, 비방, 증오, 경멸을 당하더라도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는 투쟁해야 합니다.

“영광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중상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우리는 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진실합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인정을 받습니다. 죽어 가는 자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벌을 받는 자같이 보이지만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슬퍼하는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늘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 코린토 6, 8-10).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고난에 축하나 격려의 말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의 내적 투쟁은 하느님과 교회와 영혼을 섬기기 위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큰 불충실의 시대에 우리의 작은 노력을 사용하여 신실해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이여, 인간의 칭찬을 생각하지 않고 하느님을 향하여 항상 행복하게 투쟁합시다.

주님, 우리가 당신을 배신하지만 우리는 당신께 돌아옵니다. 당신과의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떻게 친밀함을 구할 수 있으며, 어떻게 십자가에서 사랑을 위해 당신과 함께 희생하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주님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당신을 따르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본다는 것은 당신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강한 믿음과 풍성한 희망, 그리고 끊임없는 자선을 주소서. 우리가 원수를 이기는 하느님, 당신을 부르나이다. 하느님, 우리는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경고하셨나이다. 하느님, 당신의 은혜로 우리는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합니다. 하느님, 우리가 역경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소서. 하느님, 우리의 순종과 선한 정부는 당신 덕분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

내 자녀들이여, 우리가 싸웁시다! 견진 성사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되지 마십시오. 아마도 그들은 투쟁하기 싫기 때문에 패배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사탄과 같은 타락한 영혼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의 충고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2 티모테오 2, 3).

그리스도의 군인으로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전쟁에서 하느님의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교회와 영혼을 위한 내면의 평화와 하느님의 평온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전쟁에 헌신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채비를 마치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에페소 6, 12-13)

이 땅에서 우리는 미래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여 자신을 버리는 게으른 자처럼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는 불확실하며, 주님과 소명, 신앙에 대한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항상 싸우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지난 해 마지막 날 저는 이 글을 썼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을 위해 싸우는 것, 이것이 지상에서 우리의 운명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파괴와 영혼의 멸망에 가능한 한 많이 반대하는 내적 싸움이자 외적 싸움이기도 합니다.

“전쟁이나 전장에서 도망쳐서 자기만 살려고 하는 군인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잃게 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싸우는 용감한 사람은 자신도 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전쟁은 모든 전쟁 중에서 가장 힘든 전쟁이므로, 왕의 명령대로 전선을 형성합시다. 항상 피를 흘릴 준비를 하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돌보며 굳건한 자를 격려하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웁시다.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상처와 피를 흘리며 바닥에 누워 있지만 아무도 그들을 돌봐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호자도, 친구도, 형제도 없습니다. 백성이나 성직자, 다른 어떤 집단에서도 아무도 그들을 돌봐 주지 않습니다.” (요한네스 크리소스토모스 성인).

내 아들 중 누구라도 자신을 버리고 전쟁을 멈추거나 등을 돌린다면 그는 우리 모두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 오푸스테이의 형제들, 그리고 모든 영혼을 위하여. 우리 중 누구도 고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거룩한 교회라는 동일한 신비로운 몸의 일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투쟁하지 않는다면 형제들과 거룩함, 사도직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이 시련의 시기를 극복하는 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딸과 아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혼의 기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간적인 열정을 빼앗아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피곤함을 느끼고 비관론이 영혼을 마비시키려는 것처럼 보이며 우리를 눈 멀게 하고 오로지 그림의 그림자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진정성을 가지고 말하고 어린 아이처럼 손에 이끌려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신뢰 형제애가 넘치는 정기적인 대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해성사의 목적이며, 여러분은 좋은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 사제와 함께 할 수 있을 때마다 고해성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곧 빛이 그림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림 액자의 그림자만 보였는데 돌아온 빛 덕분에 그림자 속에 비춰진 액자의 형태도 우리 인생을 더욱 풍부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호 속에 사는 이,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머무는 이는 주님께 아뢰어라. “나의 피신처, 나의 산성이신 나의 하느님, 나 그분을 신뢰하네.” 그분께서 새잡이의 그물에서 위험한 흑사병에서 너를 구하여 주시리라. 당신 것으로 너를 덮으시어 네가 그분 날개 밑으로 피신하리라. 그분의 진실은 큰 방패와 갑옷이라네.” (시편 91, 1-4).

저는 복되신 성모님과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성 요셉 주님의 전구를 통해 예수님께 저를 이해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언제라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경계를 멈추고 손을 펴고 사소한 불신앙에 동의하는 것은 배신이 될 것입니다. 불충실한 사람들이 너무 많을 때 우리는 사랑의 헌신에 더욱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때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던 다른 동기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하느님에 대한 충성심만 남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충성! 신실함! 좋은 사람이 됩시다! 크든 작든, 적든 많든. 우리는 때때로 싸우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싸우고 싶습니다. 약해지는 순간이 오면 영혼을 활짝 열고 부드럽게 몸을 맡기세요. 오늘은 두 계단, 내일은 네 계단... 다음 날에는 힘을 다해서 아무것도 오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원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이여, 그 자체가 이미 싸움입니다.

자신의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고, 믿음에 있어 온전하고, 행동에 있어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위선자가 되지 말고 저리 가라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제 고향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합당한 직분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그 일하는 자리를 폐지하라.

우리의 초자연적인 임무는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마음을 주는 척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 중 누구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묵상하지 않으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고 교회와 오푸스데이에 많은 해를 끼칠 것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내 영혼의 자녀들이여,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모든 종류의 불행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항상 우리를 도와 주십니다.

“그가 나를 따르기에 나 그를 구하여 주고 그가 내 이름을 알기에 나 그를 들어 높이리라.” (시편 91, 14).

형제 중 한 명이 게으르고 힘들어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를 환영하고 도와주세요! 그가 묵주기도 하기 어렵다고 하면 함께 기도하자고 해보세요. 그가 시간 지키기를 어렵게 생각한다면: 이봐, 기도나 모임까지 5분 남았어. 그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리고 형제적 충고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개인적인 대화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들이 그것을 피하든 지나치게 미루든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고해성사는요? 딸들과 아들들이여, 고해성사가 필요한 날과 필요할 때마다 고해성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고해성사를 할 수 있지만, 사제서품을 받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그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영적 수단은 우리가 서로에 대한 애정을 통해 촉진되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경건함, 작은 죄책감,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 하느님의 임재의 피난처를 찾기 위해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우리를 강하고 평온하며 승리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하느님의 교회에 넘쳐나는 혼탁한 물을 억제하고 정화하기 위해 기도와 관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마태오 20, 22).

어려움이 크더라도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로 단련을 받고도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훨씬 값진 여러분의 믿음의 순수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밝혀져, 여러분이 찬양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1 베드로 1, 6).

상황이 심각합니다. 딸들과 아들들이여, 전쟁 전선 전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 중 한 명에 의해 전선이 깨지지 않도록 합시다. 저는 악이 내부와 멀리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진짜 썩은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이 마치 썩어 악취가 나는 시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께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연약하고 그들보다 훨씬 더 연약하지만 사랑의 헌신을 가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에 보속의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지극히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예수 성심, 저희에게 평화를 주소서.”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위대하고 젊고 불타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느님께 찬양하는 길로 영혼을 인도하여, 각자가 얼마나 굳건하게 끈기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십시오. 속죄의 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함이 부족하여 공허한 곳에 사랑을 쏟는 것입니다.

“주님, 깊은 곳에서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제 소리를 들으소서. 제가 애원하는 소리에 당신의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 당신께서 죄악을 살피신다면 주님,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30, 1-3).

주님의 교회가 피 흘리는 일이 멈추고 다시 물줄기가 강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 청합시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무시하시고 그분의 인내와 능력을 보여주시라고 기도합시다.

슬픔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푸스데이의 정신은 낙관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만하지 않고 현실에 있으며 현실은 씹쓸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리와 성사, 그리고 그분의 가장 순수한 어머니께 향한 모든 배신은 마치 복수처럼 보입니다. 하느님의 사랑, 그분의 관대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님의 봉헌이 비참한 영혼의 복수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님은 익명이 되시고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못이 필요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철로 나무에 꿰매어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대 성사 안에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료함을 어둠으로 보답합니다. 우리는 그의 관대함을 이기심으로 갚습니다. 우리는 그의 사랑에 냉대와 경멸로 보답합니다. 딸들과 아들들이여, 우리의 끊임없는 불행을 부끄러워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합시다.

“주님, 당신 백성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의 소유를 우셋거리로, 민족들에게 이야깃거리로 넘기지 마십시오.” (요엘 2, 17).

저는 매일 이러한 현실을 더 잘 인식하게 되고, 매일 속죄와 속죄를 통해 하느님의 친밀함을 더 많이 구합니다.

길을 잃은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면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영혼들을 위해 주님의 관심을 끌도록 합시다. 오늘날 모든 종류의 거짓과 이단이 면책특권으로 선전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버린 영혼의 수를 주님께 보여드립니다. 그토록 많은 배교와 악으로 인해 추문을 당한 영혼의 수를 보여드립니다. 성사와 선한 교리의 도움을 받지 못한 영혼의 수를 보여드립니다.

제가 받는 방문 중에는 불평하고, 비극을 느끼고, 악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 모두에게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참회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불순종하라고 조언할 수 없지만 파괴하는 사람들과 협력하지 말고 저항하여 그들을 어렵게 만들라고 조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라고 조언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것은 구제와 외침의 원천인 내면의 삶을 돌보는 것이 적극적인 저항입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청껏 소리쳐라, 망설이지 마라.” (이사야서 58, 1). 우리는 전 세계에서 주님의 소원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당신께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불행 속에서도 당신은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좌정하신 분이시여 당신께 저의 눈을 듭니다. 보소서, 종들의 눈이 제 상전의 손을 향하듯 몸종의 눈이 제 여주인의 손을 향하듯 그렇게 저희의 눈이 주 저희 하느님을 우러릅니다,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시편 123, 1-2).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총대주교의 전구를 통해, 주님께 우리의 보속의 정신을 키워주시라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우리가 참회 성사에 의지할 수 있게 간구하세요.

자녀 여러분,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세요. 참회와 속죄의 행위로 고해성사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비록 흠으로 된 불쌍한 인간이지만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마태오 9, 12).

주님, 우리가 나병과 연약함, 고통과 회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보여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추한 우리 모습을 사라지게 해 주실 때 기뻐하십니다. 주님께 은총을 청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른 진흙으로 만들어져 때때로 부서지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아 줄 필요가 있더라도 주님께 보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모든 자녀들이 이해하게 하소서. 특히 전쟁터에서 적의 잔인함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나약함이 필요로 하는 힘은 주님이시니, 우리가 사랑의 약속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참회와 감사의 표증으로 성모 마리아 성지순례 다섯 곳을 다시 가기로 결심합니다. 당신이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당신의 어머니와 우리 어머니께 가는 것임을 압니다.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요한 19, 27).

저는 사랑과 감사, 참회의 정신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엄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갖게 하소서. 우리가 항상 영혼의 마음에 선한 교리를

심는 일에 지치지 않게 하소서.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2 티모테오 4, 2).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는 일념으로 좋은 교리를 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열렬한 소망으로, 시의적절한 말씀으로, 당신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우리 모두에게 헛된 감정 없이도 항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있는 찬란하고 놀라운
가능성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기쁨으로 구해야 합니다. 주님, 축복 받으소서!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않으시겠지만, 위로를 갈망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일이나 음식의 맛을 갈망할 때처럼 좋은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하느님은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도록 격려해줍니다.

주님, 우리에게 신성한 위로가 부족하지 않도록 허락하소서. 주님께서 위로를
주지 않으실 때 우리를 어른으로 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갓 태어난
아기에게는 우유가 주어집니다. 이제 막 첫 이가 난 아이에게는 죽을 줍니다.

이미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든든한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소서. 하지만 지금이 우리 모두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순간이기에 조금의 꿀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저는 성모 마리아의 중재를 통해 제 아버지와 성 요셉 주님을 저의 옹호자로 삼고
천사들과 모든 성인들, 당신의 영광 안에 있고 시복 환상을 누리는 영혼들을
부르며 간청합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보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또한 제대 성사 안에 당신께서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빵과
포도주의 종류가 사라져도 나의 하느님, 당신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남아
계십니다.

성령님의 행동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며, 결코 한 신성한 인격이 홀로 있지 않습니다. 세 분께서 함께 계시며 하느님이십니다. 나의 몸과 영혼이 축복받은 삼위일체께서 앓으신 성막과 같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자녀들이여, 저와 함께 말합시다. 나는 아버지 하느님을 믿고, 아들 하느님을 믿고, 성령 하느님을 믿고, 성삼위일체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도움으로 나는 이 사막에서 하느님께서 자신을 재창조하실 수 있는 큰 오아시스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랑을 갖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부서지고 꺾인 마음을 하느님, 당신께서는 업신여기지 않으십니다.” (시편 51, 19).

말할 수 있는 재능. (1972 년 4 월)

딸과 아들 여러분, 오푸스데이에서 우리는 모두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각자는 각자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오푸스데이에서는 이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격려하고 보호합니다. 반면에 영적인 삶에서 우리 모두는 단순하고 투명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일곱 살이 되었다는 말을 반복하고 싶습니다. 여덟 살이나 아홉 살짜리 아이는 이미 아주 큰 거짓말을 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 나이를 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정확히 일곱 살의 어린아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여러 번 들었던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인 저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모든 실수와 모든 참상을 저지를 수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조금만 안다면 이런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심각한 비틀거리는 불행을 겪게 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즉시 바로잡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솔직하다면 주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채우실 것이고 여러분은 더 많은 힘, 더 많은 기쁨, 더 많은 사랑으로 투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그럼 우리가 넘어지거나 실수하길 바라십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나약함으로 인해 땅에 떨어지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의 반응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귀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은 그리스도의 모든 보혈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1 코린토 6, 20).

즉시 참회 성사에 가서 형제와 진지하게 대화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그분의 일을 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인생에서 가장 멋진 순간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추악한 유혹을 받더라도 슬퍼하지 마세요. 아마도 그것을 합의된 욕망으로 착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어머니와 우리 어머니의 중보기도를 통해 주님의 자비를 구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웃으십시오. 하느님은 나를 성인처럼 대하십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노인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스스로 깨닫으십시오. 항상 행복하게 투쟁하십시오! 아무도 전투와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땅 위에서 고역이요 그 나날은 날품팔이의 나날과 같지 않은가?” (욥기 7, 1).

여러분의 아버지인 저는 사제로서의 연륜과 자신의 대한 인지로 인간의 연약함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의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면 여러분의 전투는 대개 성벽에서 멀리 떨어진 게릴라전, 즉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놓고 싸우는 전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강한 교만이 때로는 여러분을 맹렬하게 진흙탕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리석음은 그대로 조용히 수수방관하는 일입니다.

시편 중 한 구절. “제가 입 밖에 내지 않으려 하였더니 나날이 신음 속에 저의 뼈들이 말라 들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당신 손이 저를 짓누르신 까닭입니다. 저의 기운은 여름날 한더위에 다 빠져 버렸습니다.” (시편 32, 3-4).

반면 대화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입니다. 개인적이고 친밀하며 형제적인 대화와 고해성사를 통해 어려움, 실수, 불행에 대해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어린 자녀 여러분, 첫 번째 증상을 발견하면 아주 경미하더라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명확하게 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군인처럼 용감하게 행동하는 대신 어리석은 부끄러움으로 자신을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육체의 연약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다섯 번째나 여섯 번째에 포함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큰 적이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교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일을 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상처를 보여주고 상처가 아프더라도 치유해 주시는 분이 일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건강을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당신의 삶은 영혼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느님께서는 너무나 선하셔서 우리가 고군분투하는 순간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전지전능하시며 우리 모두가 그분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그분께서 지으신 땅 위에서 뛰놀며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잠언 8, 31).

그분의 기쁨은 그분께 다가가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어떻게 다가가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정화하고 더 깨끗해지도록 도와주는 참회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얼굴이 더러운 것을 알고 엄마가 몇 번의 입맞춤을 줄 수 있도록 몸을 씻기로 결심하는 어린 아이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통회하는 영혼의 경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어머니처럼 품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분의 품에 안겨주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은혜와 생명과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양육하십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하느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하루에 여러 번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주에는 두 번 고해성사를 받으러 가기도 합니다. 어떤 주에는 고해성사를 한

번, 다른 주에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필요할 때마다 세 번 고해성사를 받으려 갑니다. 저는 경건하지도 꼼꼼하지도 않지만 무엇이 제 영혼에 좋은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곳에서 자비도 없고 교리도 없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고해성사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참회의 성사를 공격합니다. 그들은 연극장을 만드는 척합니다. 함께 몇 마디 한 다음 사죄를 합니다. 아닙니다, 아이들여! 개인적인 고해성사를 좋아하세요! 심각한 죄에 대한 고백뿐만 아니라 사소한 죄, 심지어 잘못에 대한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사는 성사 자체가 은총이며 받는 사람 따라 은총이 수여됩니다. 고해성사는 영혼을 부활시키고 생각, 욕망, 말, 행동에서 저지른 잘못을 깨끗하게 하는 것 외에도 은총을 증가시키고 우리를 강화하며 내면의 개인적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더 많은 무기를 가져다 줍니다. 참회의 성사를 사랑하세요!

우리 주님의 자비의 더 큰 현현을 보셨어요? 창조주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경이로움과 감사로 채우십니다. 구속자 하느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성체 안에 머무르시며 사랑의 양식이 되시는 하느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갈망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은총 안에서 영혼의 중심에 앉아 우리의 모든 행동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초자연적인 의미를 부여하시는 하느님은 형언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느님, 정말 놀랍습니다!

참회 성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하느님의 자비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놓습니다. 자녀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를 몰랐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약점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느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적으로 감동을 받아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교리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성사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막으려는 사람들은 그들의 목적이 조금이라도 성공한다면 교회의 영성을 파괴할 것입니다. 신부님, 그들이 새로운 말을 하나요? 나는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악마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악마는 천사였고 아주 늙었기 때문에 매우 영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어리석습니다. 그는 같은 것을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가 지금 전파하는 모든 오류, 거짓말과 이단의 모든 방식은 매우 오래되었으며 이미 교회에서 수천 번 정죄를 받았습니다.

구두 및 비밀 고백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부의 독을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들은 의사에게 가서 얼마나 오래 아팠는지, 질병의 증상이 무엇인지, 어디가 아픈지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까? 그들은 미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물처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수의사에게 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설교한 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는 거짓을 가르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전히 금욕적인 수단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진전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든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십니다.” (히브리인서 13, 8).

올바른 수단 없이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삶에서 수단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교리를 연구하고, 성사를 자주 받고, 기도하고, 고행하고, 경건의 삶을 살고, 유혹으로부터 도망치고, 마음을 열어 하느님의 은총이 마음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 치유되고, 불에 태워지고, 소작되고, 깨끗해지고, 정화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길을 잃은 많은 영혼들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해성사는 매우 좋은 것입니다. 고해성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사일 뿐만 아니라 영혼을 돕는 훌륭한 심리적 치료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또한 샘플처럼 자연스럽게 생겨난 영적지도와 형제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물은 우리 삶의 일부이고 물흐름을 멈출 수 없습니다.

초창기에는 어떻게 이런 관습이 생겼나요? 오푸스데이에는 다른 사제가 없었습니다. 형제들에게 고해성사를 하면 제가 묶일 것 같아서 고해성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다음 고해성사 때까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다른 사제들에게 고해성사를 보냈어요. 선한 정신을 가진 훌륭한 사제나 수도자들이었지만, 예를 들어 시험을 소홀히 했다거나 다른 작은 잘못을 고백하면 어떤 사제들은 “그건 죄가 아니야!”라고 대답하곤 해서 형제들이 매우 힘들어했지요.

친구들이 모임이나 커피 테이블, 댄스파티에서 서로에게 이야기하듯 고해성사 외에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선호했어요!

형제간의 대화에서 최소한 같은 단순함으로 말해야 합니다. 오푸스데이는 자녀를 자유롭게 하는 어머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열고 영적 지도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면 평화와 평온, 선과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남은 생애 동안 여러분의 성소, 교회,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로마 교황님,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훨씬 더 많은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크든 작든 자신의 불행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과 다른 영혼에게 감염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숨겨진 결함은 웅덩이가 됩니다. 드러나지 않은 좋은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맑은 물의 역류조차도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복잡함 없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마음을 열어보세요.

진실하지 않은 사람만이 불행합니다. 때때로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일로 우리의 평화를 빼앗으려는 빙어리 악마에게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여, 언젠가 여러분이 하느님을 화나게 하는 불행을 당한다면, 여러분이 거룩하고 충실하기만을 바라시는 아버지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빨리 고해성사에 가서 형제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을 도울 것이며, 당신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비밀을 버리면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첫째, 진실한 사람은 더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느님께서도 이 겸손을 은혜로 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당신의 말을 듣는 형제는 당신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당신을 도와야 할 의무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유리 잔이 깨지거나 토기 꽃병에 광택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누구도 놀라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세요. 그것이 제가 아이들에게 가장 감사하는 점입니다. 모든 것이 항상 잘 풀리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오해를 받고 자신이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항상 큰 영적 오만함을 가져옵니다.

오푸스데이 정신은 필연적으로 단순함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일을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오푸스데이에 도착한 순간부터 여러분은 아티초크처럼 대접받았습니다. 질긴 잎은 겉에서 제거되어 새싹이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우리는 모두 조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지만 때때로 작은 일로 쉽게 산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당신을 압도합니다.

반대로, 말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면 형제들이 그러한 우려가 어리석거나 교만에 뿌리를 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실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관적인 말을 하는 것은 속이고 기만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교만 때문에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 악은 눈을 멀게 하고 그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속고 속이는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빵을 빵이라고 부르고, 포도주를 포도주라고 부르십시오.

“너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태오 5, 37).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그냥...”과 같은 변명은 제가 듣고 싶지 않은 세 가지 악마 같은 말입니다. 변명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느님의 자비와 형제들의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모호함 없이 말하세요. 잘못을 색으로 칠하고, 일어난 일을 왜곡하고, 쓸모 없는 말로 장식하는 내 아들은 잘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딸들과 아들들이여, 어리석은 짓을 저지를 때 예술적, 지적, 과학적, 심지어 영적인 이유까지 모든 종류의 이유로 자신의 잘못을 위장하는 경향이 있음을 아십시오!

결국 그들은 계명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말하게 됩니다. 저의 사제생활 지난 43년 동안 길을 잃은 자녀가 있었다면 그것은 그가 성실하지 않았거나 십계명이 구식으로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사실이 아닙니다.

느슨한 행동과 오푸스데이가 요구하는 거룩함을 결합하려고 하지 마세요. 올바른 기준을 세우면 날마다 더 성실해지면 양심은 날마다 더 섬세하고 더 까다로워질 것입니다. 몇 년 전에는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더 큰 연단을 요구하고 그분이 기대하는 대로 응답하는 데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느낍니다.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인류의 위대한 반죽을 발효시킬 누룩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하기 위해 스스로를 형성하기로 결심하고 오푸스데이에 왔습니다. 이러한 형성은 여러분의 특별한 특성들과 함께 인간적 성격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며, 동시에 모두에게 동일한 공통분모인 가족 정신을 여러분에게 부여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을 지도자들의 손에 맡겨야 하며, 도공의 손에 흙을 빚는 것처럼 자신이 초자연적으로 형성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자녀들이여, 우리는 모두 같은 그물에 걸렸고 그 그물은 겸손, 헌신, 일, 사랑이라는 놀라운 정신으로 오푸스데이라는 배 안에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지나가시던 길거리에서 여러분을 발견하셨습니다! 우리는 특별하거나 선택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저는 제가 더 잘 알려지고, 인도받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저는 내면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지시를 받았을 때 자존심 때문에

반항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사회원들의 판단보다 내 자신의 판단을 더 높이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판단을 잘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내 판단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형제들이 형제적 충고를 통해 나를 도울 때 화를 내고 싶지 않습니다.

자녀 여러분, 입안을 달콤한 꿀로 가득 채우는 성경 본문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에페소 1, 4).

그분께서는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여러분이 보답한다면, 고군분투한다면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둠의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을 과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마음을 열면 곧 사라집니다. 걱정되거나 부끄러운 일을 이야기하면 평온하고 고요하며 즐거워진다는 말이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외톨이가 넘어지면 그에게는 불행!” (코헬렛 4, 10).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구상에 어디에 있든 형제자매들은 우리를 애정으로 환영하고,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며, 우리를 이해합니다. 주님과 그분의 복되신 어머니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전처럼 은혜로 우리 영혼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지혜의 술. (1972 년 6 월)

저는 우리 영혼을 우리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그릇에 비유하여 성령의 선물이자 매우 큰 은혜인 지혜의 술을 그 안에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딸과 아들 여러분,

“하느님 권능의 숨결이고 전능하신 분의 영광의 순전한 발산이어서 어떠한 오점도 그 안으로 기어들지 못한다. 지혜는 영원한 빛의 광채이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활동의 티 없는 거울이며 하느님 선하심의 모상이다. 지혜는 혼자이면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자신 안에 머무르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며 대대로 거룩한 영혼들 안으로 들어가 그들을 하느님의 벗과 예언자로 만든다.” (지혜서 7, 25-27).

성령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 마음에 아낌없이 부어 주시는 지혜의 선물, 아름다움에 감탄하세요. 이 선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서는 지혜와 함께 사는 사람만 사랑하신다.” (지혜서 7, 28).

성경의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지혜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각자와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해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자 나에게 예지가 주어지고 간청을 올리자 지혜의 영이 나에게 왔다. 나는 지혜를 왕홀과 왕좌보다 더 좋아하고 지혜에 비기면 많은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며,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석도 지혜와 견주지 않았다. 온 세상의 금도 지혜와 마주하면 한 줌의 모래이고 은도 지혜 앞에서는 진흙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나는 지혜를 건강이나 미모보다 더 사랑하고 빛보다 지혜를 갖기를 선호하였다. 지혜에서 끊임없이 광채가 나오기 때문이다. 지혜와 함께 좋은

것이 다 나에게 왔다. 지혜의 손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산이 들려 있었다.” (지혜서 7, 7-11).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오푸스데이의 정신과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이 영혼에 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익명성을 추구하지 않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거나 들리는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의도를 가지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딸들과 아들들이여, 우리가 우리의 소명에 충실하면 지혜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올바른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두 손 가득히 나누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지혜로워지기 위해 폭넓은 교양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여러 번 말씀 드렸습니다. 가지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것이 없어도 여러분이 충실하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성령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더욱이, 오푸스데이에서 제공하는 양성 수단에 참석하고 연례 피정과 세미나, 월피정을 활용하면 훌륭한 사제가 가질 수 있는 것 만큼 깊은 신학적 형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높은 과학지식을 소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거룩함만이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지극히 겸손하고 자기 희생적이며 거룩하고 놀라운 초자연적 감각을 가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마태오 11, 25).

일부 사람들이 현명하다고 자처하지만 종종 초자연적인 감각이 결여되었습니다.

“하느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느님으로 찬양하거나 그분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게 되고 우둔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혜롭다고 자처하였지만 바보가 되었습니다.” (로마 1, 21-22).

그들은 생각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지혜롭다고 자랑했지만 어리석은 데서 멈췄습니다.

딸과 아들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인격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느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놀라지 않도록 성 바오로와 함께 여러분에게 이 보물을 흠 그릇에 담으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은 하느님의 것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님을 보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쉽게 깨질 수 있을 정도로 약한 그릇입니다.” (2 코린도 4, 7).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속은 깨어진 그릇과 같아 어떤 지식도 담을 수 없다.” (집회서 21, 14).

이 구절을 통해 성령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또는 미친 사람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강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과 직업에서 하느님의 지속적인 임재와 함께 작은 일에도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술이 넘치지 않도록 잔을 깨지지 않게 지켜야 합니다.

모든 것을, 심지어 우리의 열정까지 하느님께 돌린다면 유리잔은 깨지지 않습니다. 열정은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극복하고 건강을 얻으면 하느님과의 더 많은 친분, 더 많은 거룩함을 얻기 때문에 각자는 열정을 정복해야 하며 그렇게 한다면 열정은 선택합니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2 코린도 12, 9).

여러분이나 제가 내면의 삶,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를 미친 사람이나 코미디언처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영혼이 이 내면의 길을 따르도록 설득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느님과 우정을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느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와 형제, 모든 영혼을 위한 위대한 봉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빛으로 여러분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지혜의 그릇을 깨뜨리고 삶의 일치를 빼앗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짐승을 품고 있다고 느낄 때 놀라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많은 일을 겪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오후스데이의 찬란한 현실을 목상하며 하느님과 교회, 일에 대한 자녀들의 충성심을 볼 때면 꿈만 같습니다. 때때로 누군가가 길가에 쓰러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올바른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잘 선별된 식품을 섭취하더라도 모든 것이 흡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떠난다는 사실이 그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큰 눈물을 흘리며 오지만 절망적입니다.

이러한 불행은 우리 모두, 내 딸과 아들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땅에 있는 한 저도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가 있다면, 그리고 제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야기하면 괜찮습니다. 알려지고 싶지 않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야기를 멈추지 마세요. 즉시 말하세요. 그 전에,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라도 말하세요. 꼭 말하세요. 가장 큰 죄는 교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교만은 매우 눈을 멀게 합니다. 오래된 금욕주의 속담이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욕망이 있다면 교만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사랑의 적은 언제나 교만이기 때문에 겸손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만은 최악의 열정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뛰고

우리가 옳고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이유없는 추론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외적으로만 사실입니다.

자녀들이여, 겸손합시다. 위축된 모습으로 거리를 걷는 사람들처럼 가식적인 겸손으로 겸손하지 마십시오. 무술의 체력을 가지면서 동시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작고 깨지지 않는 의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약한 인격이 아닌 완전한 인격, 그려진 것이 아니라 조각 된 인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릇은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충실하고 충성하세요! 우리는 온실 속 화초가 아니기 때문에 살다 보면 충실하지 못하고 충성스럽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추위와 더위, 눈과 폭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바람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때때로 먼지가 쌓이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혜가 비처럼 내리면 곧 깨끗하고 아름다워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않으면 언제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어머니의 사랑에 부응하고 충성하기 위해 어떻게 일을 잘하고 충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매우 쉽고 또 쉽습니다. 우선, 여러분은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항의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형성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저는 일흔 살이지만 여전히 제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본인 인식이 어떤 상태일까요?

저는 형제적 충고를 받지는 않지만, 두 명의 형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해줘서 마음을 다해 감사합니다. 형제적 충고를 실천합시다! 그것은 우리가 성가시지 않도록 설정한 조건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섬세한 방법입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성가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는 사람은 감염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메스를 사용하는 의사에게 감사하는 것처럼 그것을 주는 사람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행동하세요. 오후스데이에 와서 자신의 개성을 잃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양성, 건강한 다원주의는 좋은 정신의

표현입니다. 스스로 행동하면 아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후스데이는 자녀 각자의 존재 방식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자유를 잃지 않으면서도 자유를 포기합니다. "좋으니까 이렇게 해요! 내 맘대로 해요!" 이것이 가장 초자연적인 이유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두 형제를 화해시키며 노력하는 올곧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은혜로 지성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관능이 있습니다. 이 두 형제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생을 함께합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형이 감각적인 동생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최고의 선물, 낙원, 영원한 행복을 갈망합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은혜로 믿음과 지성의 충동입니다. 또한 우리의 동생인 관능이 천국에서 하느님을 누리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삶의 일치가 여러분 각자와 전체 사업에 대한 주님의 선하심의 결과이며, 여러분 개인의 투쟁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것을 희망합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평화는 우리 자신과 악한 성향과의 놀라운 전쟁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전쟁은 평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평화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삶을 이끄는 것이 신성한 은총과 함께 지성이 아니라 낮은 세력일 때 평온을 잃습니다. 자신을 모든 잔학 행위를 저지르는 괴물로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승리의 결과인 평화로 안전하게 끝까지 갈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손에 손을 내밀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안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아닌 승리입니다.

자녀들이여, 생명의 단결. 투쟁. 제가 앞서 여러분에게 말한 그릇이 깨지지 않도록 합시다. 마음이 온전하고 하느님께 향하도록 합시다. 개인적인 교만의 불행이 우리를 막지 못하도록 합시다.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바치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도시로 가기 위해 걷는 사람은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고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느님의 도움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여러분이 싸우고 충성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벽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을 추스르고 더 결연한 의지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투에서 패배할 수 있지만 전쟁에서는 승리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패배한 전투도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깨진 꽃병의 조각을 이어주는 모든 쇠붙이는 훈장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꺾쇠를 숨기지 않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하느님과 저의 눈에는 고친 도자기 그릇이 새 그릇보다 더 우아합니다.

제가 평소에 뭘 하는지 아세요? 훌륭한 군대 장군처럼요. 저는 선봉에서 요새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전선에서 여기저기서 싸웁니다. 저는 다른 사제들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으로 저를 보호하는 성벽을 쌓는 데 노력합니다.

저도 싸워야 하고, 저에게 맞는 곳에서 싸우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 성취되지 않으면 잘못도 아닌 것들에 대해 멀리 떨어져 싸우려고 노력합니다. 각자는 거룩한 것을 위해 병사가 되어 자신에게 맞는 전선에서 개인적인 투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투쟁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한,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총을 주시고 계속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은 항상 존재하지만 과장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대개 작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 세계에 풍부한 성소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일과 희생 정신을 요구하는 사도직이 번성할 때 많은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임무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아들 딸들이 각자가 있는 곳에서 각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오후스데이에 등장하는 하느님의 자녀들은 빛과 불이며, 종종 타오르는 불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주변의 모든 것을 발효시키는 누룩입니다.

다른 가난한 사람들과의 대조가 너무도 분명하지만 교만이나 오만함으로 가득 차지 맙시다.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알고 모든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합시다. 하느님께서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도 그분의 은혜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맑은 빛이기에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불행과 불완전함, 실수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자비로 지혜와 선으로 채우시려는 그릇을 깨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함이다.” (이사야서 11, 2).

그리고 이러한 헌신과 함께 우리가 유순하면 하느님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합시다. 무기력한 영혼의 유순함이 아니라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 감성을 복종시키는 방법을 아는 지성으로 유순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지성과 감성은 같은 상속을 받게 될 두 형제입니다. 둘 다 이미 이 땅에서 하느님의 자녀이며 하늘에서도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코 깨진 그릇이 되지 않을 것이며, 지혜의 신성한 술은 우리의 삶에서 항상 우리를 취하게 할 것입니다.

“밤은 빛을 밀어내지만 악은 지혜를 이겨 내지 못한다.” (지혜서 7, 30).

감사의 시간. (1972 년 12 월 25 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루카 2, 11).

딸과 아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아기 예수님 앞에, 그분의 어머니이시며 우리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격려와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영광스러운 성 요셉과 함께 우리 자신을 놓았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육신을 입기를 원하신 이후 수 세기가 지났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심지어 그분의 명령을 멸시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이것은 먼 땅에서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그리스도교인이라고 부르는 소수의 국가와 로마 가톨릭 교회 자체에서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성탄절은 슬픈 날이 아닙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루카 2, 10).

주님과 동정녀이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의 이 놀라운 축일은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모든 기독교인을 위한 축일이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많은 곳에서 이 축일은 이교도 축제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를 비 그리스도교 하려는 대대적인 선전의 결과입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잃지 않도록 인내심을 길러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께 이 모든 악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처럼 기도를 시작하고 마칠 것입니다. 우리는 더 평온하고, 더 낙관적이며, 입술에 새로운 미소를 띠고, 마음에 새로운 기쁨을 느끼며, 매일 더 거룩해지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마칩니다.

그러나 딸과 아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의에 반하는 엄청난 캠페인이 조장되어 양심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회의 평화 부족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를 매우 고통스럽게 합니다. 사람들은 속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해방이 아닌 다른 해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 설교, 신성한 사랑의 시인 팔복 등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지상의 행복만을 추구합니다.

자녀 여러분, 영혼은 영원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지상에 머무릅니다. 환상을 갖지 마십시오. 고통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여정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고통이 없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실패할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괴로움을 악화시키는 데만 성공할 것입니다.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이 노력하는 것은 자선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고통이 축복과 선과 힘의 원천임을 감히 긍정해야 합니다. 고통은 하느님의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정화하고 영원한 행복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불입니다. 이야말로 천사가 예수님을 찾도록 우리에게 암시한 표징이 아닙니까?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루카 2, 12).

주님께서 베들레헴과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들이셨듯이 우리가 고난, 하느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구원이 주권적인 뜻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십자가는 무겁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거나 적어도 예수님이 직접 지고 가셨기 때문에 무겁지 않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마태오 10, 38).

하지만 오늘날 이 단어는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필리피 3, 18).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리, 성사에 반대하는 끈직한 캠페인을 조직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를 바꾸어 인간을 모든 것의 최고 정점으로 삼는 현세적 목적의 기관, 인간 중심적인 기관으로 축소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주님이 창조의 시작과 끝이자 중심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요한 1, 1).

자녀들이여, 모든 피조물을 그리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요한 1, 3).

그리고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사시면서 우리가 일시적이고 덧없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 이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배움으로써만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하느님 중심적이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피조물을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만이이십니다. 그리하여 만물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십니다. 과연 하느님께서서는 기꺼이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콜로새 1, 18-20).

우리의 마음과 행동뿐만 아니라, 사도적 열망과 일을 통해 모든 인간 활동의 가장 높은 곳에 그분을 모시도록 합시다.

갓 태어나 무력하고 우리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하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나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사랑하라고 간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까? 이러한 생각은 어리석은 상상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수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께서 우리 육신을 입기로 선택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는 증거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옷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육신하셨습니다.

“참 하느님이시여, 참 사람이십니다.”

수년 전, 저는 침대 머리맡에 이런 글귀를 붙이고 싶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시고 사람이시다”.

비록 지금은 영광스러운 몸이지만 그분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셨다는 사실이 저를 감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죄를 제외한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을 겪으셨다는 사실이 저를 감동시킵니다.

저는 그가 배고픔과 목마름, 시카르 우물가에서 정오에 더위를, 베들레헴의 밤에 추위를 겪으셨다는 것을 알고 감동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에 빠지게 하고, 사도들처럼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목자들처럼, 서둘러 갑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는 길을 떠나 자신을 내어 주셨고 매일 제단에서 자신을 내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갈보리의 신성한 희생을 영속시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영구한 사제직을 지니십니다.” (히브리인 7, 24).

그분의 사제적 중재는 제단 위에 계신 그리스도 자신인 사제들을 통해 실현됩니다. 거룩한 미사를 집전할 때 저는 어떤 집회를 주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희생을 새롭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력하게 태어나신 베들레헴의 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분이 더 무력하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성막이라는 또 다른 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지에 몰리시고, 물리적으로 외면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학대당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자녀 여러분, 제가 이미 다른 기회에 여러분에게 상기시켰던 것과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교인들이 살아온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믿고 함께 구속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지성과 마음, 말과 팔을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무방비 상태의 그리스도님은 구속 또한 우리에게 달려 있음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그 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 (루카 2, 15).

자녀 여러분, 우리는 좋은 시간에 왔습니다. 오늘 밤은 영혼들에게 매우 나쁜 밤이기 때문입니다. 빛을 발해야 할 위대한 빛들이 어둠을 퍼뜨리는 밤입니다. 세상의 부패를 막기 위해 소금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어리석고 때로는 공개적으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고는 이러한 재앙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의 자녀 여러분, 하느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풍성한 이익과 열매 맺는 평화를 얻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참회를 고집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올바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좋은 도구의 유순함으로 충실히

응답하겠다는 결심을 키울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즉 허세없는 진정한 겸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더럽혀지거나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무관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어리석은 일을 스스로에게 뒤집어씌우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은 진리이기 때문에 위선이 있는 곳에는 겸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무한한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하느님은 우리의 동의 없이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거나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밭이 이 열매를 맺고 저 땅이 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한 영혼이 거룩하고 다른 영혼이 많은 선행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루카 18, 19).

그분은 밭을 비옥하게 하시고, 씨앗에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메말라 보이는 말뚝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은총으로 인간의 본성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다가올 삶, 즉 영원한 행복과 사랑을 기대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녀 여러분, 겸손은 이를 이해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심는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라게 하시는 하느님만이 중요합니다.” (1 코린토 3, 7).

우주의 주인이신 만유의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실까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기독교 전통이 있든 없든 모든 나라의 캐럴은 이미 오셨던 만왕의 왕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구유에서!

베들레헴에서 우리의 창조주께서는 모든 것이 부족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겸손은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음식 맛이 없어지지 않도록 소금으로 간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딸과 아들 여러분, 이런 비유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 말은 4 세기 이상 영적 저술가들이 사용해 왔습니다.

알을 하나 낳자마자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울어대는 암탉처럼 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일해야 하고, 지적 또는 육체적 일을 수행해야 하며, 항상 사도적인 자세로 하느님을 섬기고 눈에 띄지 않으려는 큰 의도와 큰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그것을 현실로 바꾸어 주십니다.

자녀 여러분, 요셉의 보호 아래 어머니의 품에 안긴 갓난아이처럼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방법입니다. 요셉은 주님에 의해 이 땅의 아버지가 되도록 선택받은 하느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시선, 그의 일, 그의 팔, 그의 노력, 그의 인간적인 수단으로 신생아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요셉의 겸손함과 능력을 닮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십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옛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잃어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 우리 하느님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저는 때때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충성심에 대한 보상의 보증으로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말하세요: 네, 주님, 사실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보잘것 없는 저인데도 광야 한가운데서 열매가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쉬지 않는 악마가 당신 것이 아닌 것에 대해 공로를 돌리도록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욕망, 말과 행동, 일이 헛된 자만심과 어리석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악마에게 “맞아, 나에게는 열매가 있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특히 감사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제가 전례에서 발췌한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지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의 시간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대해 끊임없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단 것과 쓴 것, 검은 것과 흰 것, 작은 것과 큰 것, 적은 것과 많은 것,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올해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충실함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불충실하지 않고 영혼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 결심을 하도록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의 불충실함에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주의를 기울이고 그분의 이름에 끊임없이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거룩한 구속 사역을 돕는 것 외에 다른 소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 성부와 성령을 아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모 마리아를 통해, 그리고 성 요셉과 거룩한 수호 천사들과의 관계를 통해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에게 썼듯이, 나쁜 열매, 마른 가지, 줄기 밑에 묻힌 낙엽도 떨어진 나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 우리가 원하지 않고 혐오하는 죄가 왜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통회하고 부끄러움과 더 나아지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은혜에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겸손을 통해 죽었던 것이 생명이 됩니다. 불임과 실패로 끝날것 같았던 것이 승리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매일 미사를 봉헌할 때 성체를 봉헌할 때 저는 아프거나 고민이 있는 모든 자녀들을 성체 위에 올려놓습니다. 저는 또한 여러분이 때때로 기분이 좋아서 스스로에게 가져오는 거짓 걱정도 추가합니다. 주님께 이 어리석은 것들을 여러분의 머리에서 없애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가자 목자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루카 2, 15).

하느님의 아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는 거인 옆에 있는 난쟁이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우 작고 겸손한 동시에 위대하고 광대하며 무한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올해, 그리고 평생 영원토록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레고리오 성가로 된 서문이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는지!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녀 여러분, 겸손은 부족하면 다른 어떤 것도 없을 정도로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면의 삶에서 겸손은 모든 음식에 간을 맞추는 소금과 같습니다. 어떤 행위가 고결해 보이더라도 그것이 교만, 허영심, 어리석음의 결과라면 그것은 고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섬기고 영혼의 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광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며 행동한다면 그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집중할 때, 칭찬을 받을지 비난을 받을지 생각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큰 해를 끼칩니다. 우리는 오직 하느님께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 오후스데이에 속한 우리 모두와 세상의 모든 영혼은 예외 없이 그분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방해하는 ‘나’를 버리세요.

딸과 아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얼마나 많은 불편이 사라질까요! 얼마나 많은 좋지 않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나쁜 시간을 보내고 영혼이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몰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그분의 관심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만을 키우는 데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을까요?

자신에게 집중하면 잘못된 길을 택할 뿐만 아니라 이생에서 그리스도인의 행복도 잃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과 행복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만 행복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영적 책에서 아주 높고 곧게 뻗은 가지를 가진 나무는 열매가 없는 나무라고 읽었습니다. 반면에 낮고 처진 가지를 가진 나무는 크고 맛있는 과일이 가득합니다. 가지가 땅에 가까울수록 열매가 더 풍성해집니다.

자녀 여러분, 겸손은 참으로 소중한 덕목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어리석은가요? 항상 우리 것이 최고라고 확신하고, 항상 우리가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각설탕에 베어들 듯이 허영심과 교만도 영혼에 스며듭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겸손해야 합니다.

악마가 당신에게 당신이 훌륭하다고 제안할 때 거짓된 암시를 거부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아주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 하느님을 의지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빚지고 있습니다. 감사를 새롭게 합시다.

계속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녀 여러분, 감사는 겸손을 파괴하지도 않고 교만으로 영혼을 채우지도 않는 거룩한 자부심에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하느님의 능력에 기초하고 사랑과 투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로마 6, 4).

한 해가 시작되고 결심을 새롭게 다지는 지금, 우리는 이미 다가올 모든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치형 구조물의 외관에 놓일 돌은 어떻게 작업하나요? 이 돌은 기초에 놓일 돌과는 다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 돌은 아름답게 마무리될 때까지 여러 번 두드려서 잘 다듬어야 합니다.

자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개인적인 좌절과 굴욕, 사람들이 악이라고 부르지만 악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자녀에게 그것은 우리를 모든 사람의 눈에 띄기를 원하시고 확실하고 확실한 타격으로 우리를 조각하시는 신성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저항하지 않고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그분과 협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적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님께서 그분의 은총으로 그분의 뜻을 더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길든 짧은 지속되는 한, 비록 우리가 더러움이나 허영심, 어리석음의 심연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아버지 하느님께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개인적인 겸손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오푸스데이에 나오는 하느님의 딸과 아들들에게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하고 헛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땅에 무너질 때까지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공기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지도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외부에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봅니다. 기껏해야 우리는 바닥 기초에 쓰일 돌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치의 주춧돌 안에 있는 돌이 아닙니다.

이번 성탄절에 모든 딸과 아들이 더 겸손해지기로 한 결심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알고 있으며, 가져야 할 열매가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여러분의 기쁨이 이미 보입니다. 진정으로 부끄러워하며 베들레헴 문에 다가 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저를 위해, 그리고 지금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아이처럼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찾으셨으니 하느님께 감사로 나아갑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잎이 무성하고 때로는 열매가 있지만 가지를 구부리지 않는, 헛되고 공허하며 무게가 없는 잎만 많은 나무에 불과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잘 익고 넘쳐나는 과일은 입맛에 달콤하며 겸손하게 나무의 가지를 내려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더욱 겸손해지려는 마음으로 베들레헴과 성막에 다가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께 애정의 말을 건네보십시오. 당신의 약점을 말씀하세요. 저도 제 약점을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수행하면서 큰 기쁨과 그분의 은혜로 열심히 일했음을 인정합시다.

그분께서 우리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성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은총을 보내십니다. 그분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영혼을 다루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 조항입니다. 도구는 열매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맛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며 모든 것이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보탭니다. 교회를 위해 계속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다해 교회와 교황을 사랑하세요. 성모님과 함께 성 요셉의 부성애 아래 우리

모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께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도록, 저의 미사 지향에 더욱 굳게 일치합시다.

하느님을 섬기는 기쁨. (1973 년 12 월 25 일)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가, 용맹한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라 불리리이다.” (이사야서 9, 5).

사랑하는 딸과 아들 여러분, 우리는 이 엄숙한 날을 위해 하느님을 위한 성탄 장면을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기억하시나요? 포도주 병마개로 산 모형을 만들고 작은 집들, 하느님께서 태어나실 구유 주변의 작은 모형들로 성탄 장면을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기억하시지요?

오푸스데이는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 어린이가 된 성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매일 더 작아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시절보다 더 큰 열정으로 영혼의 친밀감 속에서 베들레헴 구유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거룩한 날이 밝았도다 너희 민족아 와서 주께 경배하라 이는 오늘 큰 빛이 땅에 임하였음이니라”. (미사의 기도).

주님께서 세계 곳곳에서 찬미 받으시고, 전 세계에서 애정 어린 환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모르거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무관심한 침묵을 우리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며 덮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 노래들은 그리스도교 전통이 강한 모든 나라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부르는 노래입니다. 가사는 항상 아기 하느님을 만나고 묵상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있지요? 목자들이 그 멋진 밤에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서둘러 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이가 구유에 기대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루카 2, 16).

합리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마주보려고 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을 바라보는 눈만 있습니다. 그래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이러한 욕구를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싶은 욕망에 감동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시편 27, 8). 눈을 감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분을 뵈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1 코린토 13, 12).

네, 자녀 여러분. “제 영혼이 하느님을, 제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합니다. 그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나 가서 뵈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42, 13).

제 영혼의 자녀들이여, 이미 우리는 그분을 보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오푸스데이에 대한 성소를 관상적 성소라고 정의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에서 하느님을 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건, 위대해 보이는 것과 작아 보이는 것,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과 고통스럽게 여기는 모든 것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항상 하느님 앞에서 살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지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 조금 부끄러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제 저는 오푸스데이에서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아기 하느님께서 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이 시대에 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주님, 주님의 은총으로 저와 같은 열정을 가진 어린 아이들이자 강한 영혼인 모든 딸과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가 신실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은 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아버지께서는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로 저희 마음의 눈을 새롭게 밝혀 주시어 하느님을 눈으로 뵙고 알아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셨나이다.” (주님성탄 감사송)

우리 모두 사랑으로 그분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제 고향에서는 가끔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 신부를 바라보는 신랑, 남편을 지켜보는 아내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고귀하고 깨끗한 인간의 애정입니다. 우리는 구세주의 오심을 되새기며 그분을 그렇게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순수한 동정녀이신 어머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반복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하느님의 어머니를 옹호하고 축복해야 할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부조리와 공포를 퍼뜨린 적은 없었습니다.

교회는 순수하고 깨끗하며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추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실했을 많은 사람을 속였습니다. 그 힘없는 아기가 당신의 목에 팔을 던져 당신이 그를 당신의 마음에 가깝게 안고 평온함과 인내와 기쁨으로 속죄하려는 확고한 결심을 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난 10 년 동안 모든 성사가 하나씩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참회의 성사가 공격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사악한 방식으로 제단의 가장 거룩한 성사, 미사의 희생 성사. 여러분 각자의 심장이 쿵쾅거려야 하고, 그 피의 감동으로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을 부드럽게 위로하는 것처럼 주님께 속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 (필리피 4, 6-7).

우리는 성모 마리아를 찬양하고 보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성 요셉께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나의 아버지이자 주님이라고 부르며 그분을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그분을 아주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나의 착한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매우 깨끗하고 정직함으로 가득 찬 젊은이였으며, 하느님께서 그와 그의 어머니의 수호자로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요셉, 마리아, 예수님과 함께 베들레헴 구유에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는 기쁜 빛으로 가득하고 너의 마음은 두근거리며 벅차오르리라.” (이사야서 60, 5).

이 친숙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저는 성 요셉에게로 향하고 그분의 강한 팔, 일꾼의 팔에 매달립니다. 그분은 깨끗하고 올곧은 것, 매우 인간적이면서도 동시에 신성한 매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분의 팔을 붙잡고 저는 그분의 가장 거룩하고 흠 없는 아내이신 성모 마리아께 저를 인도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분은 저의 어머니이시니 저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딸들과 아들들이여, 이 모든 것은 코미디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에서 우리가 가족을 대할 때 자주 하는 일입니다. 나사렛의 가정을 알고 함께하는 신성한 것으로 승화된 인간의 방식입니다.

아버지는 매일 주님을 성찬으로 영접합니다. 네, 제가 매일 아침 주님을 제단에 모십니다. 이 얼룩진 손은 매일 하느님을 위한 보좌입니다. 그 순간 저는 그분께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 마리아, 요셉이 만드시는 세상의 삼위일체에 대할 때 저는 여러분에게 마음을 여는 데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저는 대천사와 수호 천사를 부르며 그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어떻게 나의 하느님을 찬양하려 하는지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머리를 땅에 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한다고 반복해서 말하지만, 제가 그분을 그렇게 많이 화나게 했다면 어떻게 제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하는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불쾌하게 한 것과 모든 영혼이 당신을 불쾌하게 한 것에 대해 속죄하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께 바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당신의 탄생, 당신의 삶, 당신의 열정, 당신의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의 무한한 공덕으로 보상을 하겠습니다. 또한 당신의 어머니의 공덕, 성 요셉의 공덕, 성인들의 덕, 그리고 우리가 온 영혼으로 필멸의 죄와 고의적인 육체적 죄를 혐오할 때 하늘 빛의 보석처럼 빛나는 제 자녀들과 제 약점도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이미 제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저는 분명한 믿음의 행위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빵과 포도주 안에 숨겨져 계시며 진정으로 현존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와,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신성과 함께 계십니다.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딸들과 아들 여러분, 예수님을 대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애정을 주저하지 마세요. 신성에 대한 이러한 사랑의 광기는 개인적인 삶에서 개선, 개혁, 정화의 구체적인

결의로 귀결되기 때문에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하신 인성과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에도 도달하려면, 먼저 명상을 통해 눈을 감고 상상력과 이해력으로 사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복음서나 다른 도서를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때때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데려가셔서 준비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이미 묵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화나 묵상이 저절로 쉽게 나옵니다.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겨레들을 덮으리라. 그러나 네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이사야서 60, 2).

우리의 구속자 앞에 설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당신을 숭배합니다; 당신의 용서를 구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고, 정화하고, 나를 깨우치고,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따를 수 있는 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 길이 저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가 개인적으로 등을 준비하고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약간의 빛을 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거룩한 복음을 읽고, 완전한 하느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가장 거룩한 인성을 사랑하고, 사도들과 성녀들이 살았던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이 살았던 것처럼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 청하는 것이 하나 있어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리라.” (시편 27, 42).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할까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달라고 간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요한 14, 6).

성부와 성자와 함께 우리는 성령을 부르며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를 섬길 것입니다. 따라서 지상의 삼위일체를 이루는 예수님, 마리아, 요셉을 통해 여러분 각자는 하늘의 삼위일체를 이루는 성부, 성자, 성령께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혜로 가장 높은 하늘과 구유의 겸손한 비참함과 가난에 우리 모두 머물기를 원합니다.

자녀 여러분, 오후스데이에서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고 또한 우리를 낮추십니다. 굴욕은 맛있고 달콤하며, 우리가 사랑으로 감당한다면 하느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목적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항상 감사합시다. 이제 딸과 아들 여러분, 감사를 버리지 말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시편 100, 2).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필리피 4, 4).

항상 기뻐하십시오. 시민 사회 혹은 교회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과 어려움에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 시대에 더욱 기뻐하십시오. 모든 개인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십시오.

인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한 보혈로 대속 되었으니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자녀 여러분, 주님은 그분의 피를 한 방울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입니다.

“우리 하느님은 인자하신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느님이십니다.” (2 코린토 1, 3).

그분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청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히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에페소 3, 20).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할 수 없고, 실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구속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신성한 능력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필리피 4, 4).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고 가톨릭 신앙의 아름다움을 지키며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용서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사과해야 합니다. 평화를 빼앗는 것은 사소한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용서하세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은 불의가 아닙니다.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사건의 배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 레시피를 사용하면 행복하고 즐겁고 고요해질 것입니다.

딸과 아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매우 행복하고 희망 찬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 주님께서 그의 교회에 자비를 베푸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우리는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준 용서의 구체책에 많이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용서는 완전히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선물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방법을 모릅니다. 우리는

내면의 삶과 성소를 통해 하느님의 삶에 참여하는 한도 내에서 용서하며, 가능한 한 이에 부합하려고 노력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를 낼까요? 슬퍼할까요? 자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루카 18, 1).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어도 절대로 다투거나 우리의 길을 포기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흠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함에서 오는 힘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우리는 매우 연약한 흠, 토기 점토로 만들어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큰 어리석음을 저질렀을지라도 땅의 삼위일체와 하늘의 삼위일체를 대하려고 노력하면, 진심으로, 충성스럽게 보상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추락 후 날개에 달라붙은 진흙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처럼 부리로 깃털을 다시 닦아야 할 것입니다. 그 후 우리는 더 많은 기쁨으로, 더 단호하고 더 겸손하게 만드는 경험 덕분에 다시 날아갑니다.

제 영혼의 자녀들이여, 그러므로 투쟁하고 행복합시다!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시편 100, 2).

우리의 어리석음을 전파합시다.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는 평화와 기쁨, 상호 사랑의 씨를 계속 뿌릴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악을 바라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신속함이 오푸스데이의 정신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용서는 신성의 표현이기 때문에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신성한 정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과 그분의 교회의 명예와 영혼의 선이 요구할 때, 우리는 말과 글로 표현해야 합니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필리피 4, 4).

세상, 특히 교회가 그림자와 불행으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행복하고 평온하세요. 의도를 정직하게 행동하십시오.

현세와 영원한 행복만을 생각하며 주어진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행동하십시오. 넘어지면 새로운 원동력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그러면 기쁨은 가장 큰 모순 속에서도 하느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열매인 내적 기쁨은 그리스도인, 오푸스데이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희망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에서 얻는 모든 기쁨과 평화로 채워 주시어, 여러분의 희망이 성령의 힘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로마 15, 13).

“주님, 제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1974 년 12 월 25 일)

세상은 혼란스럽고 교회도 혼란스럽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은 교회도 혼란스럽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루카 18, 41).

복음에 나오는 눈먼 이의 외침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자리하여, 우리가 세상의 사물을 확실히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렉터들의 지시에 따라, 여러분에게 지시된 몇 가지 사항에 순종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께 여러 번 기도드리며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진정한 혁명 속에서, 우리가 사물을 분명히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다른 혁명은 사탄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로마 교황을 날마다 점점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상에서 순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날마다 점점 더 사랑합니다. 로마 교황, 이 얼마나 아름다운 칭호입니까!

가장 복되신 삼위일체를 매우 사랑하십시오. 하느님의 어머니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을 가지고 그분을 여러 번 부르십시오. 그래야만 잘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연합시키셨기 때문에 요셉과 예수와 마리아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각자는 자신의 의무, 즉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모든 순간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순서대로 일을 하면 그 일이 하느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위해,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을 부추깁니다.

진리에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똑같이 말을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소유하셨습니다. 감실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실제로 그분의 몸, 그분의 피, 그분의 영혼, 그분의 신성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행위를 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나사렛에서 일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 갈보리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사랑을 위해 고난을 받으신 분이 감실에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나요? 사랑! 우리의 삶은 사랑이야 합니다. 사랑스럽지 않거나 사랑이 부족한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사랑, 즉 사랑의 행위여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오푸스데이를 이끌고 계십니다. 전 세계에 신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에서도 많은 회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살고 예수님과 마리아, 성 요셉에 대한 우리의 끊임없는 헌신에 달려 있습니다.

자녀들이여, 제가 무뚝뚝하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조금 피곤할 뿐입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시다.”주님,

제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 영혼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순종의 눈으로, 제 삶의 청결한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몰아내려는 반란이 일어나고 있기에,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옹호할 수 있도록 저의 지성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마귀는 존재하며 열심히 일합니다. 마귀는 교회를 파괴하고 우리의 영혼을 훔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성한 길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특별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매일 싸워야 하며 우리 삶의 마지막 날까지 싸워야 합니다! 투쟁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 깊은 곳에서 자신이 겁쟁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외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주님, 제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루카 18, 41).

우리 각자는 선한 영에게 모든 도움을 보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쁜 영혼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우리에게 와서 안 되는 썩은 피를 보낼 것입니다.

아버지, 울었어요? 네, 조금요. 남자는 누구나 가끔 울어요. 많이는 안 울지만 가끔은 울지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동물들만 울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모 마리아의 가장 달콤한 마음을 가운데 두고 온 마음을 다해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를 잘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무도 외롭지 않게 하십시오!

자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누구도 나쁘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제와 진실이고 20 세기 전에도 진실이었던 것은 지금도 여전히 진실입니다! 거짓은 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악덕이었던 것은 미덕이 될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악덕입니다!

자녀 여러분, 이런 시작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기쁨을 되찾으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아버지는 매우 행복하며 전 세계의 딸과 아들이 매우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마리아, 요셉의 삼위일체를 마음으로 불러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하며 세 분 모두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과 사탄의 모든 속임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각자는 오후스데이의 위대한 가족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제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지만 일은 인간적일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과 대화할 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 바오로와 함께 우리의 대화가 하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기쁩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는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고, 참으로 마음을 다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기도를 함께 해 봅시다.

주님, 제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각자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모든 영혼이 예외 없이 그 신성한 빛을 구하게 하소서!

하느님의 길. (1975 년 3 월 19 일)

오늘 밤 저는 몇 년 전의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젊다고 말하며 이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하느님의 제단으로, 제 기쁨과 즐거움이신 하느님께 나아가오리다.” (시편 43, 4).

저는 하느님의 젊음으로 젊습니다. 하지만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 중에 저는 평의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제 손을 잡으셨던 방법을 항상 보여 주셨습니다. 제가 사랑을 엿보기 시작한 것은 열네 살이나 열다섯 살 때였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큰 것을 요구하시고 계시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무언가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사제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지요. 저의 아버지는 예상하지 못하셨어요. 예전에 말했듯이 그때가 유일하게 아버지의 눈물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아들, 네가 거룩한 사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 왜 사제가 되고 싶니? 하지만 네가 원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사제인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러 가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몰랐지만, 분명 저는 선택 받았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저는 제가 그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짓 겸손이 아닌 제 자신을 아는 결과로 저는 “나는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정의 기도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 번 작성하였고 많은 것이 인쇄되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동안, 평소 사용하던 묵상집을 읽고 있었습니다. 약간의 편집만 하면 정말 멋진 책입니다. 저는 그런 도구가 있다는 사실과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면서 저는 놀랐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다시 한번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있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시려고, 이 세상의 비천한 것과 천대받는 것 곧 없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1 코린토 1, 28).

하느님께서 저를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워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제가 모든 굴욕과 수치스러워 보였던 일들을 꺾게 하시고 준비시키시려고 저를 제일 아프게 하는 주변 사람들을 더욱 강타하셨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의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기쁘게 이 말을 합니다.

온갖 종류의 굴욕이 있었지만 부모님과 여동생 카르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 있게 견뎌냈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하느님의 일과 관련된 제 동생 산티아고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을 때 무엇을 할까요? 수단을 사용하지요. 저는 어떤 수단을 사용했나요? 제대로 행동하지 못했지요. 심지어 겁쟁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겁쟁이라고 해도 화내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의 진흙과 나의 진흙, 자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드리드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저는 힘을 찾았습니다. 매일 몇 시간씩 이곳 저곳을 걸어 다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불쌍한 사람들 사이를 걸어서 이 곳 저 곳으로 다녔습니다. 그들은 입가에 콧물을 물고 지저분하지만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을 가진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고해성사에 가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사제 영혼이 얼마나 분개하는지!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청각적이고 비밀스러운 개인적인 고백을 해야 하며,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저는 병원과 아픈 사람들이 있는 집, 판잣집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집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이었으며, 일부는 당시 불치병이었던 결핵을 앓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찾기 위해 이 모든 곳을 찾아 다녔습니다. 그 동안 저는 제 주변의 첫 번째 사람들을 훈련하고 일했습니다. 대학생, 노동자, 소상인, 예술가 등 거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들 중 인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의 게으르고 비겁한 마음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시절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오푸스데이가 내적으로 성장하고 있던 격렬한 시기였으며, 나중에 언젠가 문서와 논문을 통해 더 자세히 말씀 드리겠지만, 지금은 마드리드 병원의 환자들이 오푸스데이의 인간적인 힘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가장 비참하고 모든 희망을 잃은 사람들, 교외에서 가장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설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마음을 조금 열려고 왔습니다. 거의 그런 적이 없으며, 제가 마음을 열면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푸스데이의 야망과 우리가 실천하는 인간적 수단은 바로 이것입니다. 불치병에 걸리고, 버려진 가난한 아이들, 가족이 없고 문화가 없는 아이들, 불도 없고 따뜻함도 없고 사랑도 없는 집들. 동시에 저는 다가오는 첫 번째 아이들을 형성하며 미래에 이루어질 모든 일에 대해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완전히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확실히 많은 일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너무 적습니다.

이제 주님, 오푸스데이의 길이 길을 잃지 않고 선한 정신을 잃지 않도록 충분한 물질과 형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 앞에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 다음과 같이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는 거의 50 년 동안 일해 왔지만 아무것도 할 줄 몰랐습니다. 저의 덕이 부족했는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저는 코미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얼마나 많고 많은 감사를 주님께 드려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내면의 삶의 구체적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무엇을 찾고 있었습니까? “성모 마리아의 성심, 우리에게 안전한 길을 준비해 주소서!”

저는 영적인 어린 시절을 보내는 어린아이처럼 하느님의 어머니의 힘을 구했습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이자 주님이신 성 요셉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위대하고 신성한 성가족의 가장에게 하느님 자신도 순종하신 분인 그분의 권능을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루카 2, 51). 저는 서툴지만 경건한 라틴어로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성 니콜라스, 집을 돌봐 주십시오!”

10 월 2 일, 쿠아트로 카미노스 옆에 있는 누에스트라 세뇨라 데 로스 앙헬레스 마드리드 본당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던 날, 수호 천사에게 헌정하러 갔습니다. 지금은 거의 완전히 사라진 곳입니다.

현재 토레스우다드에 있는 종 하나를 제외하고는 종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의 마음으로 자신있게 대천사에게 갔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 만세!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사람이 수단도 없고, 나이도 적고, 지식도 없고, 미덕도 없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와 아버지께 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영적인 삶에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규율의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고행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자녀 여러분, 오늘 아침 저의 기도를 조금 들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끄러움과 감사, 그리고 더 많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은 많지만 미미합니다.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에서, 오세아니아에서.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일입니다. 모든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 일입니다.

나이가 많고 교육 수준이 높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제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은 미쳤다"고 말할 것입니다. 제가 종종 느끼지 못하는 이 광기 어린 사랑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지구상에서 가장 혼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그들이 어디에서나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제가 선하고 신실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너무 외롭습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위로와 힘이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고 섭리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변함없이 아버지처럼 저에게 힘이 되어준 여러분의 형제자매들이 부족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녀들이여, 우리의 모든 힘을 빌려서 싸워봅시다! 환상은 버리고! 우리가 투쟁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실수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왔습니다. 우리가 신학 및 법학 분야에서 한 일로 악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잘못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학을 만들었고 좋은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주님과 그분의 어머니의 은혜, 우리 아버지와 성 요셉 주님의 섭리, 수호 천사의 도움으로 우리가 한 일은 더 이상 잘못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필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화하십시오, 여러분은 왜 그렇게 침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집이 정말 멋지지 않나요?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부성애와 모성애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초창기 저는 오푸스데이에서 여성은 절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글로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센터의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리적인 인간적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봉사할 일종의 소명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성 요리사를 찾았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성요리사를 찾았어요.

법인사도직 기관은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오푸스데이에서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은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살고 항상 하느님의 자녀처럼

행동하며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일하며 항상 그 사랑과 하느님의 힘으로 지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첫 기숙사에서 했던 첫 번째 식사가 기억납니다. 첫 번째 식사는 바나나 튀김을 곁들인 흰 쌀밥이었습니다. 아주 맛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목소리가 들려서, 주방에 누가 있냐고 물었는데 남자 요리사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그에게 친절하게 매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남자 요리사를 둘 수 없으니 돈은 얼마든지 보상받고 다른 일 자리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첫 법인사도직 기관은 법학과 건축학을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DYA 라고 이름 붙인 아카데미였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하느님과 대담함을 의미했습니다. 얼마 전 그 건물을 지나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얼마나 많은 모순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거짓말과 비슷한 말을 들었는지!

저는 '통통한 콘치따'라고 한 가족 친구가 준 가구와 어머니의 다른 물건들을 가져갔습니다. 일부 가구는 너무 커서 그것을 포르타 첼리 정신병원으로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곳에 사는 청년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물건이 분배되고 나니 크기가 더 적절했고 모든 것이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매일 어머니의 집을 나설 때면, 동생 산티아고가 와서 제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물어보곤 했습니다.

“동지로 무엇을 가져가?” 그 후로 우리 모두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 각자의 작은 집을 짓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동지로 가져왔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가정이 있고, 그 가정은 하나를 이룹니다! 우리는 많지만 의지와 자유로 가득 찬 축복받은 순종 덕분에 한 마음, 한 뜻, 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강요당한다고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랑의 제약,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결코 부응할 수밖에 없는 제약만 받아들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이사야서 43, 1).

망설이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를 모르지만 모든 영혼은 다르더라도 매우 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각자에게 신성한 소명이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원부터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손가락으로 여러분을 가리키셨을 뿐만 아니라 이마에 입맞춤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는 저에게 별처럼 빛납니다.

이 별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질푸른 밤하늘 저 위에는 놀랍도록 선명한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위대한 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명과 저의 소명은 똑같이 분명합니다.

저는 매우 비참하고 주님을 매우 불쾌하게 했습니다. 저는 보답하는 방법을 몰랐고 겁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소명이 신성하다는 것을 항상 확신했으니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여기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루카 16, 2).

세월이 흘러 제가 하느님 앞에 서게 될 때 예수님은 저의 심판자나 여러분의 심판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분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느님, 자비의 예수님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달콤한 꿀처럼 그 말을 반복합니다.

카바비앙카는 여러분이 세상에 불을 붙일 발화점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이 집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또 하나의 일꾼으로서 많은 시간 동안 일함으로써 기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해온 방식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축일을 맞이한 '치키'에게 축하하며 천국의 집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합류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치키'를 기억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가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가게에서 외상으로 옷을 빌려 입었고, 돈을 벌면 그때 가서 갚았습니다. 하지만 옷을 보관할 옷장이 없어 바닥에 신문지를 조심스럽게 깔고 그 위에 엄청난 양의 옷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때는 엄청난 양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옷 위에 더 많은 종이를 깔았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고 더 많은 수단이 생겼습니다.

산타 이사벨 수도원에서 성수와 우슬초를 가져왔어요. 제 여동생 카르멘이 큰 레이스로 멋진 장백의를 만들어 주었지요. 저는 영대와 예식의도 가져왔고, 엄숙하고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빈 집을 축복하고 다녔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꿈은 감실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수년 동안 주님께서 주신 준공립 소성당을 놓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어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 권리도 없었습니다. 성당에서는 감실 위에 사람이 살면, 감실을 덮어야 하기 때문에, 그 위에 천을 씌운 나무로 제작한 덮개를 놓아야 했습니다.

그 순간 '치키'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치키'를 처음 만났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치키, 좋다! 이 망치로 못을 박아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는 알바로처럼 멋진 소년이었어요.

자녀 여러분, 우리가 신성한 수단을 제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데리고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을

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스승이자 친구가 있습니다.

축복을 내릴 것입니다. 알바로, 도와주세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1975 년 3 월
27 일, 사제 서품 50 주년 하루 전)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7, 5). 저는 주님께 이 말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을 더 키워달라는 청원기도를 원하십니다. 내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수많은 은혜와 섭리, 애정과 타박상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타박상도 애정과 섭리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키워 주소서! 언제나 그렇듯이 당신과 친밀하게 대화하기 전에 하늘의 어머니, 성 요셉, 수호 천사들에게 우리를 의탁했습니다.

50 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여전히 웅얼이하는 아이와 같습니다. 매일 다시 시작하고 또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날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항상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중 누구도 교만하거나 어리석은 허영심을

가질 이유가 없도록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입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세심한 귀와 긴장된 의지를 가지고 신성한 영감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봅니다. 거대한 파노라마를 봅니다. 많은 고통과 많은 기쁨. 고통이 예술가의 망치질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기쁨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라는 형체 없는 덩어리로 십자가에서 또 다른 그리스도를 만들고 싶어하십니다.

주님,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당신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전례의 본문을 반복하기 전에, 저는 당신께 마음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입과 많은 가슴이 한 목소리로 당신께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서두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일에도 평온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요즘 포르투갈에 있는 모두에게 평온하라고 합니다!

주님, 자녀들에게 평온을 주소서. 그들이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에도 평온함을 잃지 않게 하소서. 그들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이미 은혜이며 하늘의 빛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감사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오후스데이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주님, 당신은 어리석은 4 명으로 그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있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시려고, 이 세상의 비천한 것과 천대받는 것 곧 없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1 코린토 1, 28).

성 바오로의 모든 교리가 성취되었습니다. 당신께서는 완전히 비논리적이고 전혀 적합하지 않은 수단을 모색하셨지만 전 세계에 그 일을 전파하셨습니다. 유럽 전역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부 지역, 미국 전역과 오세아니아에서 당신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당신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먹을 돈조차 없을 때 저의 자녀들이 정성껏 만든 아름다운 감실에 저는 두세 가지 소품을 넣었습니다. 이 감실은 일종의 사치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모시기에 누추해 보입니다, 저는 그곳에 두세 가지 디테일을 넣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문 위의 문구입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 17, 23).

마치 우리 모두가 주님께 매달려 밤낮으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감사와 용서를 구하는 노래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화를 내실 것 같습니다. 당신께서는 항상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항상 실수, 오류, 관능의 열매 또는 교만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속하기 위해, 기쁘게 하기 위해, 감사하기 위해 단합되어 있으며, 이는 중대한 의무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이나 오늘, 또는 내일의 기념일에 대한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의무이며, 초자연적인 삶의 표현이며, 신성하고 인간적인 당신의 사랑에 응답하는 인간적이고 신성한 방식입니다.

우리의 희망이시며 지혜의 보좌이신 성모 마리아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당신의 아들과 성부와 성령, 곧 살아 계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느님 앞에서 기쁨을 드리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성 요셉, 저는 당신을 예수님과 마리아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성 요셉, 저는 항상 당신에게 헌신해 왔지만 매일 당신을 더 사랑하고 사방에 그것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사랑한다고 말함으로써 사랑을 표현합니다! 성 요셉, 우리 아버지이자 주님, 이미 이 시간에 많은 곳에서 이 같은 문구, 같은 말을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시며 주님이신 성 요셉이시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잘 모신다면 이교도화 되고 광기 어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해질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는 모든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치광이 같아서입니다.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께 관심이 없다는 인상을 줍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알지 못하고 당신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삶이 더 인간적이라면 더 신성한 삶이 되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잘 모신다면 더욱 신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곳에서 기다려야 하고 여러 번 면담을 요청해야 하더라도 당신을 찾겠습니다. 그러나 면담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셔서 만주의 주님, 통치자 중의 왕이신데도 자신을 낮추시어 우리 문 앞에서 가난한 사람처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지 않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천국, 낙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성체성사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너무 선하셔서 사랑으로 숨겨져 성체 성사에 숨겨져 계실 때 가장 복되신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굳게 믿습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몸과 피, 당신의 영혼과 신성과 함께 정말로, 진실로, 실질적으로 현존하십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복되신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중심에 계시며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매일 어떤 식으로든 베들레헴의 장면은 반복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입 보다 행동으로 더 많은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루카 2, 7).

내 마음에는 당신을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신 하느님을 경배합니다. 저는 삼위일체의 경이로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 영혼에 믿고 싶은 소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가장 많이 믿는 사람만큼 믿고 싶습니다. 희망합니다! 저는 가장 많이 희망하는 사람만큼 희망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랑합니다! 저는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만큼 사랑하고 싶습니다.

당신께서는 최고의 선이십니다. 저는 이 썩은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걸레입니다. 그런데도 당신께서는 저를 바라보시고, 저를 찾으시고, 저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제 자녀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간구합니다.

당신을 바라본다는 것은 당신의 은총으로 인간의 이성이 당신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당신을 이해하고자 열망하는 영혼의 눈을 당신께 두는 것입니다.

저는 작은 것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위대함, 당신의 선하심, 당신의 지혜, 당신의 능력, 당신의 아름다움을 조금만 이해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너무 위대하시고 제 가난한 마음과 비참한 지능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니 기쁩니다.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다른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위대함, 당신의 모든 힘, 당신의 모든 아름다움은 저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마리아, 요셉이라는 지상의 삼위일체를 통해 천상의 삼위일체에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더 접근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느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입니다. 마리아는 가장 순수하고 위대한 여성입니다. 오직 하느님께서만 그녀보다 위대하십니다. 요셉은 마리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는 깨끗하고 남자답고 신중하고 온전합니다. 얼마나 좋은 모델입니까! 주님,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슬퍼서 죽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신을 신성하게 만드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수단을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리고 신성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 번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상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천국과 땅 사이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낙원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한 우리가 살아야 할 방식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모두 신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고 땅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 항아리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항아리가 깨졌을 때, 쇠고리를 넣었습니다. 우리는 탕자처럼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루카 15, 18).

우리는 그것이 큰 일이었을 때와 작은 일이었을 때를 모두 거슬러 올라갑니다. 때로는 작은 일로 인해 큰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랑의 부족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웃는 법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랑할 때 작은 것은 없습니다. 비참한 작은 생명체, 여러분과 저에게는 모든 것이 큼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매우 풍성한 보물을 쌓아두기를 원하셨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심지어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서 저는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모든 위대하심으로 거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는 하나의 진정한 삼위일체이십니다. 당신은 하나이시며 하느님이십니다. 당신께서는 거룩한 일치이십니다.

저는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도시를 지켜보는 탑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각자는 도시이며, 우리 내부에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움직임과 동시에 많은 고요함이 있습니다. 무질서도 많고 질서도 많습니다. 많은 소음과 많은 침묵이 있습니다. 많은 전쟁과 많은 평화가 있습니다.

도시의 탑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

우리의 아버지이자 주님이신 성 요셉,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

거룩한 수호천사님,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